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33 / May / 2005

0505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건축사 2005 / 05

Korean Architects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Contents



27



37



40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5 05 433호

칼럼	2005 전국건축사대회 를 대 국민 홍보와 선언의 장으로 박신욱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시론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강석후	18
회원작품	무학교회 김정식 20	
	반포3동 어린이집 김휘열 28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인의식 · 장명희 34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박영건 · 심재호 + 최명철 · 심우근 42	
	대전 코바골프연습장 이용선 50	
계획작품	청심 청소년 수련원 김광섭 56	
작품노트	중국 여강시 강동 욕류 호텔 심재호 60	
기고	설계, 감리 및 검사업무의 제도개선방향 이종엽 64	
연재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02 박진호 72	
건축마당	협회소식 80	
	건축계소식 81	
	해외잡지동향 88	
	현상설계 94	
	법 령 110	
	회원갤러리 118	
	통 계 120	

발 행 인 이철호
 편 찬 위 원 장양준, 손기찬, 유원재, 박호건,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 편 번 호 137-857
 전 화 대표 (02)581-5711~4
 팩 시 밀 리 (02)586-8823
 인 터 넷 http://www.kira.or.kr
 인 쇄 (주)영림인쇄
 광 고 문 의 홍보판찬팀



45



49



54

Korean Architects

Vol. 433
May 2005

Column

Utilizing "2005 Architect's Convention" for Publicity and Announcement

Park Shin-wook 14

Cartoon

Yoo Won-Jai 17

Current view

Dreaming of Korea, the Great Cultural Power

Kang Suk-hoo 18

Works

Moohak Presbyterian Church

Kim Jung-sik 20

Ban Po 3 Dong kindergarten

Kim Hwi-yeol 28

Doonsan Oriental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In Eui-sik, Jang Myung-hee 34

Industrial Cooperation Complex

Park Young-hern, Shim Jae-ho & Tohee Myung-chul, Shim Woo-keun 42

Korva Golf Club

Lee Yong-sun 50

Process works

CheongShim Youth Training Center

Kim Kwang-sup 56

Design note

Li Jiang City - Yu Long 5star Hotel

Shim Jae-ho 60

Feature

Direction of Systematic Reformation in Architectural Design, Management and Examination

Lee Jong-yeop 64

Serial

Housing Flexibility - Design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Park Jin-ho 72

Architects' Plaza

Kira news 80

Archi-Net 81

Overseas Journal 88

Competition 94

Laws & ordinances 110

Gallery 118

Statistics 120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Sohn Kee-cha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un, Shin Ho-gue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2005 전국건축사대회’를 대 국민 홍보와 선언의 장으로

Utilizing "2005 Architect's Convention" for Publicity and Announcement

Column

올해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 40주년으로 성숙한 장년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해를 맞아 부산에서 개최될 ‘2005 전국건축사대회’는 우리 건축사들에게 미래비전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보다 뜻 깊고 보람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1993년 대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무려 12년의 공백을 딛고 재개되는 만큼 건축사의 위상과 자존심 회복을 통해 건축의 중흥을 꾀하고자 하는 원대한 취지를 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05 전국건축사대회’는 ‘제5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연계됨으로써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승화되어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창립4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건축사들은 급변하는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국가건설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이 땅의 건축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그러나 IMF라는 미증유의 경제대란과 지금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의지는 여지없이 꺾이고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져 급기야는 호구지책의 생존논리에 무릎 꿇고 마지막 보루인 자존심조차 상실해 가는 이른바 총체적 난국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참담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직무가 있고,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있기에 모든 악조건과 현실적 고통을 감내하며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호전될 기미도 없지만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 재도약을 위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아닌 실천만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역사의 뒀안길로 물러가더라도 이 땅의 건축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명제아래 우리의 후배들에게만은 제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동안 변화에 무뎠습니다. 말로만 변했고 마음으로만 찾았습니다.

이래서는 생존도 비전도 없습니다. 변화하는 자 만이 살아남는다는 현실의 진리에 눈을 떠 정지된 지성이 아닌 행동하는 지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건설업체의 설계검업 허용이라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끌 수 없을 뿐더러 생존권 확보라는 지상과제에는 접근조차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전국건축사대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건축사들의 개인적인 마인드는 장기불황의 고난 속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고 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개인적 사고의 변화만으로는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의식의 집단화와 집단적 실행에 의한 가시적 영향력을 스스로 체험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공감하신다면 상징적 의미에서 넓은 바다와 거친 파도가 있는 부산에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전국을 휩쓸고 올라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대회의 성공여부는 물론이고 우리 협회와 건축사의 미래비전은 오로지 건축사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이건 부산이건 또 다른 어느 도시에서건 '전국건축사대회'가 열리는 그 곳 그 때가 바로 우리 건축사의 잠재력을 가다듬고 충전하는 유일한 장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 앞에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어 알리고 건축에 대한 중요성과 절대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건축사대회는 이러한 범국민적 홍보효과가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전제조건입니다. 부수적 효과로는 직업적 특성상 초래될 수 있는 매너리즘에 의한 개인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무한가치의 창조라는 집단적 목적의식에 충실토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금 생존권 확보라는 시대적 명제 앞에서 집단내부의 흑백논리는 공멸의 우를 자초할 뿐입니다. 저질(低質) 때문에 고급(高級)이 멎는다는 이기적 사유에서 벗어나 저질의 고급화를 통한 고급의 초고급화(超高級化)를 유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전국건축사대회가 보수교육이라는 관제의 틀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이고 일과성 행사였다면 이제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스스로의 경쟁력을 배양하고 미래비전의 창출을 위한 집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이른바 자발적 동참에 의한 적극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는 6월 25일에는 잠시 일손을 멈추시고 부산으로 달려오십시오.

우리 부산의 모든 건축사들이 여러분께 보다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밤낮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5 전국건축사대회'는 건축사의 날입니다. 보다 바람직한 우리의 내일을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다짐도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로운 건축사상을 보여주겠다는 선언도 한번 해 봅시다.

변해야 살고 변화를 위한 길은 '2005 전국건축사대회'에 있습니다.

한번 건축사는 영원한 건축사라고 넓은 바다를 향해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고 6월 25일에는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Dreaming of Korea, the Great Cultural Power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인간의 사회는 언제나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을 위하여 싸워왔다.

어느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풍요로운 삶이 아닌 우리 모두의 품격 높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의 발전과 문화적인 삶 즉 품격 높은 삶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기 위해서는 과학의 발전이 전제 되어야하며 과학의 발전은 지식과 기술의 발전 위에서만 가능하다.

결국 과학의 발전은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안정되면 인간 사회는 문화적인 삶을 시작한다. 국가의 최후의 목표는 그래서 문화대국 일 것이다.

한 국가가 아무리 문화를 발전시키려 해도 경제적 풍요없이는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안정 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문화가 생산되며, 문화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가 깊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민 개개인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반도체 및 IT분야에서의 발전은 세계가 놀라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발전으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0,000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세계10위 국가이다. 이제 문화이다. 아직 우리는 문화적 측면에서 후진국이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지적 수준이 높은 우리가 왜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해 왔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건축문화 부분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며, 건축문화의 시너지 효과는 동남아 및 일본등지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보다 더욱 더 클 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낮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에 준비중인 건축문화 신진화 위원회가 문화대국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해줄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 현재의 제도는 건축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전문가의 견해가 비전문가에 예측되어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주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전문가인 건축사(Architect)를 움직이고 지시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야만 건축문화는 발전할 수 있다. 이는 판사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판결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둘째 - 건축문화는 그 시대 그 땅의 역사적 배경 아래 발전한다. 외국의 건축물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그대로 옮겨 올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 전통이 배여 있는 우리만의 건축문화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다.

셋째 - 명품위주의 표현에 집착하는 랜드마크적 건축물을 경계해야 한다. 외국의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즉 명품들은 현재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색한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런 무분별한 명품들의 잔치는 우리 건축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 건축사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건축문화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건축사들을 포상하고 그들이 설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호에 온 힘과 열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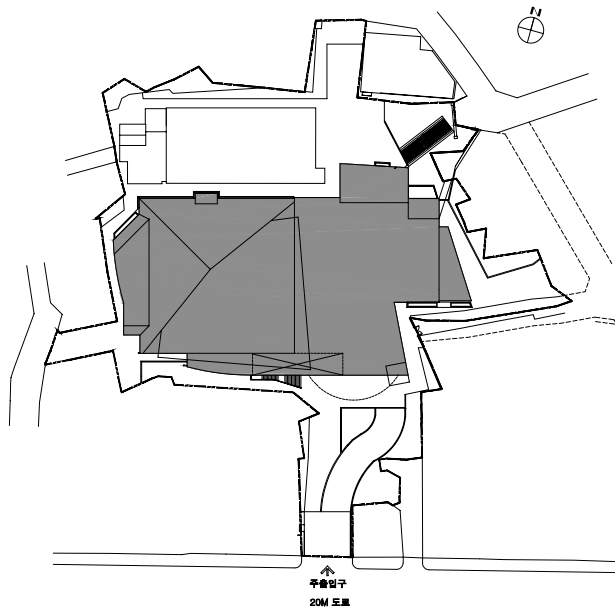
지금까지 건축은 건설 기술로 인식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건축은 문화이다.

정부의 부처도 건설교통부안에 건축이 들어있다. 이는 건축을 문화로 보는 시각이 아니고 건설로 보는 시각이다. 건축이 문화로 발전하려면 제도적 보안 장치가 필요하며 지원이 절실하다. 르네상스의 발생 배경을 보면 이탈리아 북부 피렌체지방의 부호들의 지원아래 문예 부흥은 시작되었고 이후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다. 건축문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문화진흥법을 제안하고 동시에 정부의 애정어린 지원이 필요함으로 지금의 건설교통부나 문화공보부가 아닌 별도의 현재 문화재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관리업무 및 건축문화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건축문화부의 신설이 요구된다. ㉠

무학교회

Moohak Presbyterian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07-25(외27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
대지면적	6,570,775㎡
건축면적	기존건물683,64㎡+신축건물2,677,35㎡=3,345,35㎡
연면적	기존건물1,855,16㎡ +신축건물12,485,18㎡=14,111,60㎡
건폐율	53.44%
용적률	136.23%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외부마감	동판, 화강석 및 노출콘크리트
구조설계	센구조
기계	정도설비
인테리어	카텍+조원건축
조경	솔토조경
전기설계	(주)정은종합기술
시공사	정림ENC
설계담당	유윤철, 홍상우, 박무룡, 이종명, 오택만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김용관)



Location Haengdang-dong 307-25,
Seongdong-gu Seoul, Korea

Site area 6,570,775㎡

Bldg. area 3,34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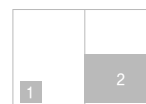
Gross floor area 14,111,60㎡

Bldg. coverage ratio 53.44%

Gross floor ratio 136.23%

Bldg. scale two stories below ground,
four stories above ground

Photographer Kim Yong-kwan



1. 무학교회에서 바라본 전경 (지역의 랜드마크)
2.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 (곡선)

무학교회는 필자에게 뜻있고 각별한 프로젝트이다. 왜 그런지 “이 프로젝트는 내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일을 성사시키려고 많은 애를 썼다.

원래 무학교회 건축위원회에서는 기존 본당과 교육관을 모두 철거하고 깨끗한 대지위에 성전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필자가 제안하기를 기존 본당을 살리고 교육관만 철거하여 그 자리에 새성전을 신축함으로써, 새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기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새성전이 완성된 후에는 그 기존 본당을 리노베이션하여 교육관으로 사용함으로써 교회에도 많은 경제적으로 유익하며 새성전 신축동안에 외부의 다른 장

소를 이용하는 불편함을 덜도록 제안하였더니, 필자의 제안에 건축위원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정림과 일하게 되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디자인빌드로 우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여 필자가 그리고 꿈꾸던 교회를 마음껏 설계하고, 시공하고, 재료선택을 했으며,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필자가 원하







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 완성시킨 내평생 처음있는 프로젝트였다.

여기에는 필자가 평소에 선호하고 생각하던 디자인 요소들 정사각형의 기하학적 평면, 부드러운 3차원 곡선의 유기적 형태의 몸체, 과감한 구조노출 철골지붕, 노출콘크리트벽, 교회 본당의 아름답고 신비스런 내부 예배공간, 내부 공간과 일치하는 외부형태(포인트 아치에 몸체와 날아갈 듯한 지붕, 천창(툽블라이트를 도입함으로 공간을 거룩하고 성스러운 분위기 창출), 양쪽 사이트에 동판몸체와 직각의 노출콘크리트와 이루어지는 예리하고 변화있는 삼각형 창, 전면 강단 상부의 단조로움을 깨고 윤택한 공간을 만들고 스피커와 스크린을 달 수 있는 단상위에 놓인 목조로 된 십자가 숲, 파도치는 물결처럼 부드러운 철망(Wire Mesh)의 지붕구조가 투시되는 천정, 남북의 약 8m 고저차를 직선으로 앞뒤의 도로를 연결 관통하여 간결한 동선으로 해결하였으며, 그 통로에 한쪽에는 예배 및 집회 공간, 다른 한쪽에는 식당 및 사무실, 오픈카페 등을 배치하여 분리하였다.

중앙에는 8m차를 연결하는 계단, 엘리베이터를 배치하였고, 3개층 높이의 큰 아트리움을 두고 톱브라이트로 밝고 맛있는 분위기를 창출하였으며, 대형 노출콘크리트에는 멋있는 일미늄 대형조각의 영상과 홀로그램이 나오는 부조(조각)를 설치, 아트리움을 더 윤택하게 하였다.

외부형태로는 내부예배 공간을 그대로 표현한 3차원의 포인트 아치로 거룩한 주님의 망토를 입으신 형상이기도 하며, 부드러운 여인의 젖가슴 같은 유기적 형태이며, 동지붕은 날아가는 학의 날개같기도 하며, 동판 몸체와 지붕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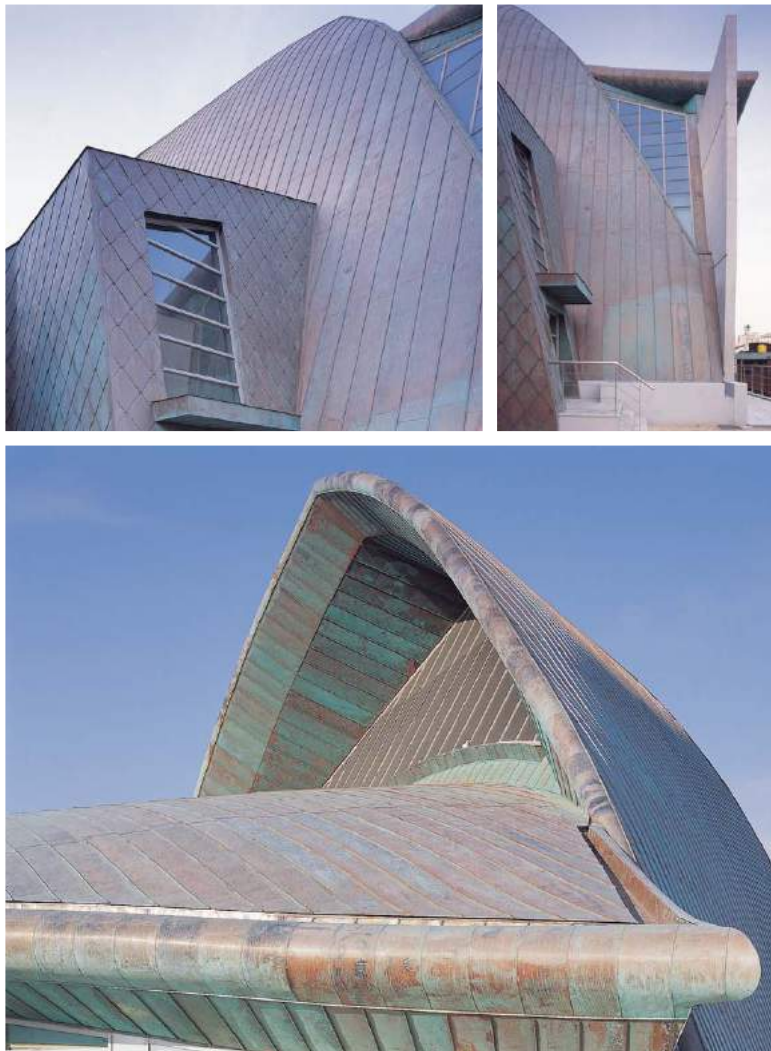
이런 자유곡선과 면이 탄생된 것은 인천공항에서 얻은 구조에 대한 자신감과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T자, 곡선자로 그리던 것이 오늘날에는 컴퓨터로 어려운 3차원의 곡선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철골업체에서는 시공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며 겨우 해결하였다.)

이 동판몸체와 지붕을 직각에 노출콘크리트 벽과 전면 화사드의 돌면, 중앙부분을 크



1. Gray tone의 돌벽 중앙에 대담한 출입구 Opening
2. Exconcr의 뒷면과 기존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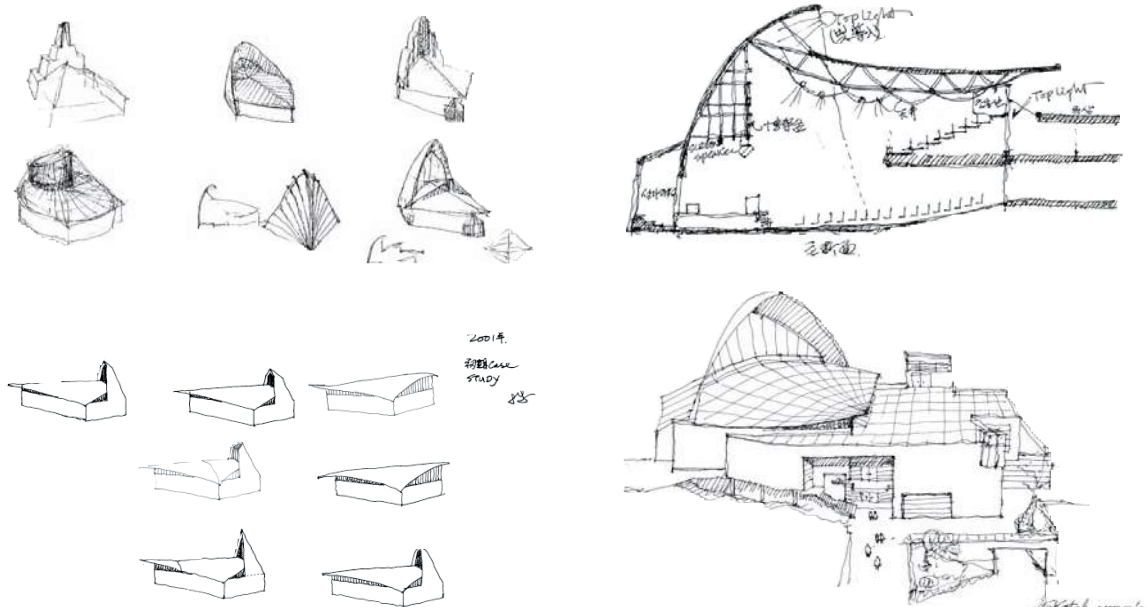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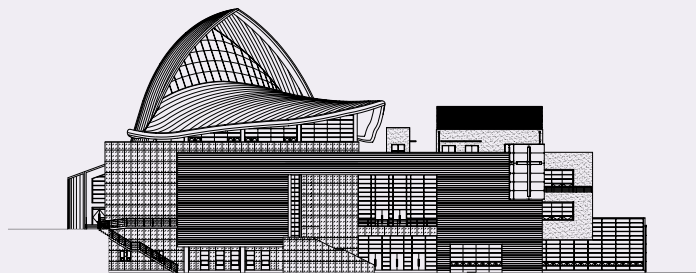
게 오픈하여 옥외 계단과 주출입구를 두었고, 돌벽 끝에는 6m 높이의 유리십자가를 정면에 약간 어긋나게 두어 딱딱한 돌면에 종지부를 찍어 단조로움을 깨고 액센트를 부여하였다.

이 유리십자가는 3층 내부에도 파고들어서 내부 공간에 은은한 빛을 도입하여 공간에 멋을 느끼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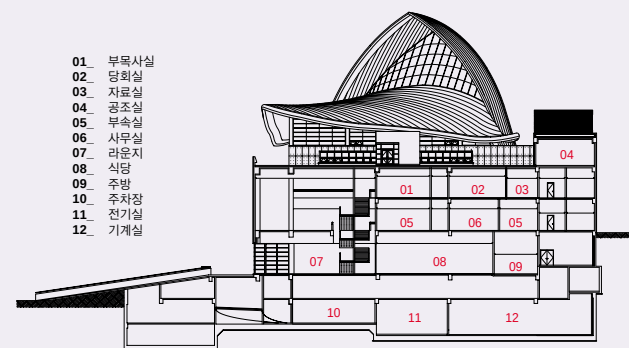
주변이 거의 2, 3층 높이의 제대로 정돈이 안된 주택 및 상가들이 밀집한 곳에 부드러운 몸체와 지붕, 잘 정돈된 정면으로 그 지역에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어 어떤 방향에서 보나 아름답고 보기좋은 교회라고 평가받고 있다.

기도로 시작하여 필자의 정성이 깃든 이러한 독특한 디자인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안을 과감히 채택하여 준 무학교회 당회장 김창근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이원복 장로와 모든 건축위원 및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이 성전이 모든 성도와 주변 이웃들의 사랑을 받고 흥왕하는 교회로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기원한다.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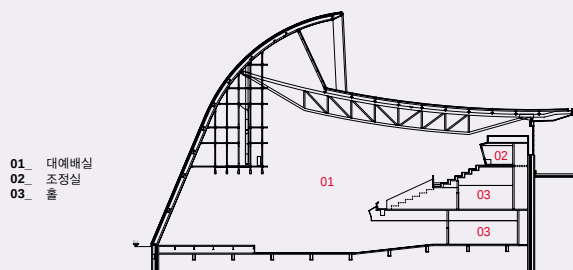


정면도



- 01. 부속사실
- 02. 당회실
- 03. 자료실
- 04. 경조실
- 05. 부속실
- 06. 사무실
- 07. 라운지
- 08. 식당
- 09. 주방
- 10. 주차장
- 11. 전기실
- 12. 기계실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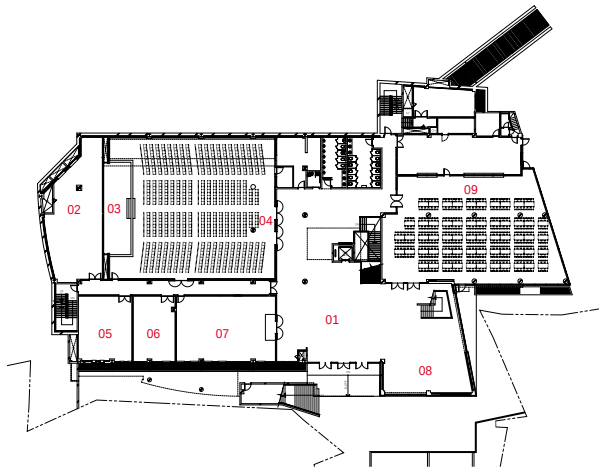
- 01. 대예배실
- 02. 조정실
- 03. 홀

대예배실 단면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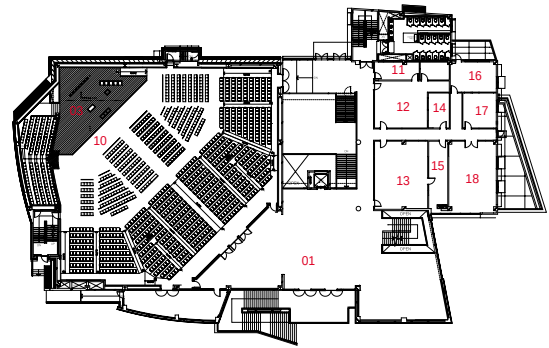
1	2
3	

- 1. 뒷면 지붕
- 2. 북쪽 입면
- 3. 우아한 측면 지붕
- 4. 뒷 출입구와 지붕
- 5. 주출입구와 open 계단
- 6. 옆에서 본 open계단과 주출입구 계단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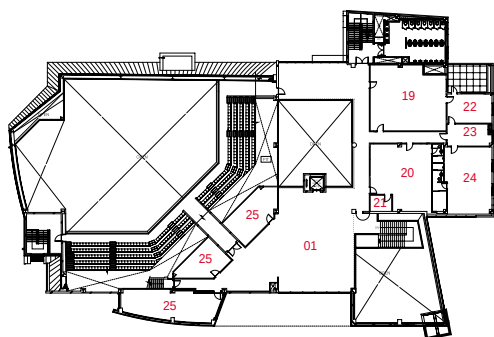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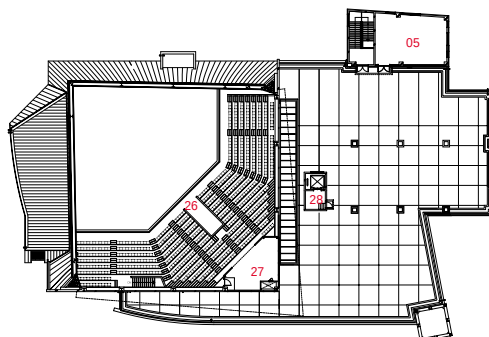


1. 실내 Lobby, Lounge를 연결하는 open 계단
2. 3개층의 Atrium의 북카페와 아름다운 벽, 조각 (Relieb)
3. 성전 내부공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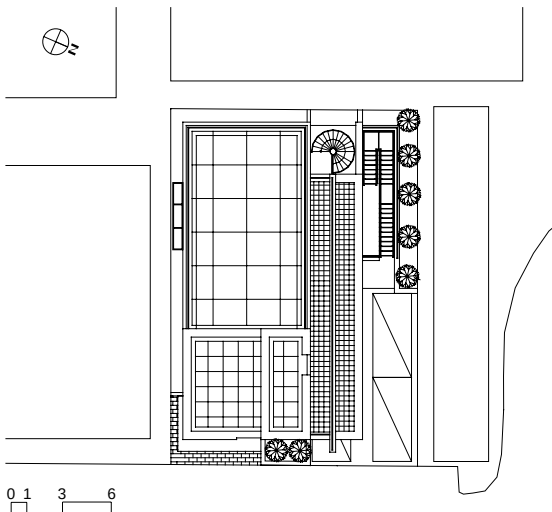
- 01. 출
- 02. 찬양연습실
- 03. 강단
- 04. 중예배실
- 05. 공조실(대예배실용)
- 06. 아카데미
- 07. 소예배실
- 08. 라운지
- 09. 식당
- 10. 대예배실
- 11. 전산실
- 12. 사무실
- 13. 세가족부실
- 14. 집계실
- 15. 교사실
- 16. 양육자실
- 17. 중보기도실
- 18. 은퇴장로실
- 19. 당회실
- 20. 무목사실
- 21. 상담실
- 22. 당회장실
- 23. 비서실
- 24. 담임목사실
- 25. 무속실
- 26. 발코니예배실
- 27. 조정실
- 28. ELEV홀



반포3동 어린이집

Ban Po 3 Dong kindergarten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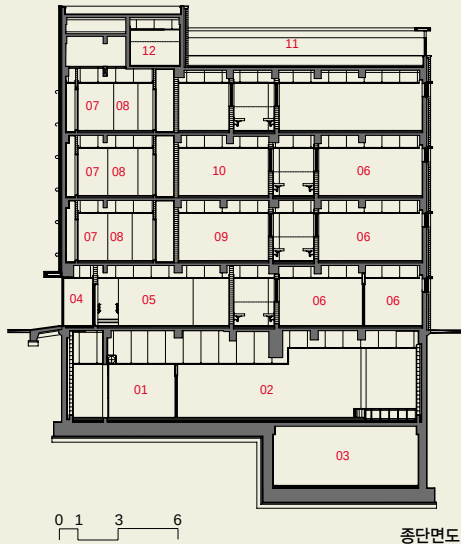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6-9, 1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어린이집
대지면적	311.20㎡
건축면적	183.69㎡
연면적	815.13㎡
건폐율	59.03%
용적률	194.48%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화강석, THK8 온돌용 강화마루, 무늬목, 아크릴 페인트
외부마감	적벽돌 치장쌓기, THK2알미늄시트, THK24 복층유리
구조설계	(주)한울구조
설비설계	(주)송정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주)동양기술단
시공사	(주)세구건설
설계기간	2002. 12. 30 ~ 2003. 2. 17
공사기간	2003. 8. 25 ~ 2004. 5. 21
설계담당	김태호, 김시원, 백형철, 안삼철, 서정범, 김도선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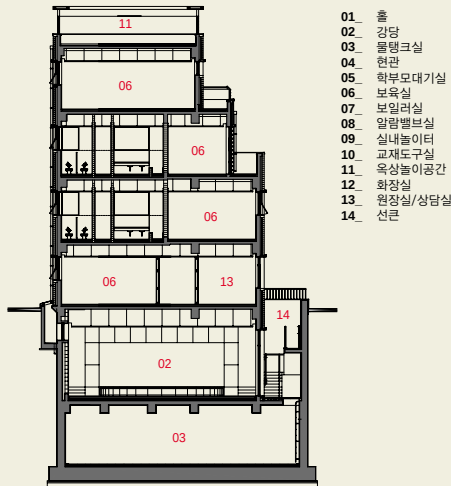


Location	Jamwon-dong 76-9, Seocho-gu Seoul, Korea
Site area	311.20㎡
Bldg. area	183.69㎡
Gross floor area	815.13㎡
Bldg. coverage ratio	59.03%
Gross floor ratio	194.48%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four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R,C
Design period	2002. 12. 30 ~ 2003. 2. 17
Construction period	2003. 8. 25 ~ 2004. 5. 21





종단면도



횡단면도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반포대교를 건너
기 전 신반포아파트 3단지를 인접하여 위치
하고 있다.

100평이 채 안되는 협소한 부지에 인접한
주변건물과 고층아파트단지, 좁고 긴 대지형
상, 막다른 도로 등 매우 익숙하고 상투적인
풍경속에 도화적 일상이 영위되고 있는 모습
이 여과없이 노출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린이를 위
한 건축이 그들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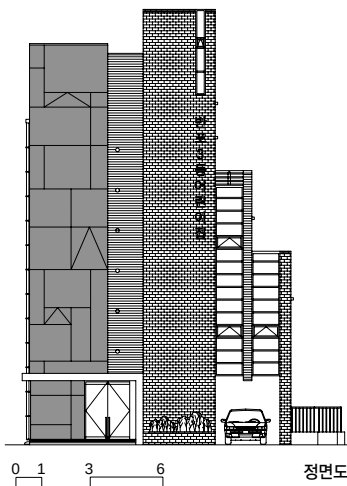
자연의 눈금

어린이집이 별개의 공간이 아닌 작은 사
회의 또다른 실천의 장으로써 존재하고 행해
지는 아이들의 삶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
이었다. 또한 건축환경의 구성방식을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적용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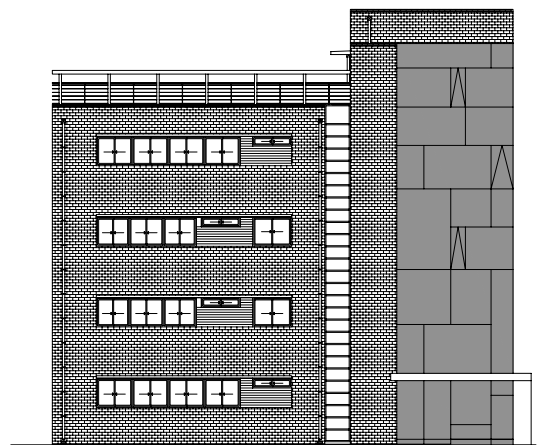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초기 환경적응을 위해 친근성
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일조권제한으로 인해 이격된 계단식
Mass는 공간적 볼륨의 판으로 변환시켜 분
절하고, 도시의 표정을 읽는 단층이 되어 재
장착 되어진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빛과 시간의 흐름, 자
연의 눈금을 읽을 수 있는 외적 켄가 함께



정면도



좌측면도

끼워져 있다. 여기를 마주보며 내부평면에서
는 통로와 보육실, 유학실을 배치하였다. 아
이들이 일상으로 만나는 아파트 발코니의
선근가든처럼 꾸며진 그 외적인 켜와 서로
교감을 이루는 건축적 투명성을 제공한다.

표정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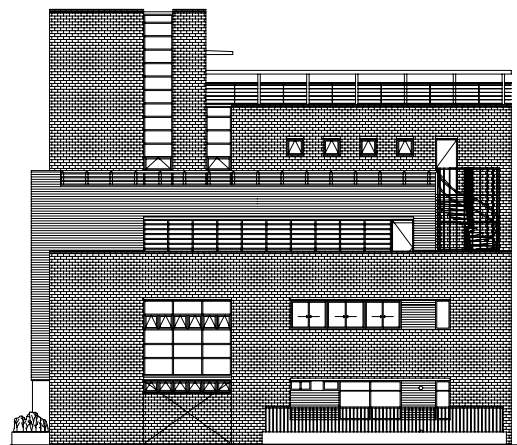
우리에게 잊혀진 공간속에서 잃어버린 도
시의 표정을 되살리는 작업을 통해 어린이
에게 창의적인 공간이 되고 사회적인 커뮤
니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진입부 전면에 배치
하여 일상적인 수직동선이 시간의 흐름과
주변사회의 변화를 읽게 하고, 도시의 제스
추어를 만들어 내는 꼴라주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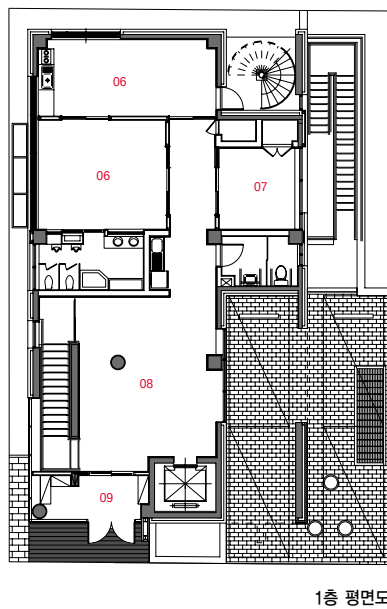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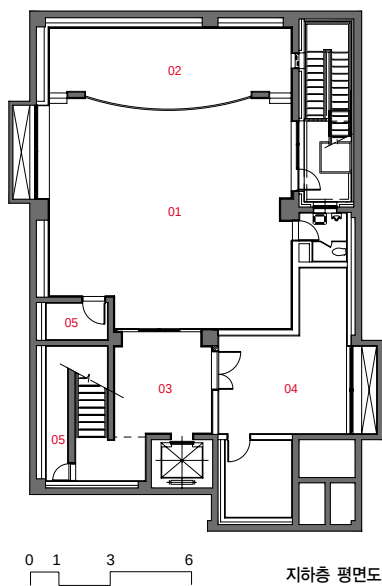
이것은 밀집한 도시의 켜를 장착하고, 거
리와 동네풍경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정에서
이루어야하는 아이들의 사회화 교육과정을
대행하는 일부가 되고 장소가 되며 가구가
되도록 하였다.

삼원색 사이로 비치는 계단에 아이들의
느리고 빠른 움직임이 창너머로 투과되어
어린이 집 주변, 무채색의 아파트 단지를 밝
고, 맑게 변화시켜줄 것 이라고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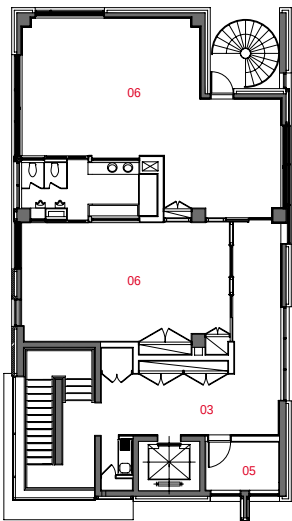
건축, 그 이상의 무언으로 아이들에게 다
가가길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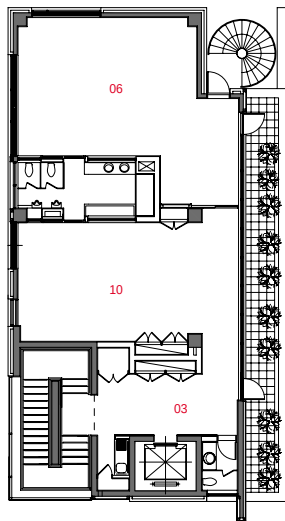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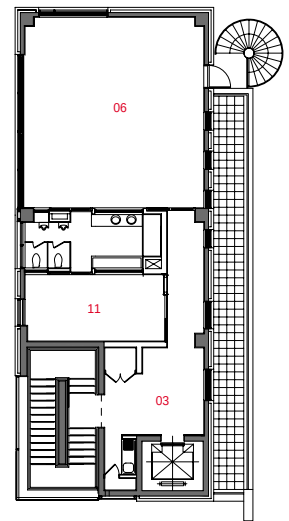
- 01. 강당
- 02. 무대
- 03. 출
- 04. 주방
- 05. 창고
- 06. 보육실
- 07. 원장실(상담실)
- 08. 학부모대기실
- 09. 현관
- 10. 실내놀이터
- 11. 교재도구실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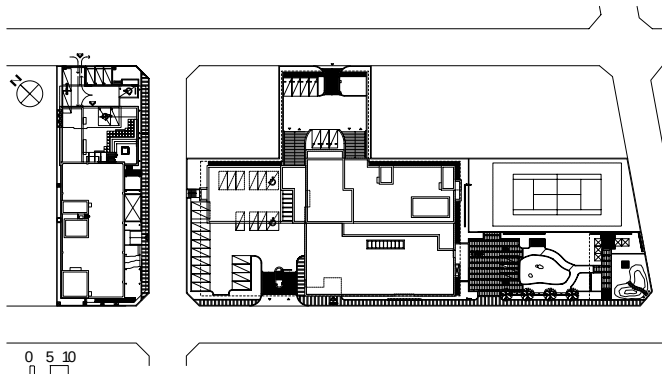
4층 평면도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Doonsan Oriental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6외 6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용 도 의료시설

대지면적 5,533.10㎡

건축면적 1,918.90㎡

연 면 적 14,808.85㎡

건 폐 율 34.68%

용 적 률 151.854%

규 모 지하 3층, 지상 7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 T8폴리싱타일, 디럭스타일

벽: T8폴리싱타일, 무늬목필름

천장: 금속천정재, 암면텍스

외부마감 T:15 케라트원타일, T:2.0 AL 패널

구조설계 바른구조

설비설계 정도설비

전기설계 한신전기

시 공 사 계룡건설산업(주)

설계기간 1999. 5 ~ 2002. 5

공사기간 2002. 5 ~ 2004. 7

설계담당 건축: 김응창, 어범용, 정 모, 문 업

인테리어: 안찬익, 안호섭, 배성완

Location Dunsan-dong 1136, Seo-gu Daejeon, Korea

Site area 5,533.10㎡

Bldg. area 1,918.90㎡

Gross floor area 14,808.85㎡

Bldg. coverage ratio 3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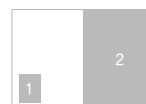
Gross floor ratio 151.854%

Bldg. scale three stories below ground, seven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R,C

Design period 1999. 5 ~ 2002. 5

Construction period 2002. 5 ~ 2004. 7



1. 병원동 주출입구
2. 병원동 남측 입면상세





대전의 신도심인 둔산지역 입구에 대전대학교의 비전을 펼쳐나갈 둔산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계룡로를 따라 길게 배치된 두 개의 부지에 대학원과 한방병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브리지로 연결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사용되도록 계획하였으나 주변 사정으로 아직 연결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부지가 여러번 바뀌면서 설계에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 기간동안 병원에서

는 미래에 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정리할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수 있었고, 설계자는 건축계획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조경, 가구, 소품 등 여러분야에 참여하며 '병원 이미지 통일화(He : Hospital Identity)' 작업을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초기에는 병원의 각 분야 구성원들의 상이한 요구들에 대한 타협과 설득이 이 설계의 주요 사항이었으나, 계획을 진행시키면서 이



1. 계룡로에서 바라본 병원 전경
2. 3층 옥상정원 (사랑채)
3. 7층 옥상정원 (하늘채)



들보다 더 근본적인 목표와 수직적으로 분절된 사용자 요구들을 수평으로 엮어줄 새로운 차원의 계획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들을 몇 개의 개념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병원은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모든 병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다 나은 치료환경을 위하여 새로운 기능과 시설들을 도입하고 많은 공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경우 초기의 정리된 공간 이미지들이 대부분 훼손된다. 이는 전문가에 의한 꾸준한 관리부족의 원인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초기 계획시 이들의 변화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래에 가능한 변화를 여러 방향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병원 외래진료동과 입원동은 수평과 수직 증축 가능성을 고려하였고, 지상층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도 증축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계획하고 디테일을 처리하였으며, 3층 물리치료실과 7층 식당은 수평 증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조경 영역을 설정하였고, 3층 일부와 6층 관리동은 추후에 입원동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한방병원은 노인환자들이 많아 보호자가 함께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보호자를 위한 공간과 시설의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

입원동에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여유있는 휴식공간과 단체면담실, 간이조리실, 세탁실 그리고 족탕실, 냉온욕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외래진료공간에서는 진료 대기공간 가까이에 원무과를 분산 배치하여 환자와 보호자 동선을 최소화하였다.

옥외조경공간은 보여주는 기능 뿐만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즐길수 있는 여러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3층 사랑채는 물리치료실과 연계되어 옥외 놀이치료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고려하였고, 4층 병실에서는 발코니에서 가족과 함께 야외 식사도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

병원 운영이 지속되면서 환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보호자를 위하여 환자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하고 편의시설들 또한 이용자 중심으로 계속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원 인테리어에서는 한방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이미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여주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으며, 초기에는 한식의 패턴과 색상을 외부와 주요공간에 도입하는 구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었다. 그러나 한방의학의 뿌리가 비록 과거 동양의 전통의학에 있더라도 첨단 생명공학과 함께 공존하며 발전해가는 현재의 모습을 굳이 과거의 이미지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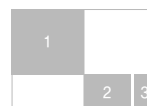
설계과정에서 추상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재해석하게 되었다.

먼저 자연에서 유추되어 우리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중간계열 색상들을 선정하여 가구, 사인, 소품들의 기존 색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들 색을 엷게 희석시켜 실내마감의 바탕색상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주요공간들은 이들의 색 배합에 변화를 주어 다른 이미지로 느껴지도록 하였다. 한식 패턴의 일부는 재해석되어 사인의 바탕과 소품으로 표현했고, 실

내 조경식재인 대나무마디의 패턴을 주요 이미지벽의 재질감으로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친근감있고 따뜻하며 청결한 느낌이 느껴지도록 계획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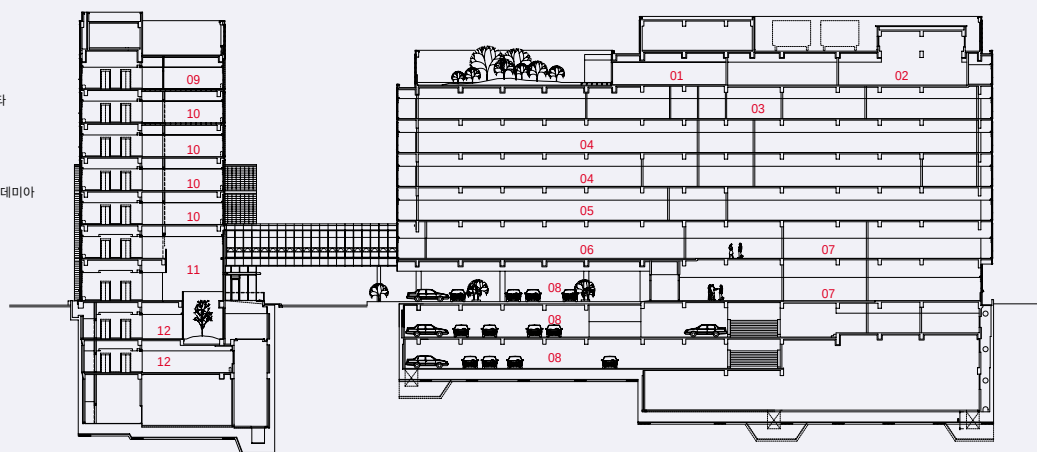
외부 마감재인 케라트윈 타일은 세월이 지나도 색의 변화가 없고 항상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병원 이미지에 적합하여 여러병원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밝은 계열 색상보다 어두운 계열의 색을 선택하여 입면



1. 동측 입면과 부출입구 전경
2. 1층 한방진료 대기홀
3. 2층 외래진료 계단실

- 01_ 식당
- 02_ 텃밭실
- 03_ 수련의 숙소
- 04_ 입원실
- 05_ 물리치료실
- 06_ 종합검진센터
- 07_ 외래진료실
- 08_ 주차장
- 09_ 전산센터
- 10_ 강의실
- 11_ 대강당
- 12_ 웰리스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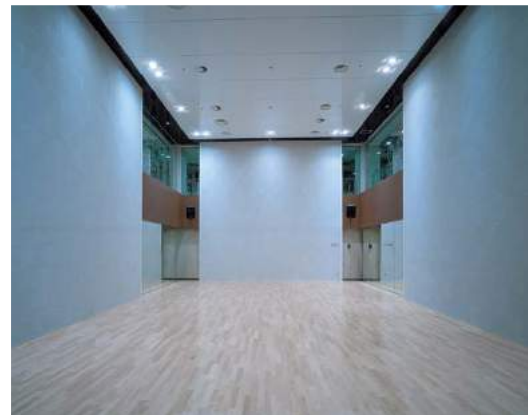


단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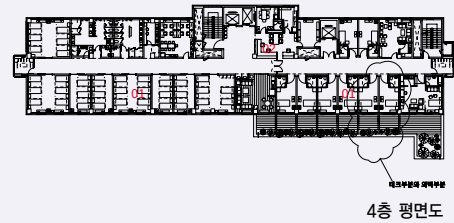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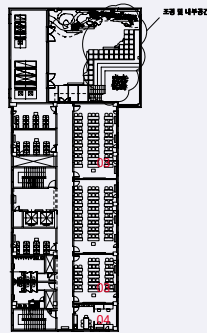


에 반복되어 사용되는 알루미늄 그릴과 층간 수평 띠가 살아나도록 하였으며, 표면의 금속성 재질감은 알루미늄과 조화를 이루며 날씨에 따라, 혹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는 효과를 의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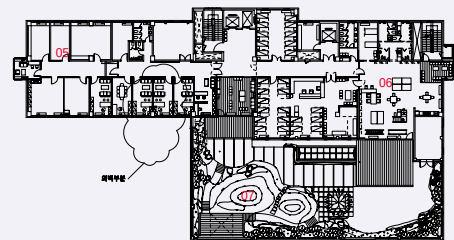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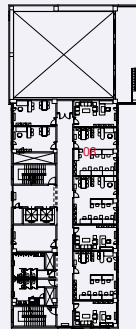
모든 건축물은 항상 설계자에 의해 완성될 수 없으며 이용자에 의해 천천히 완성되어 나간다.

병원 역시 환자에게 주는 따뜻한 느낌, 감동을 주는 친절함 그리고 공간을 채우는 다양한 휴머니티들은 병원 구성원과 환자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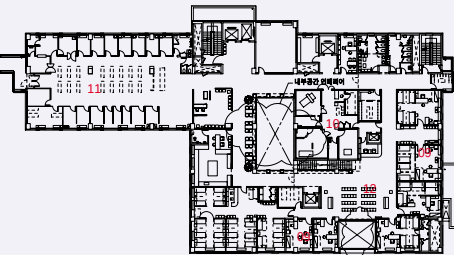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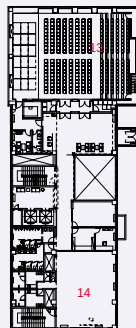
이 미완성의 여백들이 네 개념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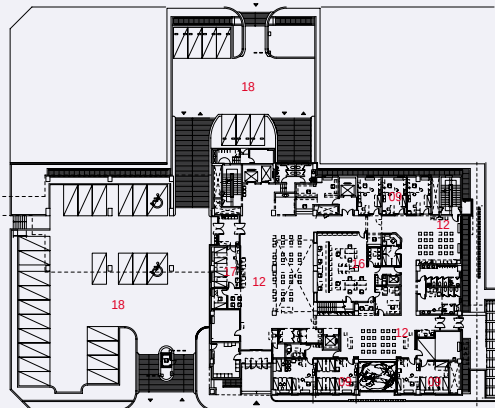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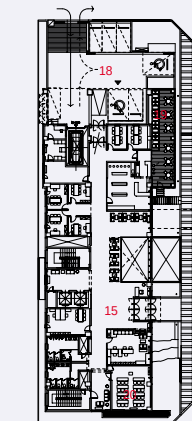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01. 입원실
- 02. 간호사실
- 03. 강의실
- 04. 교수실
- 05. 미술, 음악놀이 치료실
- 06. 물리 치료 센터
- 07. 육외휴게공간 (사랑채)
- 08. 행정 사무실
- 09. 외래진료실
- 10. 방사선과
- 11. 종합검진센터
- 12. 대기실
- 13. 대강당
- 14. 기수련실
- 15. 로비
- 16. 원무과
- 17. 응급실
- 18. 주차장
- 19. 카페
- 20.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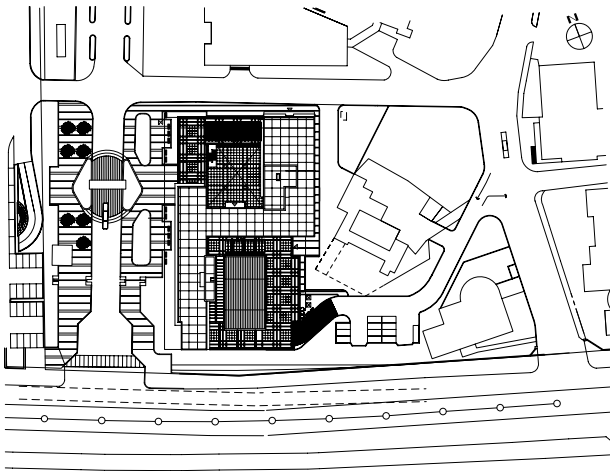
- 1. 1층 원무 대기홀
- 2. 1층 주출입구 전경
- 3. 웰리스아카데미아 대기실
- 4. 웰리스아카데미아 다목적 홀

박영건 · 심재호 + 최명철 · 심우근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 (주)단우건축사사무소
by Park Young-kern · Shim Jae-ho & Tchoe Myung-chul · Shim Woo-keun, KIRA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Industrial Cooperation Complex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내
지역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 · 중심지 미관지구
용 도 평생교육원, 외국어 교육원, 창업 보육센터 및 벤처, 특수대학원, 출판부 등
대지면적 455,749.10㎡
건축면적 3,246.06㎡
연 면 적 18,502.26㎡
주차대수 옥내주차 -98대
규 모 지하 1층, 지상 8층
구 조 RC(철근 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 화강석, 비닐타일, 벽/화강석, 아크릴, 수성페인트, 천장/석고보드, 석고보드천장재
외부마감 THK30화강석버너마감 · 물갈기, THK18컬러강화복층유리, THK0.7 티타늄아연판 거열접기
구조설계 (주)한울건축
전기설계 (주)나라기술단
시 공 사 대림산업(주)
공사기간 2003. 12. 3 ~ 2005. 2. 28
설계담당 조주현, 김선유, 박기선, 최홍연, 손기영, 유지아, 서제성, 김은호, 최현영, 윤재환, 오준수, 유철환
사 진 김원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Location Konkuk Univ, Hwayang-dong, Gwangjin-gu Seoul, Korea
Site area 455,749.10㎡
Bldg. area 3,246.06㎡
Gross floor area 18,502.26㎡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eight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R,C
Construction period 2003, 12, 3 ~ 2005, 2, 28
Photographer Kim Won-yang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사회와 교류하는 하나의 도시이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은 계획 초기부터 일반적 대학사회가 갖는 다양한 요구의 수용 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만이 갖는 특징적 요소를 찾아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기본 명제에 따라 세 가지 주요 중점 요소를 프로그램화 하였는데 그 요소들은 장소성, 조화, 기능성이다.

첫째로 장소성(sence of place)은, 계획 대지가 건국대학교의 주진입인 상허로와 상허문에 면해 있으므로 입지상 캠퍼스 외부와 내부의 결절점으로서의 장소적 맥락을 가지

고 있으며, 대학가로의 컨텍스트가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대학주진입공간(University Street)으로써의 상징성이 함께 나타나도록 계획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전체 매스를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원화 하여, 큰 매스에서 느껴질 수 있는 부담감을 감소 시켰고, 가로에 면한 저층부의 서측 파사드에 유리루버의 파노라마를 조성하여 산학협동관 주변을 통과하는 보행동선이 저층부 매스를 통해 건물로부터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주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만나도록 계획하였다.

둘째는,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 즉, 조화

(harmony)로써 현재 시공 중인 건국대병원과 인접한 축산대건물 그리고 상허문 전면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고가 구조물등과의 상호 관계성을 모색하여 산학협동관을 독립적이나 독선적이지 않은 건물로서 위치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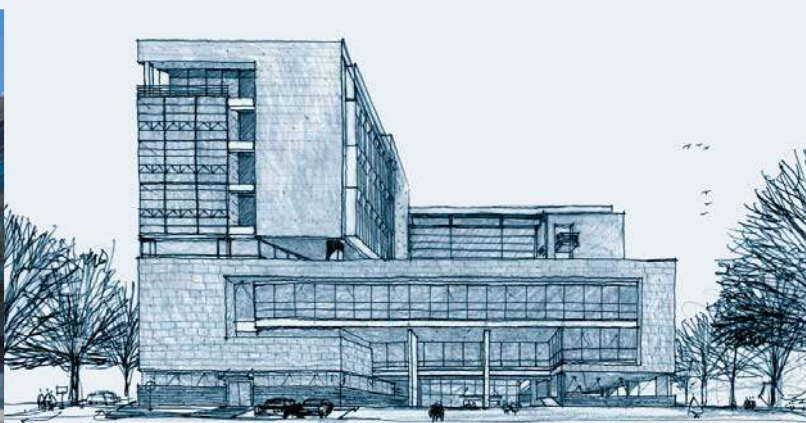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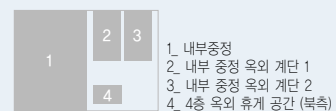
록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인접건물과의 재료적 특성에 대한 유사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매스의 형태상 배타보다는 포용의 형태를 찾아 저층부 매스에서는 필로티의 구성, 개방공간의 확대 등을 계획하였고, 상층부매스에서는 변화하는 선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본 산학협동관과 주변 건물과의 대치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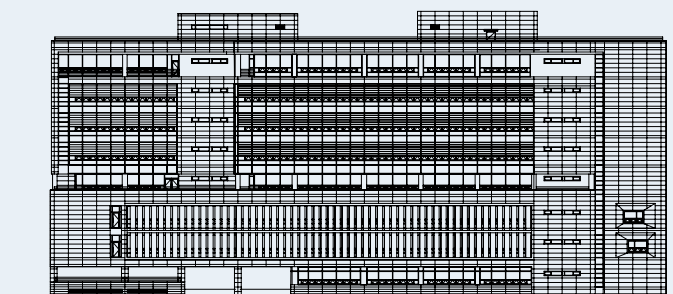
셋째는, 주어진 건축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성(function)으로 교육시설확충과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교육기능의 효과적인 수용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여 공용성이 높은 일반강의실 및 소강당은 저층부에 위치시켜 개방성과 이용성을 높였고, 독립성이

요구되는 특수대학원과 벤처시설은 상층부에 배치하여 층별, 위치별로 용도와 기능을 충족시키는 조닝을 하였으며, 이 두 가지 기능들은 4층 옥상 휴게공간을 매개로 공존하도록 계획하였다. 학교시설의 특성인 공공공간의 확장 필요에 따라 저층부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중정 즉, 외부로 열린 중정과 아트리움에 의해 지붕이 덮인 내부중정을 계획하여 공간의 확장성을 느끼도록 계획하였으며, 동시에 공간적 위계와 함께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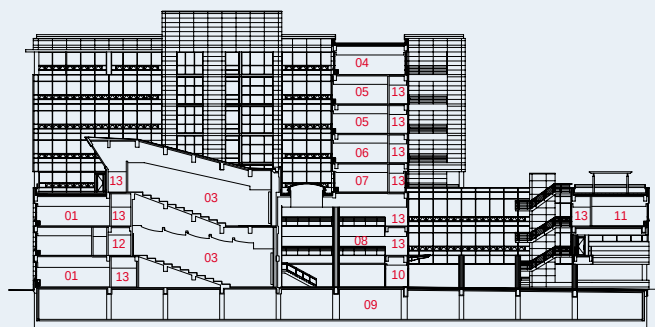
이러한 프로그램화된 요소들은 실제의 실시 설계 과정과 시공 과정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 구체화된 대학이라는 도시속의 확고한 요소로서 위치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주변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자체의 인지성만을 드러내기 보다는 캠퍼스내의 주변문맥에 순응함으로써 함께 도시적 요소로서 조화를 이루는 건물이 되도록 하였다. 향후 산학협동관이 건국대학교 내 새로운 교육시설의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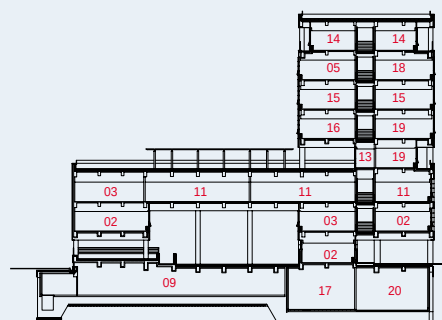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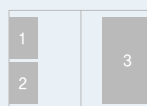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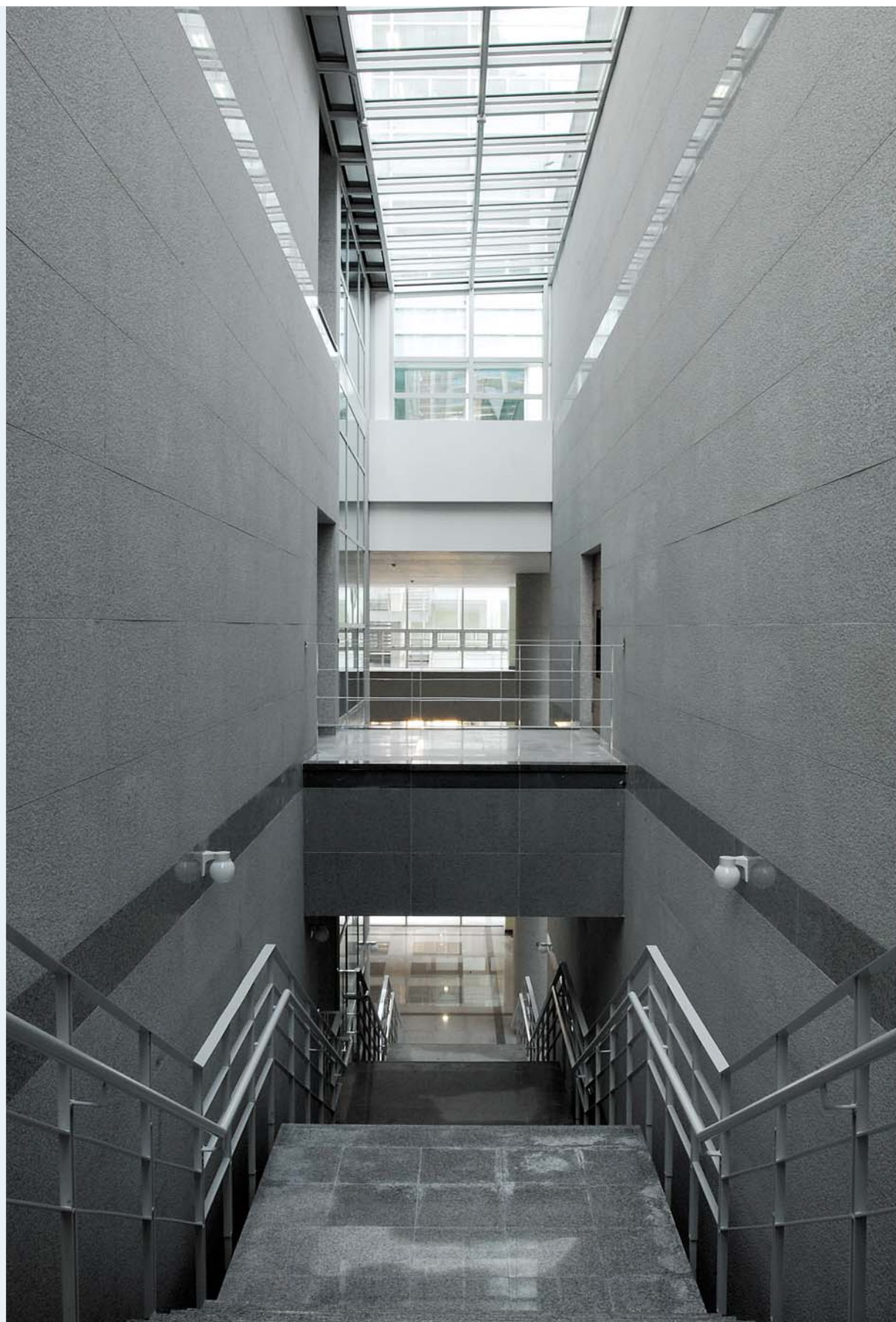
- 01. 대강의실
- 02. 중강의실
- 03. 소강의실
- 04. 실험실
- 05. 사무실
- 06. 원로회실
- 07. 교강사실
- 08. 아트라운
- 09. 주차장
- 10. 방품실
- 11. 전산실습실
- 12. 영사실
- 13. 복도
- 14. 회의실
- 15. 실습실
- 16. 교과과
- 17. 전기실
- 18. 청단번처보육강의실
- 19. 원장실
- 20.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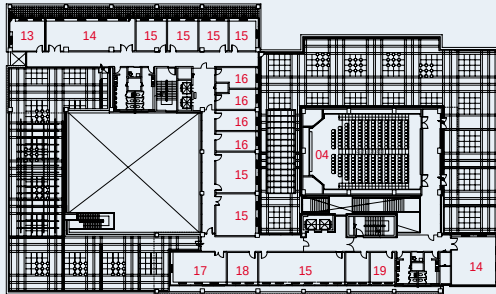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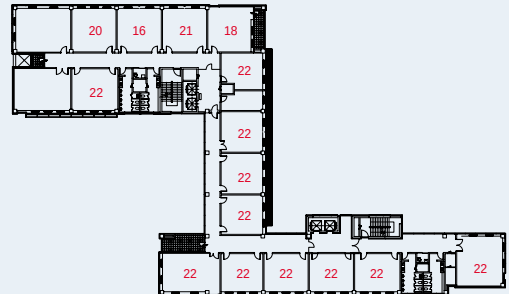


- 1. 4층 옥외 휴게 공간 (남측)
- 2. 실내 로비 천정
- 3. 내부 로비 주 연결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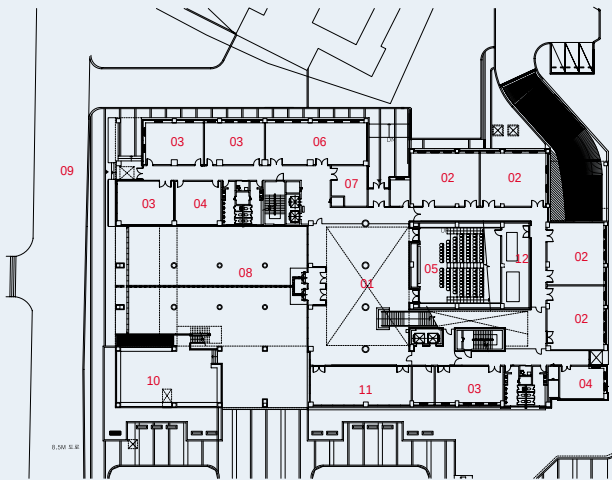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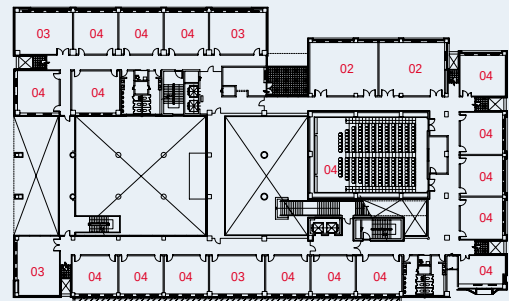
4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 | |
|------------|-----------|
| 01. 홀 | 12. 공조실 |
| 02. 대강의실 | 13. 원장실 |
| 03. 중강의실 | 14. 교학과 |
| 04. 소강의실 | 15. 교감사실 |
| 05. 소강당 | 16. 세미나실 |
| 06. 출판부 | 17. 음향도서실 |
| 07. 관리실 | 18. 원장실 |
| 08. 주출입구 | 19. 상담실 |
| 09. 부출입구 | 20. 원우회실 |
| 10. 옥외휴게공간 | 21. 행정실 |
| 11. 중전산실 | 22. 사무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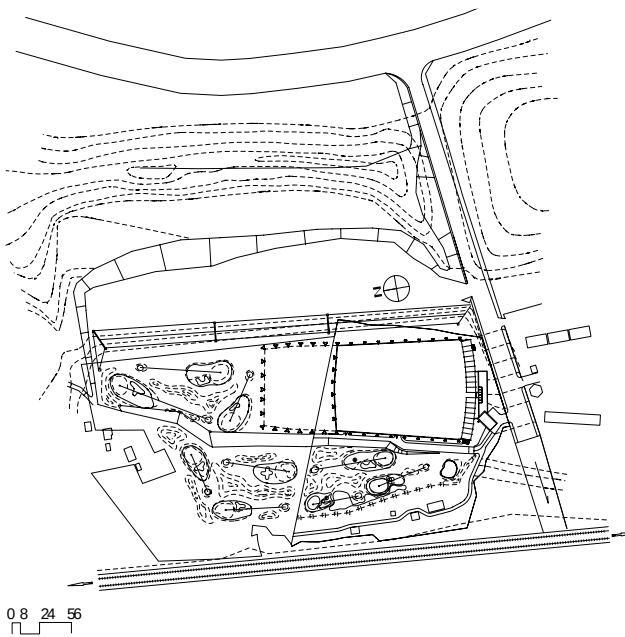
1. 대강당 전경

대전 코바골프연습장

Korva Golf Club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11-14번지 일원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29,967.00㎡
건축면적	4,012.34㎡
연 면 적	4,542.42㎡
건 폐 율	13.39%
용 적 륜	15.00%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골조
내부마감	로비 : 화강석물갈기, 석고보드위 무늬목 / 페인트 타석 : 인조잔디 / 러버타일, ALC패널위 전용도료
외부마감	알미늄시트, 베이스패널, 고밀도목재패널, ALC패널, 노출철골위 우레탄페인트
구조설계	태신건축
전기설계	삼우전기 컨설턴트
기계설계	삼우설비 컨설턴트
인테리어	우림디자인
조 경	삼미조경
시 공 사	(주)현암건설 / 9017ENG
건 축 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설계기간	2004년
공사기간	2005년
설계담당	이규열, 이용민, 정석범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Location	Sindae-dong 411-4, Daedeok-gu Daejeon, Korea
Site area	29,967.00㎡
Bldg. area	4,012.34㎡
Gross floor area	4,542.42㎡
Bldg. coverage ratio	13.39%
Gross floor ratio	15.00%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three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Steel
Design period	2004
Construction period	2005





계획부지는 기존 산중턱 서측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조성하여 대전시내 생활쓰레기를 매립후 13년이 경과 된 곳으로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부지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매립장 부지의 골프연습장 신축 활용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매립장 안정화공사에 의해 침출수의 양이 급격히 줄었고 급속 분해물질의 경우 분해가 90%이상 진행되는 등 매립지의 지반 안정화가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상부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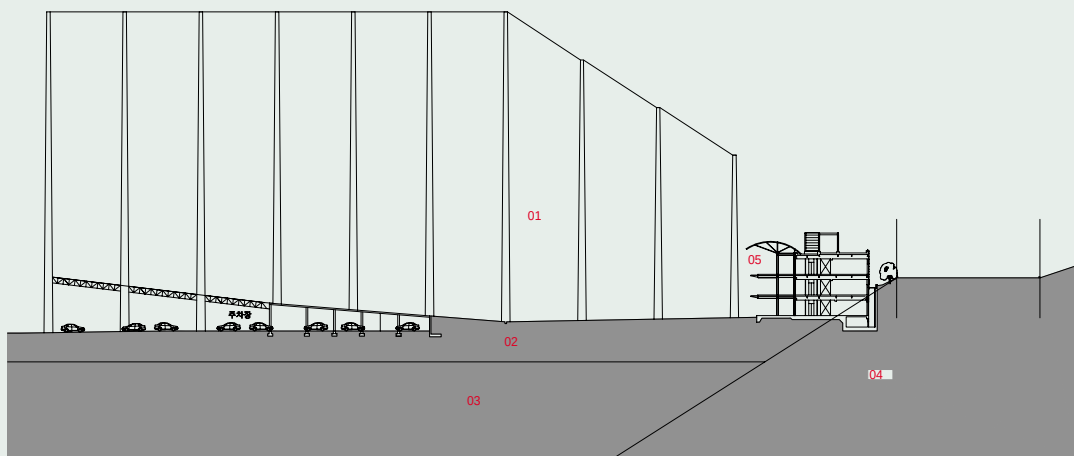
진단결과에 따라 매립층 상부에 직접 건물을 배치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골프연습장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지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남측 25m도로와 계획부지 사이의 경사면이 매립장 조성시 형성된 원지반임을 확인후 건물은 매립층 상부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타석과 클럽하우스를 도로에 인접하여 배치하였다.

클럽하우스의 도로 인접 배치로 주차장은 불가피하게 건물과 이격된 페어웨이 하부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으나 페어웨이 비거리 확보(115M)에는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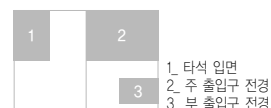
주차장과 연계된 1층에 주출입구를 형성하여 프론트, 프로

- 01_ 페어웨이
- 02_ 성토층
- 03_ 매립층
- 04_ 원지반
- 05_ 타석



0 2 6 14

부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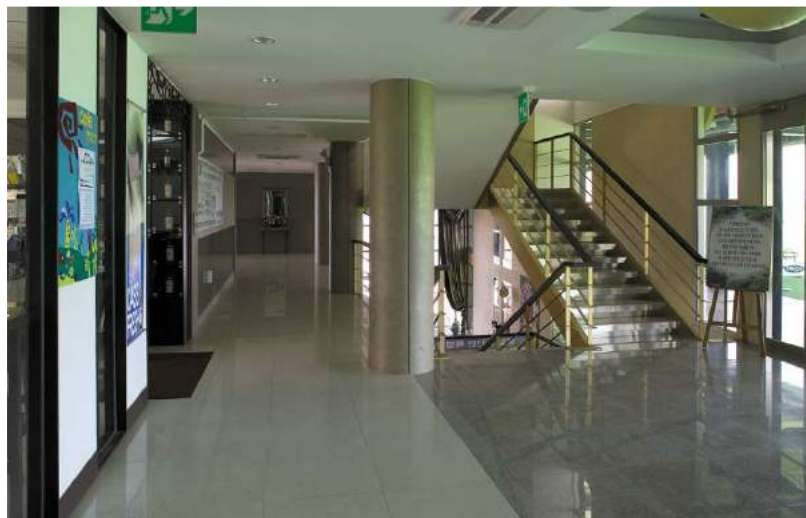


샵, 로비 등 고객을 맞이하는 부대시설로 구성 하였으며, 도로와 부지의 4m레벨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2층에 부출입구 및 서비스 출입구를 계획, 여성라운지 및 여성고객용 백보관실, 사우나, 스킨케어 및 헤어케어 시설 등을 연계구성하여 골프연습은 물론 헬스, 사우나, 음료 및 식사를 동시에 충족 할 수 있는 여성고객의 만남의 장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토록하여 주중 여성고객 확보를 통한 수익성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 부출입구 피로티 상부에 계획된 레스토랑은 부지 서측 철길 건너로 갑천과 대덕연구단지를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는 은 물론 낮에는 P&P코스에 조성된 잔디와 연못을 바라보고, 저녁에는 붉게 물들인 저녁노을을 감상하며 식사 할 수있도록 하였고, 3층의 부대시설로는 헬스장 및 스크린골프장을 구성하여 골프장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총 114타석(38타석/3개층)을 갖춘 타석부분은 본 연습장의





핵심시설로 TEE-UP, 볼 수거, 세척, 이송의 모든 과정이 완전자동으로 이루어진 Full Auto-System 적용 고객의 편의 및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하였고, 고객이 기피하기 쉬운 3층타석의 지붕을 가볍고 경쾌한 막구조를 적용 타석부분의 조형미를 극대화함은 물론 타석의 개방감 확보로 3층타석 기피현상을 줄여 전타석이 고르게 이용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곡면의 타석부분과 장방형의 클럽하우스는 각각의 기능에따라 자연스럽게 형태가 결정되었고 별도의 단열이 필요 없는 타석부분의 외벽은 경제인 철골구조 노출 및 ALC패널로 처리하였고, 클럽하우스 부분은 베이스패널을 주재료로 하고 레스토랑 및 클럽하우스 일부 벽면에 고밀도 목재패널로 변화를 주었다.

타석과 클럽하우스의 연결부분은 타석과 부대시설 이용객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코어 구성 및 형태가 다른 두 시설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1층로비 상부를 Open하여 개방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옥외에 조성된 3층의 P&P코스는 필드에서의 실전에 대비한 어프로치 및 퍼팅연습장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개발이 제한된 부지와 함께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하여 전체부지가 야외 골프장의 느낌을 줄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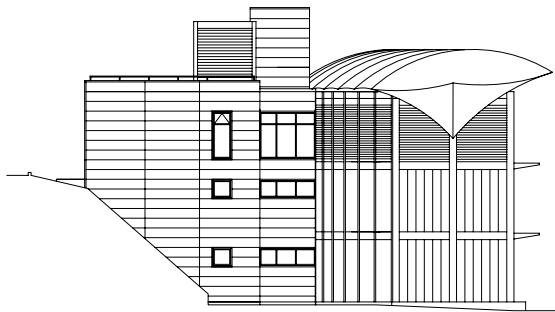
P&P코스의 Green잔디가 제모습을 갖추게 되는 6월이 오면 114타석의 연습장과 3층의 P&P코스 및 주변 조경이 함께 어우러져 실내연습, 실외연습, 사우나, 헬스, 레스토랑 등의 골프 관련 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명실

상부한 전문 골프연습센터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쓰레기 매립후 황량하게 버려졌던 이곳에 기초가 처지고 철골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느낄수 있었고, 푸르른 잔디밭 위로 하나 둘 골프채를 들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확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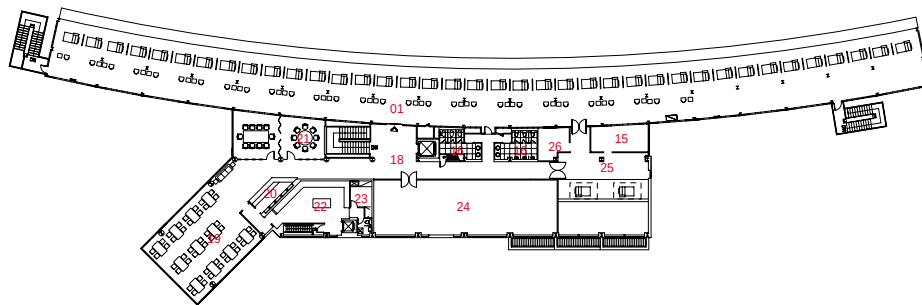
부지 한쪽 모퉁이의 소각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립가스 불꽃을 바라보며 계획당시 고려한 쓰레기 매립가스의 연습장시설 열원 재활용이 끝내 이루어지질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매립장 부지의 적극적 활용방법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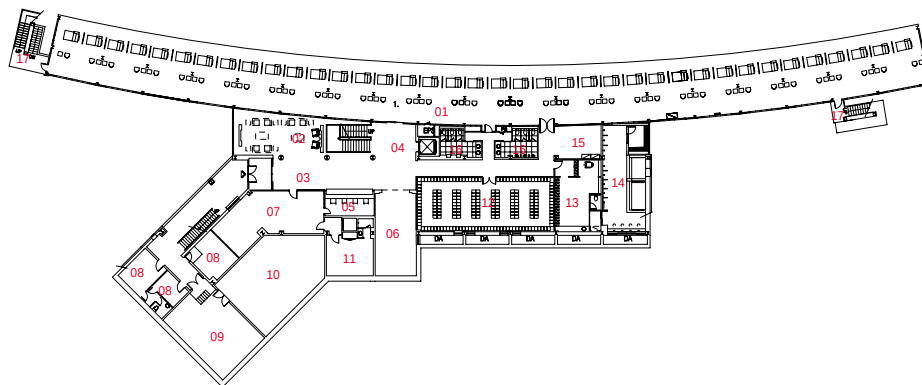
0 1 3 7

동측입면도



3층 평면도

- 01_ 타석
- 02_ 라운지
- 03_ 로비
- 04_ 엘리베이터홀
- 05_ 프런트
- 06_ 골프샵
- 07_ 사무실
- 08_ 숙소
- 09_ 전기실
- 10_ 기계실
- 11_ 숙직실
- 12_ 백보관실(남)
- 13_ 탈의실(남)
- 14_ 사우나(남)
- 15_ 휴게실
- 16_ 화장실
- 17_ 계단실
- 18_ 홀
- 19_ 레스토랑
- 20_ 룸
- 21_ 팬트리
- 22_ 주방
- 23_ 주방휴게실
- 24_ 헬스장
- 25_ 스크린 골프장
- 26_ 프로샵



0 1 3 7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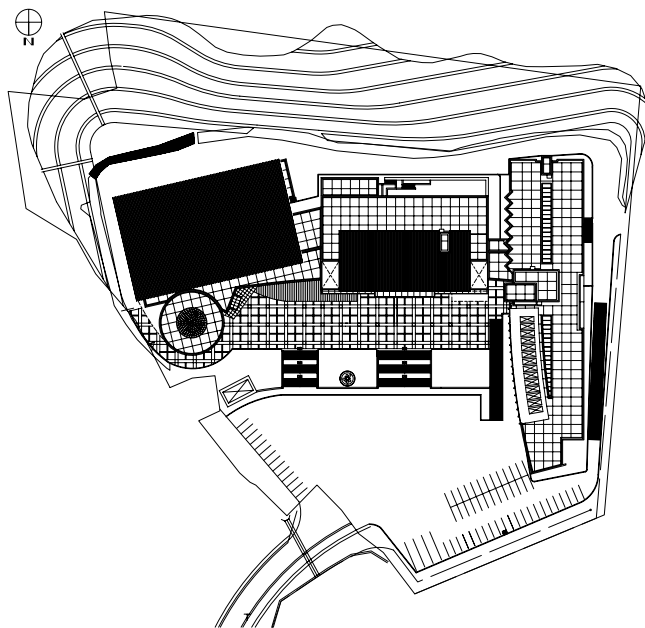
- | | | |
|---|---|---|
| 1 | 2 | 4 |
| | 3 | 5 |
- 1_ 로비라운지
 - 2_ 레스토랑
 - 3_ 2층 홀
 - 4_ 2층 복도
 - 5_ 타석 전경

청심 청소년 수련원

CheongShim Youth Training Center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 141-2번지 외 4필지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 수련시설)
대지면적	26,192.00㎡
건축면적	6,722.47㎡
연면적	19,913.58㎡
건폐율	25.67%
용적률	66.43%
규모	본관동 : 지하 1층, 지상 4층 숙소 및 가족동 : 지하 1층, 지상 4층 다목적홀 :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옥외 72대(장애인용 2대, 대형 3대 포함) 법정 : 66대(기타 건축물 : 300㎡당 1대)
외부 마감	외벽 : 화강석 버너구이, 물갈기(포천석, 문경석), 지붕 : 아연도 강판, 유리 : THK24컬러로이 복층유리, THK24컬러복층유리

이 계획은 주변에 여러 기능으로 건립되어진 Project와 연계되어진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로서 청정지역인 청평호의 대자연과 호흡하면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정신적, 신체적 단련을 위한 종합시설이다.

배치 계획

청평호의 주변이 대부분 급경사이며, 이 부지 또한 북향을 바라보는 급한 경사지의 대지 조건이다. 좌우측이 수평으로 열려 있

고 다행이 전면은 수변의 낮은 봉우리들이 겹치면서 고요히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다.

배치계획은 역시 급경사의 Level차를 이용한 계획이 될 수 밖에 없고 부분적으로는 덱크의 도입까지 되어야 부지단면의 해결이 되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수평으로 이어지는 부지형태를 따라 중앙에 강의기능을 갖는 본관동을 중심으로 좌, 우 양쪽에 체육관 및 숙박시설을 배치하여 부지형태에 순응함과 각 기능의 동선

및 용도의 구획상 3개의 동으로 구분하여 가장 단순하고, 각기능의 구분이 명쾌하면서도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배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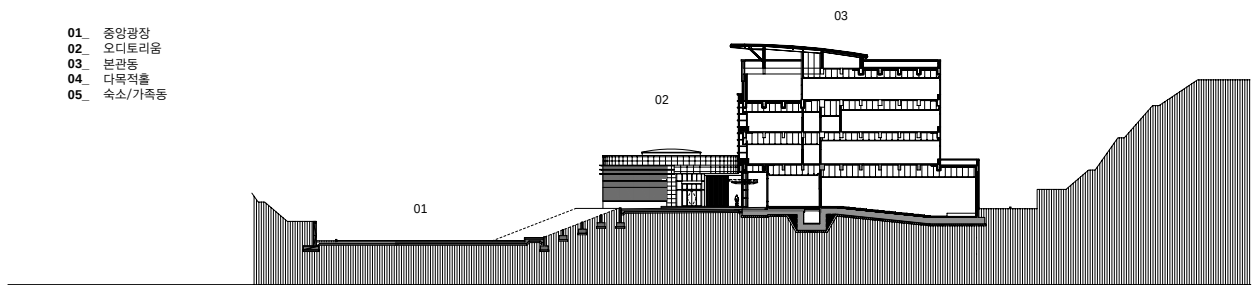
운동장은 부지의 한계상 추후 인근 체육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체 마스터플랜이 계획되어있다

평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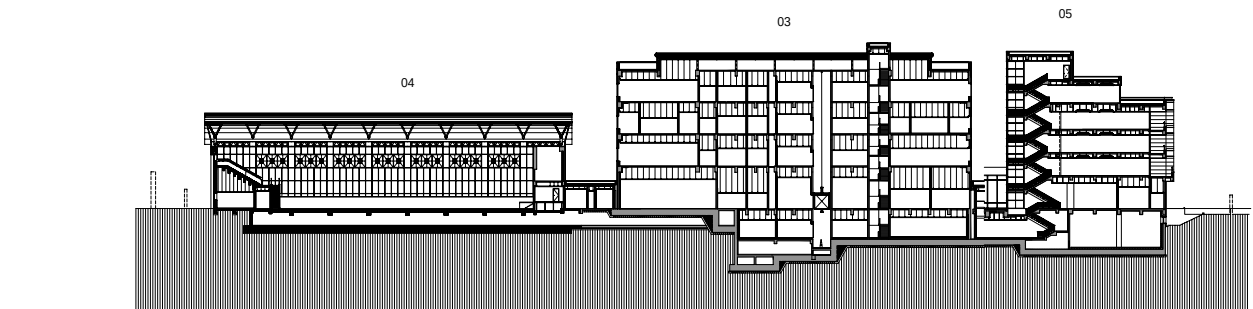
각기능의 수평적, 수직적 분리와 통합을 통해 계속 발전되어지는 변화에 대응하도록 모듈화된 가변성과 융통성있는 공간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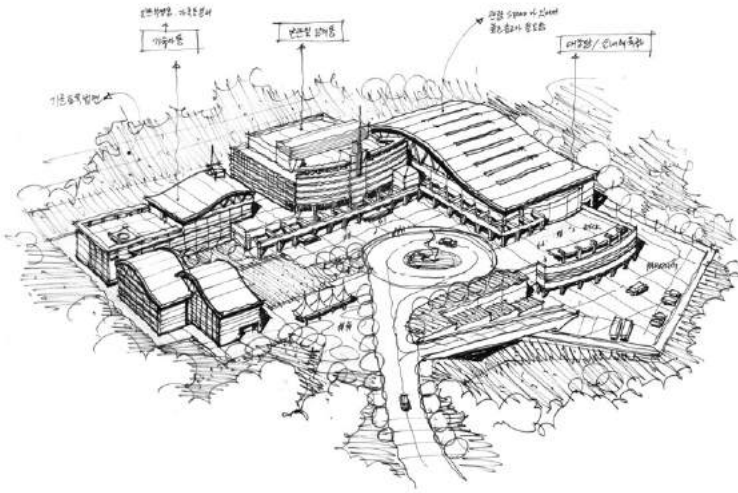
- 01. 중앙광장
- 02. 오디오리움
- 03. 본관동
- 04. 다목적홀
- 05. 숙소/가족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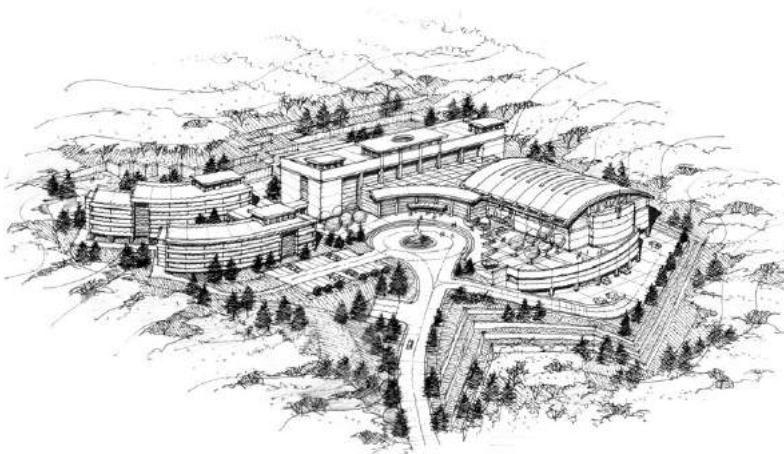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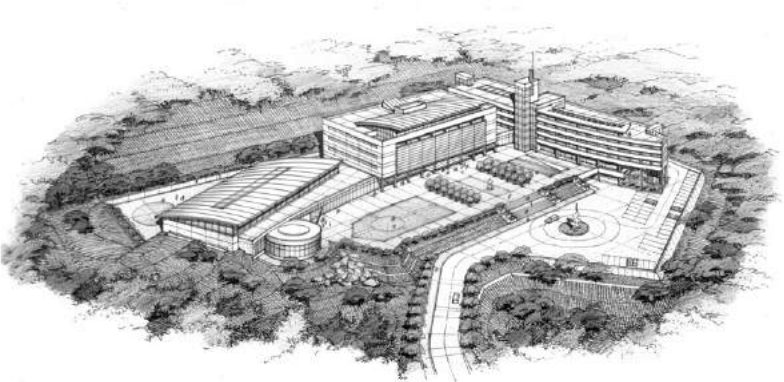
횡단면도



초기 Concept



계획 변경안



최종 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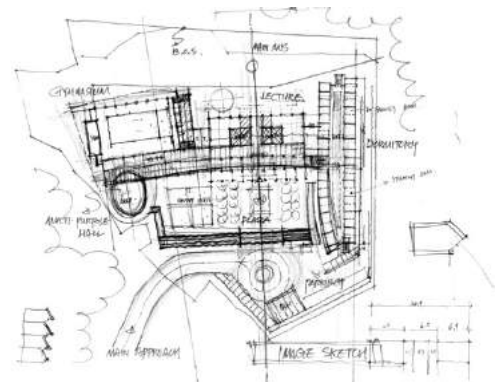
하였다. 질 높은 내부 환경을 위해 자연 채광과 자연환기를 우선으로 하였고, Core 배치 또한 교육시설로서의 효율 및 편의성을 고려하였으며, 채광 및 전망을 위주한 평면을 제공한다.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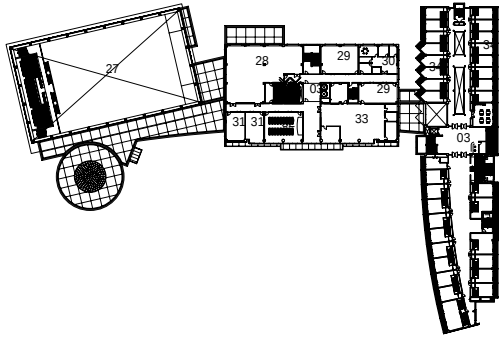
입면은 주변환경과 친환경적인 욕구를 충족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현대적 감각을 도입하여 청소년들의 활발한 역동성을 강조한 입면의 다양함과 친화감, 투명성을 강조한 Open된 공간으로서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또 외부재료 또한 유리를 많이 도입하여 자연으로부터의 통과 및 투과를 하도록 하였다.

단면 계획

부지의 급경사를 이용한 단계적 기능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최적배분하며 이용의 편의와 함께 수직 기능적 단면 계획을 하였다. 또한 주진입에서부터 각 동별 내부까지 시각적, 공간적 흐름을 유도하며, 단면 상 쉼터 또는 Dry Area 등 Open공간 및 창을 통한 채광, 환기, 전망을 위주로 교육 시설로서의 쾌적한 실내환경 및 단면계획을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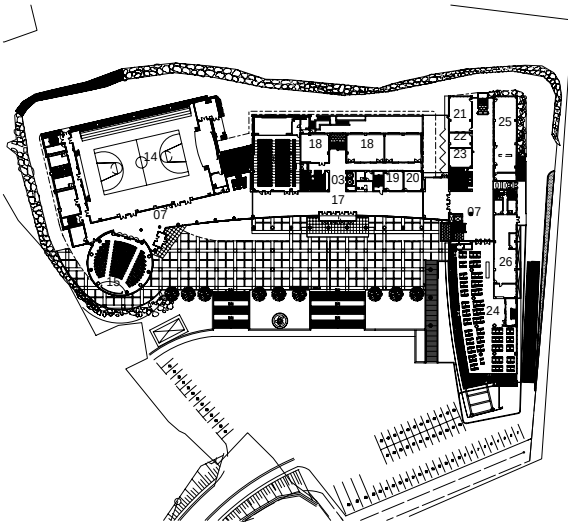


평면계획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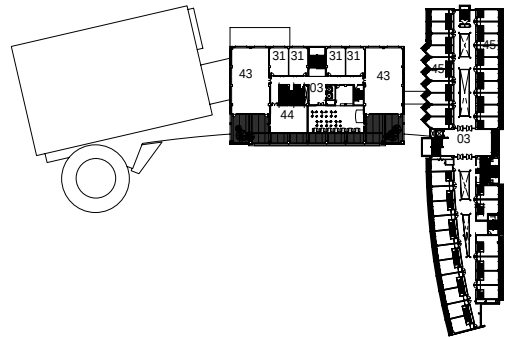


- | | |
|--------------|--------------|
| 01_ 다목적실(운동) | 26_ 주방 |
| 02_ 관리실 | 27_ 체육관상부 |
| 03_ ELEV 홀 | 28_ 성교육전시실 |
| 04_ 당구장 | 29_ 자료보관실 |
| 05_ 합합댄스실 | 30_ 상담실 |
| 06_ 전통악기실 | 31_ 세미나실 |
| 07_ 홀 | 32_ 강의실 |
| 08_ 세탁실 | 33_ 사무실 |
| 09_ 저수조 | 34_ 가족실 |
| 10_ 기계실 | 35_ 중강의실 |
| 11_ 전기실 | 36_ 의상전시실 |
| 12_ 발전기실 | 37_ 전통예절실 |
| 13_ 주차장 | 38_ 미디어프로그램실 |
| 14_ 실내체육관 | 39_ 인터넷교육실 |
| 15_ 아트라운지 | 40_ 공예체험실 |
| 16_ 대강당 | 41_ 관혼상제실 |
| 17_ 로비 | 42_ 지도자실 |
| 18_ 환경실 | 43_ 대형교육장 |
| 19_ 홍보실 | 44_ VIP교육장 |
| 20_ 준비실 | 45_ 부부실 |
| 21_ 놀이방 | |
| 22_ 양호실 | |
| 23_ 예비실 | |
| 24_ 식당 | |
| 25_ 이벤트마당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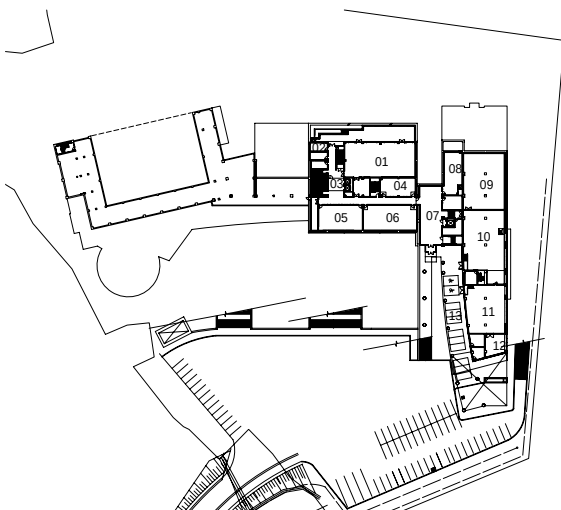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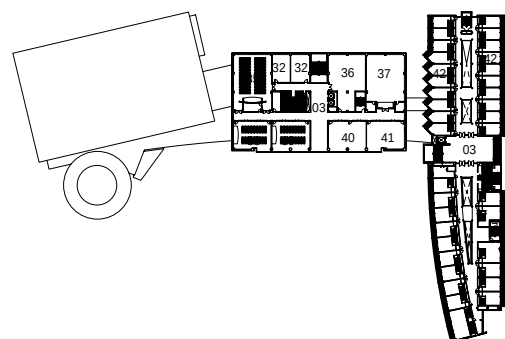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중국 여강시 강동 옥룡 호텔

Li Jiang City - Yu Long 5star Hotel

프로젝트와의 만남

여강시는 중국의 서쪽에 위치한 운남성에 속한 도시이며 800년전에 만들어진 구도심(여강 고성)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진 역사 도시이다. 여강시의 문화유산은 동바문화라고 불리우며 여강 고성과 상형문자(동바), 동바음악, 동바춤 등의 다양한 문화가 중국의 소수민족인 나시족에 의해 그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여강시는 옥룡실산과 맑은 공기, 도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수로체계 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운남성은 여강 고성의 관광 인프라를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신도시를 계획하였으며, 그 계획의 일환인 강동 옥룡호텔계획은 국제현상설계를 실시하였고, 지금 소개하는 계획안은 그 국제현상설계에 당선된 계획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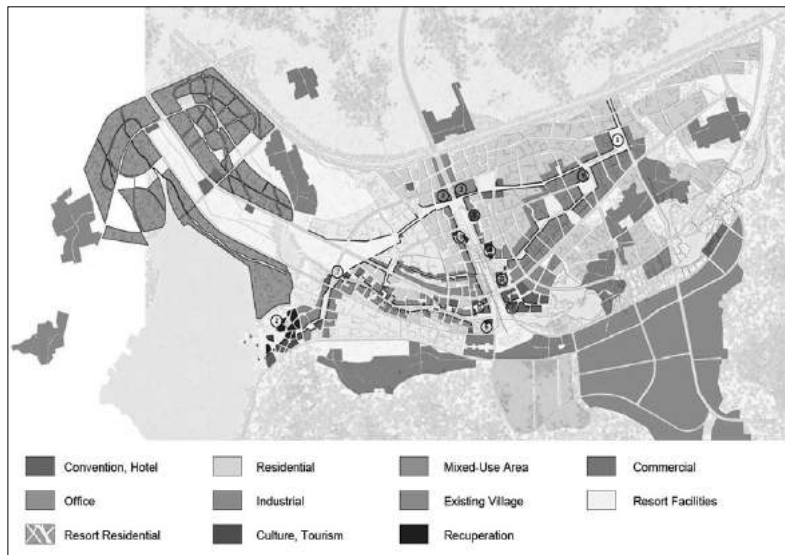
디자인 배경

전제된 도시계획은 크게 1축(軸)과 1대(帶)로 나뉘어지며 1축은 북경설계원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대는 독일 SBA의 도시설계팀과 범건축이 맡아 설계하였다. 1축과 1대의 상호조정에는 중국 운남성 설계원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강동 옥룡호텔은 대의 우측 지역에 5성급 호텔을 비롯한 컨벤션 센터 및 건축주의 자사 오피스, 콘도미니엄을 형성하는 계획안이다.



여강 시가지



도시계획-토지 이용계획

디자인 개념으로는 'A Small City in the City' 로써, 이 지역의 규모가 다른 토지구획 단위에 비해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설정한 주거구역의 성격에 옥룡 신도시의 소도시적 배치개념을 덧씌워 계획하였다. 여강고성의 '사방가(四方街)'와 같은 공공 공간 배치 개념 및 저층 고밀도, 다양한 시퀀스, 불규칙 가로 공간, 옥룡설산을 배경으로 삼는 건축, 여강고성 건축언어의 모던한 재해석, 물과 녹지로 이루어진 공간구조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전체 건축 계획

용도계획, 축에 가까운 건물의 경우 호텔, 컨벤션센터, 오피스와 같은 특정 기능의 목적을 위한 건물이 배치되었으며, 동쪽에 위치한 콘도미니엄은 잘게 분산되어 앞으로 배

치되어질 주거 건축과의 스케일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전망과 기능에 따른 건물용도 분산과 특정 목적과 주거목적의 기능별로 분산 배치했다.

오픈 스페이스 계획

- 위계에 따른 오픈 스페이스의 계획

Main Public Space : 보행자 중심, 사방가

Public 2 Space : 주민입 공간, 보차 혼용

Courtyard : 호텔 및 콘도미니엄 등의 각 개별 건물들의 성격에 맞는 내부 중정

Green Area : 자연적 성격의 녹지 공간

- 성격에 따른 지형의 변화

서측 부지 : 도시적인 성격의 Urban Promen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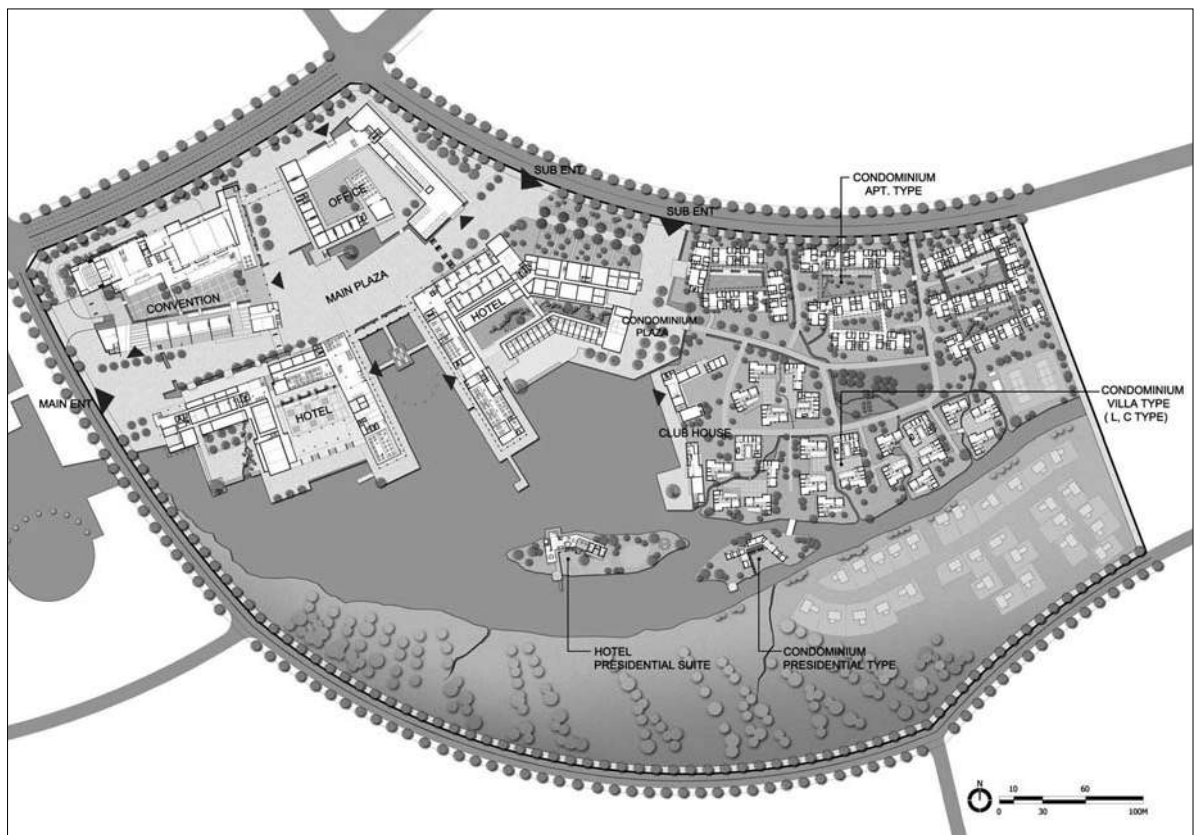


용도계획



오픈스페이스 계획

동측 부지 : 자연적인 성격의 Green Park



배치도



교통 및 주차계획



건축 높이 계획

- 강에 가까워질수록 레벨이 낮아지는 계획: 시선의 트임 및 접근성 강조

교통 및 주차계획

- 중심광장의 좌우측 진입 방법으로 보행공간의 최대 확보
- 반 지하 주차 및 지하주차의 활용
- 콘도미니엄의 컬데삭(Cul-de-Sac) :

Cart 사용

건축 높이 계획

- 가로 위계를 따르는 건축계획
- 중심 수변공간에 특징을 부여하는 층고 계획
- 도로의 속도 및 크기에 대응하는 층고 계획
- 축 근처(4~5층), 녹지 내 및 강 주변 (1~2층)

수공간 계획

- 도시적 성격의 운하와 자연적 성격의 수변공간의 조화
- 수정원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성화된 수광장 계획

현상 설계후의 조정

현상설계 후 수변공간의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계획하기로 하였다. 또한 객실의 증가가 요구되어 중앙 객실동이 1층 증가 되었으며 강남측에 고급 빌라 단지의 배치가 요구되어서 그 계획이 초기 계획안의 녹지 속에 빌라가 관입되는 저밀도의 계획안이 정

리되어 가고 있다. 기존 여강 고성인 건축문화가 시간이 지난 현재의 삶 속에 융해되어 자연스런 모습으로 나타나길 고대한다.

에피소드

돌아보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아주 우연한 곳에서 시작되었고 할 수 있다.

2003년 11월 한·중·일 건축사대회 시 중국 곤명을 방문했고, 운남성 설계원 쉬평씨의 여강시 나시족 문화 발표에 대한 관심으로 이 문화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2004년 2월 여강을 다시 방문했다.

소수민족인 나시족의 전통생활방식이 현존하는 건축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신비로웠다. 건축, 도시설계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범이 될만한 교과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 공간사용의 지혜로서는 휴먼 스케일과 그 생활양식이 800년 동안 보존되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마감의 텍스처(돌, 흙, 물, 공간의 구성방식, 다리 등의 디자인 요소)가 그 당시의 내용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이 흥미로웠



다. 일부 한국의 오래된 가옥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으나 도시적인 스케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후 쉬핑씨의 소개로 국제 현상설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그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역사적인 도시의 재창조란 과

제는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도 커다란 화두이다.

얼마전 중국 현지 출장시 중국 중앙 TV(CCTV)에서 여강시의 개발사례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한다고 하여 기자와의 대담을 가졌다. 프로젝트를 다시한번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프로젝트가 어렵고도 즐거운 일 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다. 圖



건축개요

대지위치	중국 운남성 여강시 신도시 개발지구
대지면적	131,400㎡
건축면적	34,800㎡
연 면 적	115,300㎡
건 폐 율	26%
용 적 륜	88%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화강석, 회벽, 목재 패널
설 계 담 당	신용성, 박상호, 박유준, 김상현, 김호영, 신상준, 김병우, 김은호
C G	박재현, 김원양, 강성일



이 종 엽
건축사사무소 우일
by Lee Jong-yeop, KIRA

설계, 감리 및 검사업무의 제도개선방향 - 소규모건축물을 중심으로

Direction of Systematic Reform ation
in Architectural Design, Management
and Examination
- Focusing on Small-scale Buildings

※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도상 불합리하며 모순과 부당성을 제기, 정부와 각 기관단체로부터 제도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미나에서는 건축의 본질을 왜곡해석하며 원칙과 정의를 편리한데로 해석, 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이 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릇된 인식을 합리화하려는 조짐에 대해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제도와 비합리적이며 원칙과 근원을 파악하지 못한 제도는 건축발전에 장애가 되며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미정립한 제도가 있지만 계속하여 추진하였던 공사감리와 검사제도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규제합리화의 개선방향안은 폐기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2월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소규모 건축의 민원해소방안' 중에 건축검사원제도의 도입방안은 허가권자인 행정기관의 감독체제기능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을 보아 당초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합리화의 개선방향과 일맥상통하지만 대안으로 검사대행자에 대해 제시한 것은 없다.

제도의 불합리, 모순, 부당성을 제기한 국회의원 입안으로 인한 2004. 5. 10 건설교통부의 개정방향을 위해 '설계, 감리 진흥 및 육성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토론에서 공사감리와 검사의 정의내용은 석연치 않으며 공사감리와 검사는 현행 건축법에 의해 건축사의 업무로서 공사감리와 대행업무를 일관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뜻이다. 이 정의에서 공사감리와 검사의 본질 그리고 대행업무를 왜곡해석하여 건축주와 사용자의 편익을 외면하는 행정편의에서 정의한데 대하여 더욱 혼란을 가중시킬 뿐아니라 건축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이 정의안을 받아드릴 가치가 없다.

정부 또는 각 기관에서 제시한 제도개선안이 유보 또는 폐기하였더라도 이 제도안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으며 이 제도로 인해 협회차원에서 설계감리제도를 논의(건축사회지 0401)한 개선방향과 대한건축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건축설계·감리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의 설계와 감리 제도의 개선점을 참고하여 그 업무의 본질과 원칙을 논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와 각 기관단체의 제도안이 유보 또는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기타 연구기관에서 유보(폐기)된 제도안을 인용,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안을 이대로 덮어 둘 수 없으며 우리 업무의 정의와 원칙을 파악, 잘못된 인식과 제도의 모순된 핵심을 찾아 이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되었던 개정(안)

-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하도록 함.

제도안의 검토

이 개정안은 건축사법 제2조 제1호 정의와 상반한다. 건축사와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데 대하여 이 제도안은 건축사 자격자의 업무를 강제하여 제한한데 있으며 건축사법에서 국회의원 입안과 같이 정의한 바 없다.

건축사의 업무에 있어서 설계에서 감리까지 동일인이 연속하여 일관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를 분리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한 바도 없다. 다만 건축주와 건축사 간에 자유계약의 원칙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이제도안은 부당하다.

이 제도안에 대해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공사감리란 자기책임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¹⁾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시공자가 건축법을 지켜 공사를 위반하지 않고 부실한 공사를 막기위해 공사감리자의 지도하에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으며 감리자의 책임하에 양호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주로부터 위탁

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건축주의 이해(利害)를 대행하기 위해 시공자에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공사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의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라는 완성된 설계도서의 전제하에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건축사법의 정의와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 ①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기기 등의 성능·품질의 검사·승인
- ②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이 되는지의 확인과 이에 의해 공사를 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보고
- ③ 시공자가 행하는 검사·시험·공사보고 및 기록에 의한 시공의 확인
- ④ 현장 순회, 시공의 입회·지시·공정 승인
- ⑤ 건축주에 각종보고(기성고 등 완성검사) 등과 계약상 건축주의 이해의 대행

계약상 건축주의 이해의 대행

- ① 설계도서를 시공자에게 정확하게 전달
- ② 전달한 내용에 대해 시공자에게 대응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시공계획서·시공도·견본)
- ③ 공사에 대한 확인업무로서 전술한 각각의 업무에 대해 주로 법적, 공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객관적, 수치적으로 전달가능, 판단 및 확인 가능한 업무영역을 수행하는 전문기술인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공적업무의 성격과 타당성 검토

그러나 건축사법 제2조의 정의에서 설계와 공사감리업무 이외 공적인 행정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없다. 다만 건축사법 제19조 제2호의 업무내용과 건축법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도록 설계와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업무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이 규정의 성격과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책임한계가 모호하다. 이 규정에 의해 건축사 등록자가 대행하게 된 것은 허가권자의 인력부족과 업무수행기능이 미약한데 있지만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법과 기타관계법에 의거, 허가한 사항대로 시공하는지를 현장에 나가 조사(감사에 해당)하고 시공자의 공사에 대해 검사 및 설계도서와 합치하여 시공하는지의 확인하는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데 있다.

특히 공사감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은 일관된 업무이지만 그 업

주) 1) 공사관리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이므로 용어를 정리해야 함.

무를 수행하는 것은 건축물은 개인의 재산일 뿐 아니라 국가의 재산이며 국민의 안녕과 건축물의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건축법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책임이 크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대해 객관적인 검사(공적업무)가 중요하다. 그 검사를 설계와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공적인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다. 그러므로 공사감리가 공적인 검사업무라 할 수 없으며 이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건축사를 공무원 의제로 규정, 허가권자의 감독하에 지시·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시공자의 위법·과실에 대해 감시업무까지 대행자의 책임으로 확대, 처벌의 강화는 건축주와 시공자의 처벌보다 건축사인 대행자의 처벌이 용이하도록 제도화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공무원(정부)의 편의에 의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법의 시행령에서 사용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는 건축물의 완성 후에 당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 제도의 개선으로 공적업무를 합리화하는데 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설계를 하고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대행시켜 보고 하도록 하며 건축사에게 사용승인 검사를 위임, 공사과정의 단계별로 검사한 조서 없이 공사완료 후에 사용승인 및 검사, 조서만으로 가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극적인 검사로 공사결과에 대한 조사는 감사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인 검사라 할 수 없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공적업무이며 이 업무는 행정편의에 의한 제도이므로 허가권자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허가권자는 이제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제를 확보하여 검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사감리자의 입장에서 당해 공사에 대해 검사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허가권자는 허가한대로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사 하기위해 공사초기부터 공사과정의 단계별로 적법하며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공적업무로서 허가권자의 책임하에 조사·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2004. 5. 6 건설교통부의 지원하에 한국건설교통평가원에서 홍익대학교에 의뢰한 '설계·감리, 기술진흥 및 육성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감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시공검사는 시공결과에 의거 확인하는 것을 검사라고 정의한데 대해 이 규정안은 소극적인 검사모델이다.

공사결과에 의한 검사는 건축주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결과와 검사는 공사결과에 대한 감사로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사단계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시공결과에서 건축법에 위반과 부실의 시정, 재시공이 용이할까 생각하며 감

리와 감사에 있어서 사용자의 불만과 이에 따른 파생되는 제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말이다. 이 제도에 대해 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 건축은 단순시공이므로 공사진행이 빨라 이에 따라 적기에 공사감리와 검사가 병행하여야 검사의 성과를 올리게 되며 공사를 신뢰할 수 있다. 홍익대학교에서 연구한 검사제도안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와 달리 건축사본연의 업무를 격하시켜 공사결과에 의한 부실과 질적여하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또한 사용자를 위한 편의제공을 외면하는 이 규정이 정당한지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도안은 건축전문인으로서 받아드릴 가치가 없으며 건교부도 이 제도에 대해 연구기관의 규정안을 팔짱만 끼고 관망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안을 검토하여 공사검사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와 건축물의 적법여부를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설계와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공적업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고 공사결과에 의한 사용검사조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허가한 사항을 스스로가 검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업을 하는 감리자에 공적업무를 위임한 것은 허가권자의 기술인력의 부족과 검사가능, 체제가 미약한데 있지만 사용감사에 있어서 공무원의 보조리가 있다하여 사용검사를 위한 검사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한 것은 잘못된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축사 업무중 70~80%는 소규모 건축으로 특히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대부분은 기술관리는 수준이하이며 이들은 설계도서의 이해가 극히 부족하여 공사감리자의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 더구나 이들은 설계의 구체화와 감리자의 지도, 감독을 기피할 뿐 아니라 시공자의 상업화를 위해 위법이 자주 발생하며 공사감리자의 업무수행과 시공을 위한 도서작성이 빈약하여 공사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들은 상업화를 위해 구체화하며 명확한 설계도서를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공사감리자에게 지도, 감독, 지시의 관여를 기피하며 시공자의 의도대로 시공하길 바라고 있다. 또한 시공자의 상업화와 이해(利害)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설계와 감리자를 교체하거나 업무수주의 거래를 단절하고 만다. 이로 인하여 업무수주에 차질이 생기며 설계수주의 불균형으로 건축계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하고 있다.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도서가 빈약하며 부실한 요인은 업무수주를 위한 상업화에 있지만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서의 간소화를 요구, 허가권자는 설계도서가 완성되었는지의 검사를 노타치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건축허가 후에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면(건축관계가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포함)을 첨부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대체로 건축주는 허가를 받으면 바로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설계도서의 보안등 착공시에 필요한 도서를 첨부하므로써 허가도서의 수정, 보안, 추가로 인해 시공자의 도서전달에 대해 시공자의 이해관계로 공사에 대해 분쟁이 생기고 허가도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이르게 되므로 건축주의 피해가 커진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위해 제도적으로 공사를 위해 완성된 설계도서로 허가를 받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발상은 업무간소화에 있다하여 업무간소를 과대확대한데 있다. 건축법 제9조의 2 제2항은 건축주와 시공사, 건축주와 감리자간의 민법상의 계약이므로 당사자에게 일임하며, 허가권자는 당해공사가 적법성을 가름할 수 있는 설계도서의 작성을 요구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실제로 허가권자는 건축사가 완성된 설계도서를 검토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 제도는 건축허가에 있어서 완성된 설계도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허가권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며 이로 인해 국민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불편과 피해를 주는 제도이다. 이로 인한 설계도서의 불비로 인해 건축주의 피해로 소송에 이르게 하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허가는 완성된 설계도서의 제출과 검토가 필요하며 건축사들은 시공자의 상업화에서 탈피, 건축물의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설계가 되도록 그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이대로 시공자의 상업화에 편승하여 놀아난다면 바로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며 전문가로서 설 곳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건설산업규제방안에서 시공사(건설업체)가 건축설계업에 참여를 내 세우는 것도 전문성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시공자가 설계를 주도하에 감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무조정실의 건설산업규제화방안은 시공자가 설계자와 감리자를 고용, 설계와 공사감리, 시공을 일관하여 시공자의 뜻대로 상업화(기업화)하겠다는 착상이다.

이렇게 국무조정실 규제기획단의 추진안은 설계자의 독창성을 말살시키려는데 있으며 건축설계의 독립성을 무기력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시공자의 편익에 동조하는 이 제도안은 설계와 시공의 상호 견제 기능을 마비시켜 불법과 부실 및 건축물의 질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으며 이로인한 책임소재의 불명, 묵인내지 은폐할 소지가 있다. 또한 독립된 사무소의 자율적인 업무수주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등 건축계를 압박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여 대한건축학회, 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의 3단체에서 규제개혁기획단에 결의문을 건의하여 이 안이 철회되었지만 이 제도안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제도안이 재발한다면 다시 건축계 전반을 뒤 흔들며 혼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제도안의 재발에 대해 사회전반이 호응하지 않으며 저항이 생길 것이다. 이 제도안을 착상하여 건축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국무총리실규제기획단이 왜 이 제도안을 내세우는지 의아심이 생긴

다. 이제도가 어떠한 원리로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정당화 할 수 없다. 외국의 사례와 국제협약에도 없는 이 제도안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름지 못한 극히 편견적이며 독단적인 이 제안이 재발하므로 건축계를 자극하여 압박한다면 사회에 널리 알려 규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설계도서를 완성한 후 설계도서에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관계법을 개선, 건축허가에서부터 완성된 설계도서를 받아 허가권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하며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축설계를 하고 공사감리를 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사용자를 위해 설계완성에 주력하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감리와 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이 없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완성되지 않는 불비한 설계도서는 공사감리와 시공을 할 수 없으며 결코 공사가 부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책무를 다하여야 할 자격자인 전문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합리화의 개선방안

- 공사감리를 「건축주에 자문하는 Consulting」과 「공공의 확인업무」로 구분함.
- 건축주의 자문하는 컨설팅 : 설계의 연장이므로 건축사가 수행
- 공공의 확인업무(Inspection) : 해당 관청이 수행, 다만 “감찰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대행하도록 함.
- 감찰전문회사는 건축사를 비롯하여 기술사, 기사, 학경력자등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감찰전문회사”의 감찰비용은 건축주가 부담

개선안의 검토

이 개선안은 공사감리가 설계의 연장이라고 해석하고 자문하는 행위와 공공의 확인업무로 구분하여 연장업무는 건축사가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개선안은 관련업무의 본질을 모르고 잘 못 인식한데서 있으므로 이 개선안의 관련업무를 논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한다.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가 정착하기전에 감리는 시공단계가 아니면 결정되지 않는 공법, 건축부분 또는 세부를 충족시키면서 최종적으로 Design Space를 확정하는 것으로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추가공사를 처리하기 위해 설계도서의 해설, 지도, 자문하며 공사단계에서 시공자의 대체안을 검토, 조언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설계도서의 작성은 완전무결한 설계도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계도서의 정보만으로 전달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단계에서 설계도서를 수정하면서 공사현장을 확인하는 업무를 설계에 대한 감리(설계자 감리)라하는 용어를 써서 설계를 고쳐가면

서 수행하는 업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설계의 연장업무라 하며 공사가 설계도서의 수준이하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 업무를 소극적인 업무로 설계를 추구하는 업무라 할 수 있다.

이 업무는 시공계획서에 의해 대체 안, 미완성된 설계도의 협의, 절충·조정은 시공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시공자의 협력이 없다면 이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업무는 전술한 공사감리업무의 본질에 미치지 못하여 오래전에 바뀌어진 것이 공사감리다. 건축사법에서 정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세분화하여 설계도서의 전달, 시공계획, 공사의 확인 등을 기초로 하여 「설계도서 내용대로……」라는 설계도서의 완벽을 전제로 하지만 원전무결한 설계도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업무는 설계도서를 완벽할 정도로 완성하도록 하고 시공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단계에서 시공자의 대체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대체안을 확인하여 검토하기 위해 설계자가 현장에 나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계와 감리가 분리하여 대체 안의 대응에는 설계자를 배제하고 시공자와 공사감리자 간에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므로 시공자의 대체안 등의 채용은 어디까지나 설계자의 결정하에 행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감리자는 설계자의 분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설계에 대한 감리(설계자감리)는 어디까지나 설계자의 판단과 지시, 설계의 확정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사법에서 명문화 필요)

본 주제에 대해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자기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 자문하는 것이므로 공사감리에서 자문하는 것은 없다. 이 주제에서 전술한 공사감리의 본질은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한 확인과 계약상의 건축주의 이해(利害)를 대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는 검사와 일관된 업무(감리자로서의 검사)이지만 검사를 위한 확인업무는 공적 업무다. 그러므로 공사감리에 있어서 계약상 건축주의 이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건축주에 자문하여 공사가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리자가 감리를 하고 공사에 대한 검사를 구분하여 검사자가 검사한다는 것이 이것이 공적업무이며 공정성이 있다 할 것이다.

공공의 확인업무인 검사(Inspection)를 허가권자가 수행한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며 기능이 미약하여 현체제로서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으나 단기적으로는 시행이 불가하다. 다만 이에대한 대안은 공영(公營)화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공적인 검사업무를 공사감리자가 대행하였던 것을 공적업무를 분리하는데 있어서 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조건과 기용기준은 건축법을 전공 또는 잘 아는 공사감리자로서 검사업무를 해본 경험

이 있는 자로, 국가가 인증한 자격자라야 할 것이다.

건축전문인의 자격자의 인증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도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 자격분위제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종사자는 공인으로 인증한 자라야 한다. 전문성은 능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자로서 그 업무와 건축행위의 관계자들에 대해 대등한 조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뢰할 수 있다. 이 자격자는 공사감리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 필요한 자격자가 이에 해당된다.

자격자의 검사업무의 기용은 건축법규를 알고 설계와 시방서를 작성하여 그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자이므로 설계도서의 Reading이 빠르며 시공자의 공사에 대해 문제점을 찾아 내어 조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이다.

공적업무를 수행하자면 자격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설계와 공사감리를 업으로 하지 않는 전제조건에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이 있다.(예를 들면 司法제도와 비슷함)

이 주제에서 건축사나 기술사가 아닌 기사 또는 학경력자(무자격자)가 건축공사에 대해 조사·검사 전담기구에 업무수행을 위한 책임자로 기용,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며 공정성이 상실한 제도안이다.

무면허 학력자가 검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기준에 맞지 않으며 시공자와 대등 또는 이상의 기술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 책임자라 할 수 없다. 또한 전담기구의 관리, 경영상, 자격불균형으로 Team work와 그 기구의 조직이 와해, 공적업무의 검사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간호사나 조수가 진찰, 수술하며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이 제도안은 언어도단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검사제도는 해당분야의 자격자라야만 스태프가 된다. 건축사법에서도 공사감리 자격자는 자기책임하에 보조자의 조력을 받아 조력자를 감독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조자가 자격자를 대신하여 감리를 하도록 규정한 바 없다. 자격자가 공사감리를 하고 무면허 검사자가 검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자의 현황

검사업무를 위한 전문인력을 검토한다면 해당 법률에 의한 기술분야별 건축사, 각 기술사의 현황은 '그림 1-1'과 같으며 그 인력의 확보는 각 해당법률에 따라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이다.

특히 전문인력현황에 있어서 건축사의 인력은 시공기술사에 비해 약 2.5배(251.7%)에 이른다(2004년도 기준). 정부가 건축사의 인력을 확보하게 된 것은 고성장시기에 그 업무를 대응하기 위해 자격자를 확보하였으며 그 인력은 설계와 공사감리,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를 대응하기 위해 확보한 인력이다. '그림 1-1'의 기술인력현황을 검토하면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설시공사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이 소규모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공적업무를 위해 이동할 경우 각 관련법에 의한 전문인력의 과부족으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 자격자중 전국을 기준하여 약 32%~33% 정도²⁾(4,845~4,996명)의 인력을 공적업무에 투입 한다면이라도 인력수급과 건축사업무와 공적업무량에 대한 인력 밸런스에는 차질이 없다. 이들의 자격자는 검사업무의 스태프가 될 수 있으며, 학경력자는 조사·검사대행 전담기구의 보조사무에 기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공영화(公營化)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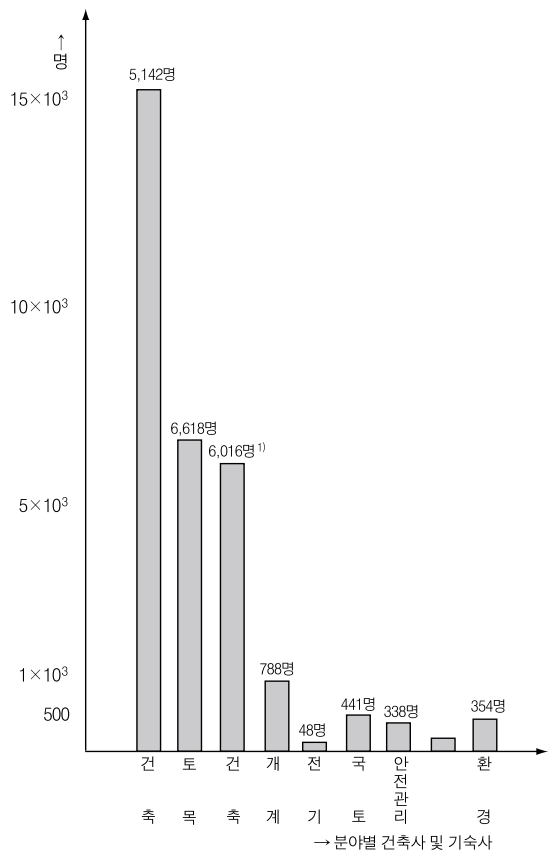
공영화한 조사·검사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공사감리와 검사업무의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대가 지불은 제3의 기관인 허가권자,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예치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영향이 없이 독립적 위치에서 검사업무와 공사감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가기준의 산출은 공사감리와 검사인력에 대한 각각 man power에 의한 산출을 기본으로 하여 직접비, 간접비의 산출이 가능하다. 이 기준의 산출은 시공자의 공사기간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대가지불은 공사감리와 검사업무의 대가를 구분하여 지불할 수 있다. man power를 기준한다면 현재의 공사감리비와 공적 업무를 포함한 man power에 의한 실비는 건축주의 부담이 약간 높게 산출되며 일괄한 대가기준은 거의 50% : 50%의 비율도 바람직하다.

소규모 건축공사는 대체적으로 시공이 단순하여 공사진행이 빠르며 시공자의 기술수준이 이하이므로 시공자의 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리자의 지도가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검사업무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진행 단계별로 적기에 공사에 대해 검사에 불합격, 시정, 재시공을 지시, 명령하며 시공자는 감리자의 지도를 받게 되어 검사과정은 결과적으로 double check가 되므로 감리와 검사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축공사가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공사완성 후 허가권자의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자를 기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에 대해 공적업무인 검사는 엄격할 뿐 아니라 강화하므로써 시공자는 감리자에 지도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설계도서의 시



주> 건축사는 자격자(2003. 12. 31)를 기준함.
자료제공 : 대한건축협회 및 기술인협회제공

그림 1-1 기술분야별 건축사, 기술사 현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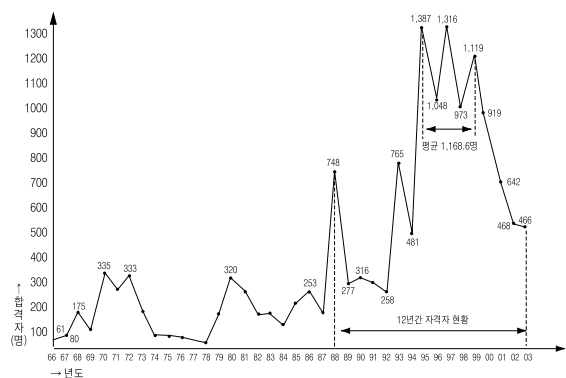


그림 1-2 연도별 건축사업무에 대한 인력수급현황

주) 2) 그림 1-2를 참조

• 1998~2003년의 평균회원수 764.43명(기준)

• 검사 및 감리업무량에 대등을 가정 : 382.22명

• 1995~1999년의 고성장시기의 평균회원수 1,168.6명에 대한 조사·검사비용 382.22 × 100/1,168.60 = 32.71% ≈ 32~33% 정도

주) 3) 1988~2003(12년) 사이에 건축사 15,142명중 70.89%의 자격자를 배출. 시공기술사에 비해 2.5배(251.7%)로 자격자 배출

(분야별 기술사 배출자에 비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며 과잉배출되었다.)

공성, 타당성 뿐만 아니라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와 시방서를 엄격하게 검토하며 감리자는 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의 협력, 지도가 필요하다.³⁾

시공자는 위법의 자행과 부실 공사로 하여 건축주와 감리자에 피해를 주어 부실 공사이면서도 공사 후에 사용승인도 받고 계약금을 받은 후 자취를 감추어 건축주와 사용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민법상의 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지만 현행제도에는 시공자의 규제가 없다. 그러므로 공사에 대해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시공자의 자본과 재력(재산 증명 등) 그리고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서류의 구비 등 착공신고 시 첨부제출하여 확인 또는 지자체에 등록, 시공자의 신상관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건축공사를 위해 허가권자는 감리자의 등록여부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시공자는 당해 공사를 위해 시공자의 구비서류의 제출을 확인하지만 무면허시공자는 신상확인을 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불안전하므로 건축주의 피해와 감리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지적사항

-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현장조사를 시·군·구에서 선정한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으나 (2000년 7월)
- 제3의 건축사 선정권을 건축주 또는 지역건축사회(이권단체)에 위임하는 등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됨으로서
- 제3의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금품수수 후 부실시공목인, 현장확인 없이 검사 조서 작성, 공무원과 유착 등 부조리 성행 사례는 충남 14개 시·군·구는 건축주가 제3의 건축사를 선정하도록 잘못 운영, 대부분 시·군·구는 이권단체인 지역건축사회 등에 대행자 선정위임,
- 건축사 불법행위 처벌건수(2001년 873건, 2002년 913건, 2003년 769건)

건교부 건축법령개정(안)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있어서 시행령개(정) 제20조 제2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를 직접 지정하여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검토

이 제도안은 부조리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과 국회교통위원회의 국회위원입법안,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합리화의 개선방향이 제기되어 건설부가 용역비를 부담, 건설교통평가원에서 홍익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설계·감리기술 진흥 및 육성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타당성을 내세워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협회는 시

행령 제20조 제2항의 검사자지정에 대해 건의하였으나 묵살하고 이 개정(안)은 바로 시행령으로 옮겨졌다.

이 제도안은 허가권자가 대행자의 선정기준이 없이 지정하므로 설계사무소의 지정으로 인한 상업화로 이용, 공정한 업무수주의 경쟁을 해치는 결과와 이와 관련하여 업무수주에 이용하기 위해 공무원의 유착은 필연적으로 제3의 부조리와 연계하게 될 것이다.

전술한 조사·검사전담제도에서 부조리가 생길 수 있지만 설계와 감리를 영업 하지 않는 검사전담기구는 검사선임 순서 및 추천을 공정하게 한다면 설계사무소의 대항보다 부조리가 감소될 것이다.

특히 전술한 검사제도에서 검사자로 지정 받은 자 또는 현행 특검 제도라도 부조리가 생길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업무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건축사를 지정하는 것과 같이 이 제도에서 공직자와 유착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부조리가 감소된다.

허가권자의 지정이든 검사전담기구의 검사이든 그 업무에 대해 공정해야 하며 그 책무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검사자가 불시에 현장에 나가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의 개입 및 대면을 피한다. 시공자가 검사자와 동행하더라도 합격여부와 시정, 재시공, 공사중지만 지시하고 모두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보한다. 서면으로 시정, 개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바로 행정조치와 사법기간에 이침되므로 시정 또는 개선, 재시공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사를 받아야 다음 단계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우리 제도와 같다).

이들의 검사자들은 소득이 높고 엄격하다. 이러한 검사수행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부조리가 없을 뿐 아니라 시공자도 검사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며, 시공자는 건축기준에 맞게 자주적으로 시공을 완성한다.

검사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면 건축주의 피해로 인해 시공자와 supervisor에 claim을 걸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공자에 대해 검사의 강화만이 검사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다. 공사감리는 건축주의 입장에 있는 자이므로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는 공사초기부터 건축물의 안전과 조사·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제도의 개선으로 건축사가 순조롭게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맺는 말

전술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한 주 요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합리화의 개선방향에서 공공의 확인업무(inspection)는 허가권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타당하며 공정성이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공

적 업무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공사감리자가 현행 대로 공사감리를 수행하고, 공사완성 후에 건축물이 공간적 형태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시공하였는지를 제3의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고 1회의 확인과 사용검사는 검사조서로 완료된다. 건교부는 이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감찰전문회사의 설립에 대한 인력기용에 있다. 협회는 이 제도를 깊이 검토하지 않고 불만과 거부에 의한 영향이 크며 공직자 부조리의 발생우려와 전문인력의 기용과 공적업무를 위한 기능체제확보 등에 대한 감찰전문회사의 검사 이원화에 대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민감하여, 건교부는 오직 행정편의를 위한 집착때문에 이 제도안을 거부한데 있다고 본다.

정부의 방안은 건축물의 안전, 질적향상에 대하여는 감리자에 일임하여 노터치하고 공사결과에 의한 위법성 여부를 가름하여 사용검사를 하겠다는 행정업무를 위한 가닥으로 잡고 있으며, 검사업무의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지 못하고 검사의 정의를 왜곡해석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원칙안을 받아드리지 않으려는데 있다. 이 제도안은 협회나 건교부가 연구하여 공개 토론도 없이 회원이 제기한 현행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협회는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데 있으며 특히 건교부가 규제개혁안을 받아드리지 않는 것은 협회가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합리화 방안의 내용이 공사감리의 본질을 잘 못 인식하여 해석하고 감찰전문회사의 검사자 구성 및 전문인력의 기용에 대해 불만의 영향도 있다고 본다.

어떠한 제도를 채택하기 전에 먼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며, 제도의 당위성과 공정성을 먼저 생각하고 합리화한 방안을 검토, 검증의 수준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의 공적업무는 설계와 공사감리보다 위법을 막기위한 감시와 민원처리의 강요로 그 인력을 소모할 뿐 아니라 공적업무를 제대로 대행해야 한다는 강요로 인해 그 업무에 매달려 우리의 본연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

소규모 건축은 시공자가 기술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시공자의 자주 시공의 부족과 자주 검사능력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향상에 주력해야 할 업무를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은 건축사가 시공자의 위법방지를 위해 행정대행에 매달려야 하는 모순 때문에 설계와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건축사의 업무가 과중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건축사 업무에 대한 man power를 검토해보자. 건축사는 설계를 위해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해 지휘감독, 검토하여 소속하며, 공사감리를 위해 현장에 나가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지도, 현장의 감시와 민원해결, 그 밖에 행정업무의 지시, 명령에 의한 현장방문, 대행업무의 소홀과 민원에 의한 과잉단속에 대한 처벌에 매달리는 것은 단독 사무실의 건축사 1인으

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설계도서의 작성은 허가를 위해 맞추고 있으며 허가권자로부터 제재와 지시, 명령을 받지않고 공무원과 유착하여 행정처리와 무마를 잘하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또한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사에 대해 부실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검사에 관여하는 건축사에 업무수주가 단절되며 심지어 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이해를 위해 감리자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 건축사의 업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되므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은 허가권자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공정하다 할 수 있다. 공적 업무의 대행에 대한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이 업무를 구분하고 제도상의 대행업무를 분업화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제도안의 연구와 토론을 위해 협회와 건교부의 제도실무자를 참석시켜 이 제도안을 진지하게 토론했으며 제도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선을 담당하는 건축사협회는 이 제도를 막을 필요가 없으며 더 연구, 검토하여 공개토론이 필요하다.

건교부가 주관한 공적업무대행의 원칙과 검사의 본질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는 건축물이 완성상태를 조사 확인하는 것을 검사라 하는 것은 공적업무를 편리한데로 해석한 데 있다. 검사는 공사단계에서 법적, 안전과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공사결과를 검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공무원의 행정편의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공사결과에 대한 감사이지 어떻게 이것을 검사라 할 수 있을까 한다. 공사과정에서 단계별로 검사를 하지 않고 단계별 완성에 대해 시정이 용이할까 한다. 건교부는 먼저 검사의 목적과 정의를 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건축법에 의한 대행업무는 공적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는 감찰전문회사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은 전문가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연 학경력자나 기사가 주체가 되어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가 한다. 전문가라 함은 해당분야의 professor를 말한다. 감찰전문사는 건축법의 적법성·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한 필요로 하는 자로써 건축법의 적용 및 경험이 없는 전문가가 건축사보다 더 잘 알고 검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다.

전술한 바와같이 건축사 단독으로 설계와 공사감리업무, 공적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검토해야 한다.

시공자의공사와 공사감리(감리자임정의 검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명확화, 구체화한 설계도서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크고 작은 모든 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설계도서를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우리가 관여하여 건축주의 이해를 위해 시방서의 작성과 도급계약의 조건·검토에 협력하여야 사회로부터 건축사의 업무를 신뢰받게 된다. ▮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02

Housing Flexibility - Design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지난 몇 년간의 연구와 출간된 글,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등 일련의 실험과정을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이란 하나의 주제로 묶어 연재 한다. 근본적으로, 이 연구 및 실험은 두 가지 틀 속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첫째는 '이론과 실무(Theory and Practice)'이고, 둘째는 '분석과 종합(Analysis and Synthesis)'이다.

건축 활동에 있어 이론과 실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에게 흔히 '건축 10서'라고 알려져 있고 현존 가장 오래된 건축 저서인 비트루비우스(Vitruvius)의 『De Architectura』의 첫 번째 책, 첫 장 '건축가의 교육에 관하여'에서 비트루비우스는 건축가의 이론과 실무능력의 겸비를 강조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을 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이론과 그 이론의 디자인으로의 적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한다. 즉 디자인 작업이란 연구, 분석, 실험 행위로 구성되는 연속 과정을 하나의 전체로 종합시켜 이루어지는 결정체이다. 따라서 건축 디자인은 그 근본이 되는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연구 그리고 디자인으로의 실험적인 적용 및 응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 위에서 전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이 '이론과 실무'의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라는 전제 하에 연재를 이어간다.

접근 방식으로는 '분석과 종합'의 변증법적인 통합에 기초한다. 건축 디자인의 형태적 체계를 인식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과 종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의 분석은 논리적인 사고나 원리에 근거한 디자인을 비교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디자인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의거해 정련하고 개괄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합이다. 즉, 건축가의 작품의 분석적 작업을 통해 이론과 원리를 추출하고, 이 원리들을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방법을 말한다. (필자 주)

목	차
01_ 디자인 선례 연구 - 천들러의 작품 '천들러 셀터'에 관하여	
02_ 디자인 방법론 I : 부분 대칭론	
03_ 디자인 방법론 II : 비례관계	
04_ 천들러 이론의 논리적 응용 : 하우징의 배치	
05_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실험 - 네트워크에 기초한 자바모델	
06_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하우징 가변성의 실험	

※ 박진호 교수는 인하대 졸업 후, UCLA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 1998년부터 미국하와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 인하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건축디자인 및 이론. 박 교수는 미국의 건축가 협회 (AIA) 하와이 건축상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였고 2001년도에는 제4회 아시아 태평양 건축 심포지엄 의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2002년 하와이대학교 평의회 최고 교수상 수상을 수상하였고, 2003년에는 미국 건축대학 협의회 (ACSA) 신임 교수상 수상, 그리고 최근에는 JAABE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의 최고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Nexus Network Journal의 편집위원이며,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Symmetry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디자인 방법론 I : 부분 대칭론

Design Methodology I : Subsymmetries

서론

예술과 건축작품에서 종종 질서가 잡혀있거나 규칙이 있는 디자인을 보게 된다. 이들 디자인의 저변에 깔린 구조적인 체계는 때론 대칭 원리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 있다. 건축 디자인에서의 대칭성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다. 어떤 디자인의 경우 첫눈에 그 디자인이 외관상 대칭 혹은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대칭성을 강하게 사용한 디자인이라도 여러 대칭적 요소가 복잡하게 섞여있어 쉽게 인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건축 디자인에 있어 서로 다른 수준의 대칭성을 조직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형태이론 및 원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형태이론 중 부분대칭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부분대칭 이론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 축을 기준으로 좌우라는 식의 단순 대칭의 개념이 아니라 한 디자인 속에 얼마나 다양한 부분대칭이 서로 겹쳐있는지를 그리고 이러한 부분대칭이 어떻게 디자인 과정에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접근 방식이다.

건축디자인을 이러한 분석적 방법으로 보면, 한 디자인에 겹쳐있는 여러 형태의 부분대칭이 명백하게 보인다. 이러한 이론을 건축가가 공간구성 원리로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건축적 공간구성 그리고 주제에 관련된 형태의 개발과 그 형태의 변형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부분대칭 이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은 건축가로 하여금 복잡한 구조의 디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명백한 방법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에 식견을 제공한다.

건축에서 공간형태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는 보다 복잡한 디자인의 광범위한 이해뿐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건축활동의 필요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무엇이 건축형태의 기본원리인가에 관한 아이디어는 많이 있다. 필자는 여기서, 괴테의 「식물의 변형(The Metamorphosis of Plants)」이란 책에서 나오는 변형이론을 언급하고 싶다. 괴테는 형태의 계속적인 변형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이상적인 형태 혹은 근원형식(urform)이라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 근원형식(urform)이란 이론은 괴테가 식물형태 및 변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식물의 형태 이면에는 이상적 기본 형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발전되었다. 따라서 근원형식(urform)이라는 개념을 응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는데, 이 다양한 디자인의 형태는 결국 거의 동일한 기본 모티브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테의 이론은 그 이후 자연의 형태 뿐 아니라 이후 예술적 형태에 관한 이론적 설명에도 많이 도입되었다. 이후 가트프리트 쾰퍼(Gottfried Semper)는 자연과 예술에 있어서, 형태의 보편적 원리에 관한 이론적 견해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Tectonics'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텍토닉이란 자연을 모델로 한 예술이다. 여기서 자연의 구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 내에서 존재하거나 자연이 창조하는 일관된 법칙(Gesetzlichkeit)이 있다는 것이다. 쾰퍼는 이러한 기본원리의 이해만이 형태의 수정과 변형 그리고 발전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In the Cause of Architecture : Composition as Method in Creation」에서 그는 기하학이란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형태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성의 원리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 있는 원리를 추출하면서 모방적이 아닌 창조적인 건축형태가 개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대칭원리 중 부분대칭의 형태원리를 간략히 알아보고 여러 건축 작품들에 적용된 부분대칭의 원리를 분석(analysis)해 보며 나아가 그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을 종합(synthesis)적 사례를 예로 들어 보자 한다. 분석의 예로는 쇠들리의 작품과 라이트의 작품을 예로 들 예정이며, 종합적 사례로는 조그만 추상적 디자인을 예로 들 예정이다. 우선 부분대칭이론이 무엇이며 그 원리에 대하여 간략히 짚어 보기로 하자.

부분대칭이론

대칭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의 'Symmetria'에서 유래하였으며 이 말은 예술과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규범과도 같은 것이다. 즉, 한

예술작품이 대칭적이라는 말은 이 작품에서 보이는 부분적 요소들과 전체와의 조화로운 비례관계에 있을 때를 의미한다.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Vitruvius)의 말을 빌리자면,

"Symmetry is a proper arrangement between the members of the work itself, and relation between the different parts and the whole general scheme in accordance with a certain part selected as standard..."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 의미의 대칭개념은 사라지고 현재의 건축에서의 대칭이란 함은 진부적이고 단순하게도 한 축을 기준으로 좌우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에서는 대칭개념의 의미를 단순화시킨 반면 현대 대수학(Algebra)에서는 대칭을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2차원적 뿐 아니라 3차원적 대칭관계 이론을 폭 넓게 발전시켜 그 이론을 정립해왔다. 이러한 수학적 개념을 응용하여, 이 글에서는 건축에 가장 용이하게 이용되는 형태인 정사각형의 대칭성에 관해 논해보자. 여기서는 우선 전문적인 수학적 용어나 해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더 상세한 기술적 설명은 참고문헌을 참조하길 바란다(Budden, 1972; Grossman I, Magnus W, 1964, Shubnikov A V, Koptsik V A, 1974).

정사각형에 내재된 대칭그룹은 그림에서 보듯이 4축을 기준으로 한 반사(reflection)대칭과 0, 90, 280, 270도의 회전(rotation)대칭에 의해 8가지의 변형으로 구성된다. 이들 여덟 개의 변형들은 각각이 정사각형 대칭그룹의 요소가 된다. '그림 1'의 도식은 정사각형의 모든 가능한 부분대칭요소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대칭은 4가지의 변형요소를 포함하며, 또 어떤 대칭은 2가지의 변형요소만을 포함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일 밑에 있는 1가지 요소만을 가지는 부분대칭을 'identity'라 부른다. 이 도식은 4개의 층(tier)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할수록 정사각형의 대칭요소는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꼭대기에는 완전한 정사각형 대칭을 이루고 아래로 향할수록 대칭요소가 점차 감소하게 되며, 종국에는 대칭이 하나도 없는 'identity'로 감소하게 된다. 이 부분대칭의 계층관계는 선으로 연결되어있다. 각 층별 부분대칭 요소를 살펴보자. 제일 위층은 4가지 회전과 반사를 모두 포함하는 정사각형의 완전 대칭으로 모든 부분대칭을 포함하는 최상위 단계이다. 그 다음 층은 수직 및 수평, 그리고 90도의 두 대각선 축으로 형성된 두개의 반사와 바람개비 형태의 90도 회전을 기본으로 형성된 한 개의 회전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가지 부분대칭은 그림에서 보듯이 제일 위층의 정사각형 완전 대칭의 부분 대칭이 된다. 세 번째 층은 다섯 개의 부분대칭으로 나뉘는데, 그 중 넷은 한 축의 반사 대칭에 근거한 부분 대칭이고 나

머지 하나는 180회전에 의한 대칭이다. 이 180도 회전 대칭은 바로 위 상부 층 3개의 부분대칭의 부분대칭이나 나머지 4개의 부분 대칭은 바로 위 상부의 반사 대칭만의 부분 대칭이 된다. 제일 하부의 단계는 단위 요소로 어떠한 반사대칭이나 회전대칭의 변형을 포함하지 않는 독자성을 가진 비대칭 구조를 이룬다. 이 단위요소는 앞서 언급한 모든 대칭요소의 부분대칭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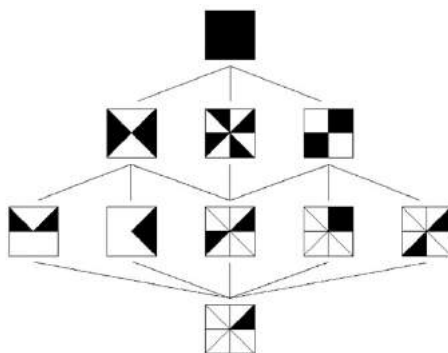


그림 1. 정사각형에 내재된 부분대칭 요소들의 계층적 질서

이러한 여러 부분대칭의 계층적 질서는 건축 평면이나 입면의 분석 및 새로운 디자인의 과정에 응용될 수 있다. 분석적으로는, 사각형 평면형태 속에서 여러 형태로 겹쳐져 있는 부분대칭요소를 이 원리를 이용 부분형태를 추출함으로써 디자인에 내재된 대칭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원리를 응용하여 여러 부분대칭 요소를 한 평면이나 입면에 상호 겹침으로써 최종 디자인에는 대칭의 요소를 표면적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수학적 이론을 도식화하여 디자인에 도입한 이유는 이 부분대칭 원리가 디자인에 내재된 어떤 질서의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사각형 부분대칭의 계층적 질서에 관해 논하여 보았지만, 이 이론은 정사각형뿐 아니라 다른 다각형으로도 확대 사용될 수 있다. '그림 2'에는 여러 다각형 중에서 다소 복잡하나, 건축적 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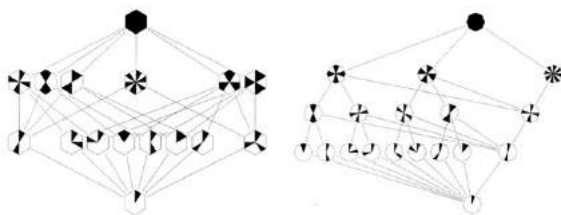


그림 2. 육각형과 팔각형의 부분대칭 요소들의 계층적 질서

자인에 이용될 수 있는 육각형과 팔각형에서 추출될 수 있는 부분대칭 요소들의 계층적 질서를 요약해 보았다.

분석적 예

윈들러의 1922년 설계되었던 포페노 주택(Popenoe House)을 예로 들어보자. 사막 위에 지어진 이 주택의 특징은 텐트구조와 같은 가벼운 구조체로 지어졌다. 거실은 이 주택의 중심에 위치하고, 다용도실, 부엌, 방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간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내부 공간은 최소공간 내에서의 공간의 흐름이나 가변성을 제공하고, 내부 공간의 사용을 최적화 하기 위해 얇은 칸막이 벽이나 미닫이 문으로 분리된다. 각각의 현관문을 가진 네 개의 포치(porch)가 내외부 공간의 상호연결을 위한 매개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집 주변에 나선형태로 위치한다. 사각형의 부지 위에 계획된 이 주택은 구조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극히 단순하게 설계되었다(그림 4). 그러나, 이 주택은 윈들러의 작품 중 그 주택의 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부분대칭 이론이 잘 응용된 예이다. 48인치(4피트, 약 122cm) 단위모듈 체계와 부분대칭 이론은 공간구획뿐만 아니라 상세도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이 주택의 기본계획은 48인치 단위모듈 체계를 기본으로 한 22 x 22피트(667cm)의 정사각형에 준한다(그림 3). 이 정사각형은 각각 6피트, 10피트, 6피트의 세 구획으로 세분화되며 이 구획은 3 : 5 : 3이라는 단순한 리듬을 생성한다. 또한 이 기본구획은 정사각형의 4가지 회전과 반사를 모두 포함하는 완전 대칭을 보여준다. 이 기본구획에 따라 이 주택의 주요한 공간들이 위치하게 된다. 외관상으로 불규칙한 공간배열로 보이는 최종계획안은 앞에서 말한 기하학적 정형성을 지닌 기본 구획과는 대비가 되며 전체적으로 비대칭적 구성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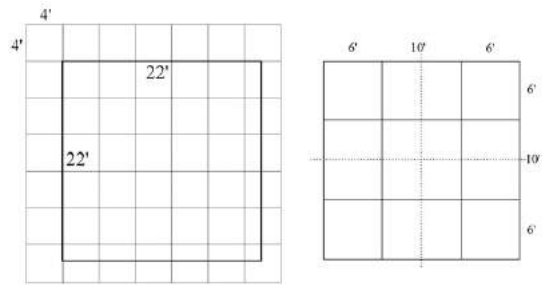


그림 3. 포페노 주택(Popenoe House)의 기본 평면구도(parti)

네 개의 부가적인 포치(Porch)는 복도에 의해서 거실, 침실, 부엌, 식당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공간의 배열방식은 바람개비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이 포치의 각각의 크기는 이 주택주변의 시계방향으로 3

피트, 4피트, 6피트, 10피트로 증가된다(그림 4). 따라서 전체 주택의 배열은 바람개비 형태를 취한다. 최종 계획안은 외관상으로 비대칭형이지만 이것들은 단순히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회전대칭의 원리를 충분한 이해를 기초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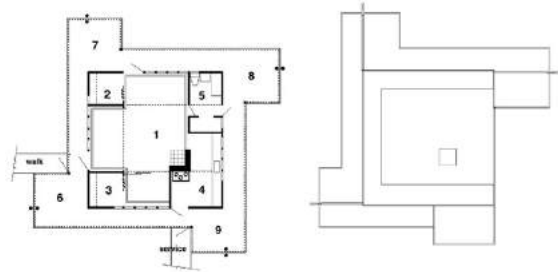


그림 4. 1층 평면도와 지붕 평면도 (1. 거실, 2. 여주인방, 3. 남주인방, 4. 부엌, 5. 욕실, 6. 식당 배란다, 7. 거실 배란다, 8. 침실 배란다, 9. 부엌 배란다.)

벽난로는 주택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계획되었다(그림 5). 이 벽난로는 거실의 어떤 위치에나 놓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윈들러는 이 주택의 모서리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대각선 방향의 위치선정은 공간을 역동적으로 함과 동시에, 공간에 깊이를 더한다. 벽난로의 상세도 조차도 이러한 대각선의 축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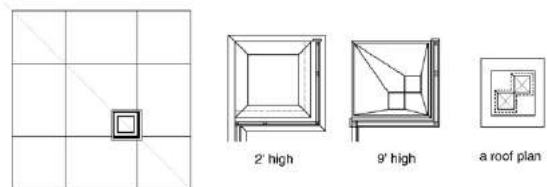


그림 5. 기본 평면구도 위에 놓인 대각선 방향의 벽난로와 벽난로를 서로 다른 높이에서 본 평면도

이런 대칭적 배열 방법은 지붕구조의 배열에서 더 명확히 나타난다. 지붕구조가 부분적으로는 거실, 부엌, 옷장의 3피트 위에 위치한다. 이 지붕은 '그림 6'에서 보듯이 바닥 배열과는 다른 축을 형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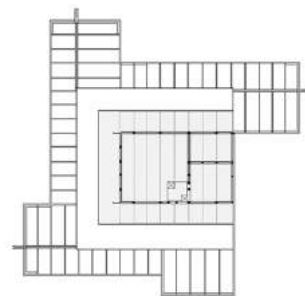


그림 6. 24인치(약 61cm) 간격으로 배열된 지붕 뼈대구조와 그 배치

고 있다. 이 지붕 아래는 채광창이 위치하며 주택의 한 가운데로 빛을 비춘다. 전체 구조물은 완전히 비대칭 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최종 계획안에서 부분적으로 수많은 부분대칭이 쓰였으나, 전체적으로 엄밀히 말해 강한 대칭성은 사라진다.

포페노 주택의 기본 구도(parti)는 정사각형의 전통적인 세가지 구분(tripartite)을 바탕으로 완전한 정사각형 대칭을 이루고 있고, 포치(porch)는 90도 회전된 바람개비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난로는 대각선 방향의 한 축 반사 대칭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구조는 또 다른 수평 축 반사 대칭에 의해 디자인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주택의 평면은 엄격한 비례원리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으며, 4개의 서로 다른 부분대칭의 겹침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대칭들의 겹침은 비대칭성 최종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동맥이 된다. 이 주택처럼 평면 계획의 모든 부분대칭의 가능성들을 다 이용하지는 않지만 몇몇 부분대칭을 겹침으로써 복잡한 평면을 구할 수 있는데, 단층주택 디자인에 있어서조차 이러한 여러 부분대칭을 사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분석적 방법으로 디자인을 보게 되면 때론 복잡한 디자인이라도 그 디자인의 구성논리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프래리(Prairie) 주택들에서도

이러한 여러 부분대칭들을 조작하여 평면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론가와 역사학자들 사이에 프래리(Prairie) 주택의 대칭성에 관하여 논쟁이 많지만 라이트의 접근방식을 명확히 설명하는 글이나 논문은 극히 드물다. 프래리(Prairie) 주택의 특성은 건물의 여러 공간들이 대지위의 주변환경에 맞게 뻗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많은 비평가들이 이러한 프래리(Prairie) 디자인들의 공간 구성이 L 또는 T자 형태, 바람개비 형태, 십자형태라고 피상적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분석적 방법론으로 이 평면들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평면의 조작방식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질 것이다.

라이트의 윌리츠 주택(Willits residence, 1901)을 예로 들어 분석해 보자. 이 윌리츠 주택은 라이트의 첫번째 프래리(Prairie) 주택으로



그림 9. 윌리츠 주택(Willits residence, 1901)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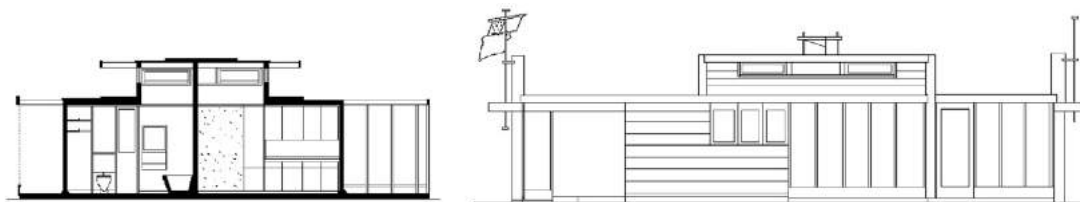


그림 7. 단면도와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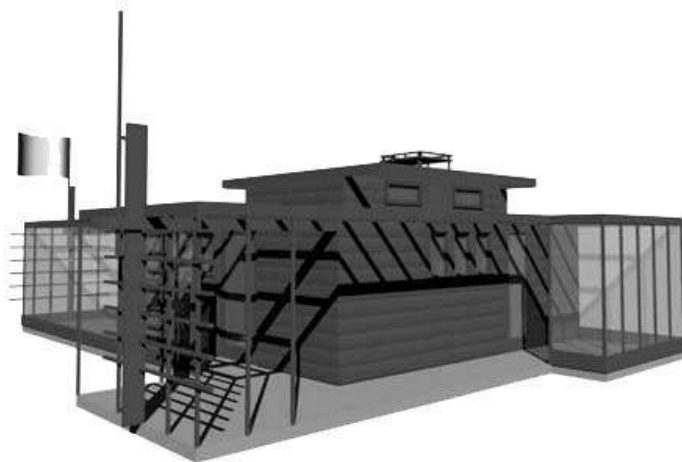


그림 8. 포페노 주택의 컴퓨터 모델

서 특히 그의 건축 언어인 수평 돌림띠(horizontal stringcourses), 낮은 지붕(low hip roof), 중앙부의 벽난로 그리고 개방형 평면계획 등이 분명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참나무나 소나무의 원목을 이용하여 창틀을 만들었으며 철제 구조체로 건물이 지지 된다.

이 주택에서는 여러 축들이 중첩되거나 섞여있는 배열방식으로서 라이트의 공간의 깊이를 주고, 형태적으로 복잡하면서도 잘 정돈되어 있다. 1901년 일리노이 주 하이랜드 파크(Highland Park)에 지어진 이 주택은 39인치(약 99cm) 정사각형 그리드 위에 계획된 십자형 평면이다. 이 주택의 공간구성은 전형적인 프래리 디자인으로써 벽난로가 거실을 마주하면서 중앙에 위치해 있다. 한쪽 벽은 입구와 접대실이고, 다른 한 쪽은 식당이다. 거실은 한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부엌과 가정부들의 방은 다른 한 쪽에 위치한다. 주택의 중심에 있는 큰 벽난로로부터 각 공간들이 뻗어져 나가있는 형태를 취한다. 여러 비평가들이 언급 하였듯이 언뜻 보기에, 이 주택이 십자형이나 바람개비 형태처럼 보이지만 평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축들이 서로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의 주택평면은 교차되어 있는 형태를 지나나 여러 개의 부분 대칭들이 공존한다. 출입구와 식당 앞에 있는 입구의 기둥들은 주 수평축 위에 놓여있고, 거실과 가정부의 방들은 벽난로를 따른 주 수직축 위에 있다. 따라서 여러 부분대칭들이 한 평면 위에 서로 교차되어 있으면서 비록 복잡하나 서로 열린 형태를 취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주택에서는 회전대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여러 반사대칭의 조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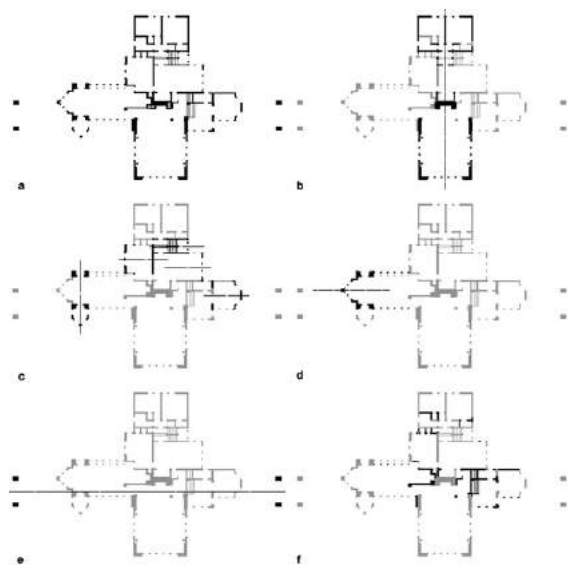


그림 10. 윌리츠 하우스(Willits residence, 1901)의 부분대칭이론을 이용한 평면 분석

디자인 적용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내재된 논리는 디자인 개발에 응용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단순한 부분대칭 논리를 이용하여 가상 건물을 디자인 해보자. 위의 분석적 예와는 반대로 여러 부분 대칭들이 위계적인 구조체계를 가지고 평면구성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이 디자인 예에서는 우선 최소한의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평면들이 조합되었을 때 전체 디자인에서 부분대칭 이론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디자인 요소로서 기둥을 나타내는 원점과 바닥을 나타내는 사각형을 취한다. 신틸러의 예처럼 우리는 부분대칭 원리를 바탕으로 건물 요소들을 그리드 체계 위에서 배열하고 정사각형의 부분 대칭들을 구성적 수단으로서 사용한다. 이 작업에서는 일반적인 정사각형 그리드를 사용하는 대신 라이오넬 마치(Lionel March) 교수가 제안한 주기적인 격자(rhythmic grid) 중 하나를 사용한다. 그는 「A Class of Grids」(1981)이란 글에서 마치 교수는 순열을 이용한 일련의 그리드를 만드는 이론과 그리드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이 작업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리드 중에서 3 + 1 + 1 + 2 + 1 + 1 + 3의 반복된 리듬을 가진 그리드를 이 디자인 작업을 위하여 선택하였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이 그리드는 그 자체가 완전한 정사각형 대칭을 이루고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둥과 건물의 바닥 요소를 각 층의 그리드 위에 부분대칭 원리에 의거하여 배열한다. 따라서 각 층은 12피트 높이의 층고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부분대칭적 평면을 이루게 된다. 건물의 구조적 특성상 하부는 많은 기둥이 나열되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부분대칭이 줄어드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즉, 제일 아래층은 완전한 정사각형 대칭을 이루도록 한다. 따라서 기둥과 바닥은 4가지 회전과 4가지 반사를 모두 포함하는 정사각형의 완전대칭으로 배열된다(그림 12b). 그 위층은 바람개비 형태의 90도 회전을 기본으로 형성된 부분대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기둥의 위치는 바로 아래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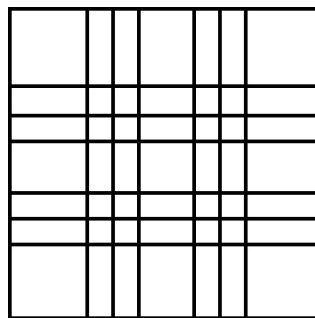


그림 11. 반복된 리듬을 가진 그리드

같이 계획되었으나, 바닥은 바람개비 형태로 계획되었다(그림 12c). 1층과 비교해 볼 때 이층 바닥판은 이 바람개비 형태를 취하기 위해 위치가 약간 옮겨져 변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층의 반사(reflection)대칭 요소가 사라진다.

3층은 2층의 부분대칭 요소 중 180도 회전만을 이용한 디자인을 나타낸다. 기둥의 배열은 두개의 수직과 수평 축에 근거해 배열되어 있으나 바닥판이 180도 회전 형태로 배열되어 전체적으로 180도 회전에 근거한 디자인이 된다(그림 12d). 4층은 수직 및 수평의 두 축으로 형성된 두개의 반사 대칭을 사용하여 기둥과 바닥의 배열이 이루어져있다(그림 12e). 5층은 한 개의 반사축으로 구성되며, 4층과 비슷한 구조나 바닥판의 위치를 약간 옮김으로써 대칭성을 줄였다(그림 12f). 6층 또한 한 개의 반사 축으로 형성되나 여기에는 대각선 축을 사용하였다(그림 12g).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위층은 대칭성이 전혀 없는 구조로 디자인 되었다(그림 12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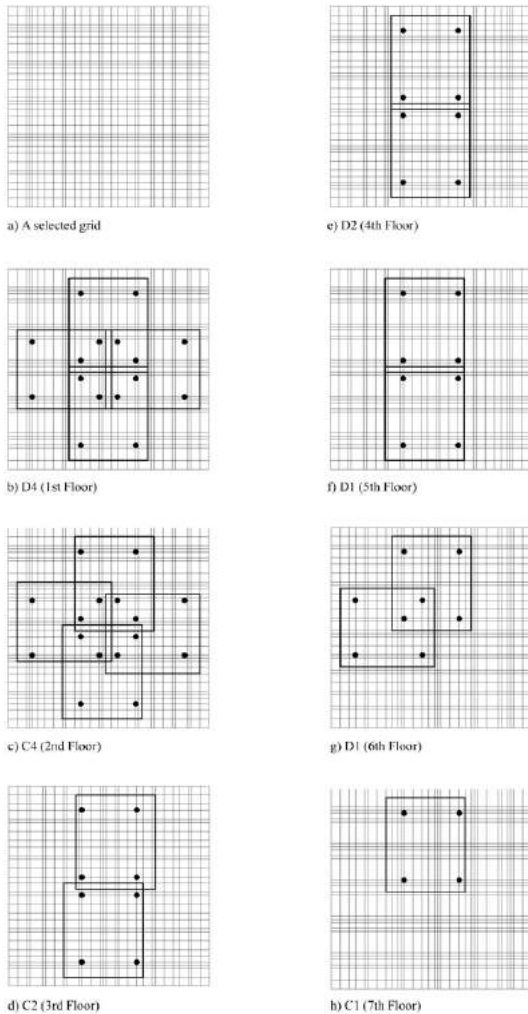


그림 12. 부분 대칭원리를 이용한 각층의 추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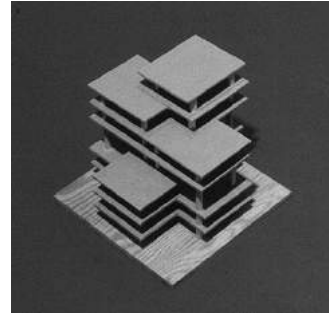


그림 13. 3D로 형상화한 추상 디자인

이 글에서는 부분대칭 이론을 응용하여 건축을 분석 및 디자인하여 보았다. 신들러의 포페노 주택과 라이트의 윌리츠 주택의 분석에서는 이 주택들의 공간 구성이 여러 부분대칭의 겹침에 의해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여러 부분대칭을 고층 건물에 응용하여 보았다. 이 실험적인 디자인의 예에서 보듯이 부분대칭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건축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다음 호에서는 신들러 디자인의 구성 원리인 모듈러 이론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시리즈 4편에서는 앞서 논의한 '신들러 쉼터'에 나타나는 부분대칭 원리를 분석하여 이 분석을 바탕으로 '신들러 쉼터'의 기본 단위 주거와 다양한 변형 안에 관하여 논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원리를 응용하여 새로운 '신들러 쉼터'의 디자인 및 배치계획의 가능성에 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圖

협회소식_kira news

제7회 이사회

2005년도 제7회 이사회가 지난 4월 19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의적립금 일시 차입 승인의 건,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건, 퇴직위로금 지급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재정수입전망과 사업추진에 관한 건,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회관지분 관련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건, 사무처장제 도입 및 건축연구원 인력 충원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임의적립금 일시 차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차입금액 : 10,017,000원
 - 차입재원 :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임의적립금
 - 상환기한 : '05. 12. 31
- 제2호의안 :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건
 - 강원도건축사회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키로 하되, 재원은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함.
 - 지원금액 : 1,000만원
 - 지 원 처 : 강원도 건축사회
 - 지출과목 : 회원업무개선 지원사업비
- 제3호의안 : 퇴직위로금 지급 승인의 건
 - 협회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지급키로 하되, 차후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
 - 지급대상 : 임은주 대리
 - 지급금액 : 월 급여의 3개월분

▲ 협의사항

- 제1호 : 2005년도 재정수입전망과 사업추진에 관한 건

- 2005년도 사업계획과 회장공약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 예산 조정(안)을 작성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회관지분 관련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건

- 회관 지분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본 협회와 서울건축사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함. 다만, 서울건축사회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경우에는 즉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본 협회의 소송대리인 선임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제4호 : 사무처장제 도입 및 건축연구원 인력 충원에 관한 건

-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될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안)에 포함하여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회비의수납및관리에관한규정 중 제명처분자의 재입회시 입회비 납부문제와 회비의 분납방안 등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2005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

매년 대한건축사협회 여성건축사회에서 개최하는 「2005 전국여성건축사대회」가 오는 5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양일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라비돌리조트 & 컨트리클럽(<http://www.laviedorresort.co.kr>)'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첫날 호암미술관 견학 후 제1부(개회식 및 만찬), 제2부(여성건축사회 총회), 제3부(특강, 심리학 강의/서강대 김인자 명예교수)로 진행되고, 둘째날은 화성행궁답사가 예정되었다.

- 문의 : 황정복 018-221-0680

서울 퍼포밍아트센터 국제아이디어 공모

서울시는 노들섬 '오페라하우스'가 포함된 '서울퍼포밍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국제아이디어설계경기를 서울퍼포밍아트센터국제아이디어공모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spac.seoul.go.kr)를 통해 지난 4월 27일 공고했다.

이번 '서울퍼포밍아트센터국제아이디어공모'는 전세계 건축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각 1,500여 좌석을 가진 오페라하우스와 심포니홀, 청소년야외음악당 및 관련시설 등과 함께 대중교통, 도보교, 교량, 선박 등 접근로에 대한 설계를 참가자들이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참가자격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건축사와 건축 전공 학생들로 제한되어 일반인들은 참가할 수 없으며, 참가비는 건축사가 25만원(250달러), 학생은 10만원(미화 100달러)이다.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참가비를 납부하고 정식 등록된 참가자들에게만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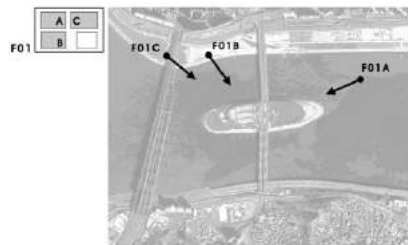
아울러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오는 5월 9일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6월 10일까지 참가등록을 마감할 예정이며, 작품접수 마감은 7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작품심사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심사위원회는 국내 심사위원 3명과 국제심사위원 3명, 국제건축가연맹(UIA)의 대표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당선작을 7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시할 방침이다.

당선작 가운데 1등 5명에게는 각각 3만달러의 상금이, 2등 5명에게는 각각 1만달러, 3등 10명에게는 각각 5,000달러가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www.spac.seoul.go.kr와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국제건축가연맹(UIA) 공식 홈페이지 www.uia-architecte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서울시 문화예술센터추진반
02-3707-8381~6



노들섬

「5 Weeks 5 Places」 전 개최

(주)아이아크의 건축가 유 결 씨가 5월 3일부터 밀알학교를 시작으로 5주 동안 5장소를 순회하는 「5 Weeks 5 Places」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최근에 건축가 유결과 아이아크가 설계하고 완공한 다섯 건물을 전시회장으로 사용하여 전시내용과 함께 평상시엔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건축물 자체를 전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수근문화상과 미국건축사협회 명예상을 수상한 '밀알학교'를 시작으로 사무실+공장 건물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 '이건창호 사옥', 도심 커뮤니티 건축의 대안을 선보이는 '밀레니엄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대학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과 '경희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이 그 다섯 장소가 된다.

일정 : 밀알학교 / 5.3~5.10

이건창호 사옥 / 5.13~20

경희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 5.27~31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 6.3~6.10

밀레니엄 커뮤니티센터 / 6.17~6.24

참조 : www.5w5p.com



문화우리, 문화도시 답사 - 생각하며 걷는 토요일

문화환경공간 연구집단 (사)문화우리가 양식이 아닌 맥락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문화도시 답사를 통해 이 시대 장소성을 발견해 가는 시간을 가진다는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

- Project 01 : 1Day Town Watching Tour
 - 일시 : 짝수달 토요일 2사~8시(단, 8월은 7월로 대체)
 - 일정
 - 4. 16 / 청계천은 어디로 흐르는가/화가 임옥상/사진가 이병용
 - 6. 18 / 서울역사에서 서대문형무소/건축과 교수 안창모/철도문화재단 김경희
 - 7. 16 / 대학로에서 인사동까지/멀티아트리스트 이중재/환경조경가 김인수
 - 10. 15 / 홍대앞 기차길을 따라서/문화인류학교수 한경구/건축가 김영준
 - 12.3 / 낙산에 오르다/사회학교수 이시재/건축가 승효상

- Project 02 : 한국 전통마을을 가다
 - 일시 : 홀수달 토~일요일 1박 2일
 - 일정
 - 5. 28~29 / 강릉 고성군 죽왕면 왕곡마을
 - 9. 3~4 / 낙안읍성 + 담양군 정자 탐방
 - 11. 12~13 / 경주 남산 + 월성 양동마을
 - 참가신청 : www.culturec.org
- 문의 : 사단법인 문화우리 02-3216-1877



지산학생건축공모전 2005

제 9회를 맞이하며 '새것 속에서 재생하는 옛 것 : 재래시장의 변신(The Old Revived in the New:A Metamorphosis of the Traditional Market)'이라는 주제로 재래시장의 위기상황과

극복의 시도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극 대응하며 변신하는 재래시장의 모습을 젊은 건축학도들의 유연한 시각과 감각을 통해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던 지산학생건축 공모전의 결과가 지난 3월 30일 발표되었다.

100여개 대학에서 667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청을 한 가운데 모두 159점이 접수되었다. 이를 대상으로 1차 예비심사에서는 재해성(아주대)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강혁(아주대), 김기연(인제대), 김두순(한동대), 박헬렌주현(경기대), 신석균(광주대), 이승용(목원대) 교수가 24점을 선발하였다.

본 심사에서는 심우갑(서울대), 김낙중(건국대), 최무혁(경북대) 교수와 멕시코 건축가인 리카르도 레고라타가 참여하여 제출자가 5분간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약 5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다득표 작품에 대해 토론한 결과 대상에는 남영호(중앙대)씨의 'Culture of Hybrid-교배잡종의 문화를 통한 새로운 복합소비시설'이 선정되었다. 금상에는 김경현(부경대)씨의 'Resonance-공명'이 선정되었으며, 은상과 동상 각각 2점을 본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작에 대하여 리카르도 레고라타는 "휴먼 스케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입면에서 매우 다양한 시퀀스를 만들어 상업건물인 시장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평하였으며, 금상작에 대해서는 오픈 공간이 도시를 향해 강력하게 열려 있어 이후 도시를 위해 좋은 이미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무혁 교수는 대상작과 금상작이 매우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대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였고, 대지와도 잘 어울려 보인다고 평하였다. 심우갑 교수는 "전반적으로 작품의 질이 높아 수상작 선택이 어려웠고, 참여자들의 계획안에서 옛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심사평을 밝히고는 특히 "대상을 수상한 남영호씨의 'Culture of Hybrid-교배잡종의 문화를 통한 새로운 복합소비시설'은 휴먼 스케일의 공간 이미지와 입면상 다양한 시퀀스를 고려한 점이

시장의 상업적 성격에 잘 부합되었다"고 평했다.



대상 : Culture of Hybrid

프랑스 인기 작가 6인전

꽃,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지난 1986년 개관해 미술애호가들과 대중들에게 훌륭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전시회를 개최해온 예성화랑(대표 한영희)에서 '프랑스 인기 작가 6인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꽃,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이다.

- 작가명 : 베르날드 뷔페, 베르날드 카트랑, 앙드레 꼬타보, 앙드레 브라질리에, 질 - 고리티, 폴 아이즈피리
- 전시작품 : 16점(유화&판화)
- 전시기간 : 2005년 5월 3일~2005년 6월 20일
- 관람시간 : AM 10:00 ~ PM 6:30
- 휴관안내 : 매주 일요일 & 공휴일
- 전시장소 : 예성화랑(지하철 1호선 종각역)
- 문의 : 02-738-3630

시간

경계에서

이 책은 현재 동명정보대학교 건축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작품 활동과 연구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김익용 교수의 저서이다. 이 책에서 지방과 서울, 이상과 현실, 사회와 개인, 근대와 고전, 세계와 자아 등을 통해 그를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경계에서 철학적 근간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완성된 모습보다는 과정의 모습이 저자의 흔들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건축이 저자에게 덧없는 희망과 절절한 현실적 차가움으로 공존하지만 우리에게서는 희망의 모습으로 읽혀진다. 이렇듯 그는 서문에서 “건축이 전개되어가는 과정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혼재하고, 실낱같은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며, 덧없는 희망과 절절한 현실적 차가움이 공존한다. 마치 파편화된 도자기처럼 흐트러지고, 조각나고, 단절된 것처럼 인식된 나의 건축적 사고와 생각들을 이리저리 꿰어 맞추어 금간 도자기로 완성된 것이 지금, 여기서 내 건축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 건축은 여전히 혼란스러우며, 규정되지 못한 나의 목소리와 언어들의 결과물”이라고 자신의 건축을 말한다.



김익용 지음/120쪽/14,000원/비온후 발행 051-645-4115

인도건축기행

이 책은 안영배 교수가 인도건축 여행 일정표를 계획하고, 일정표에 의해 직접 건축물을 찾아가 보고 쓴 것으로 인도건축과 인도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내용을 보면, 북인도, 서인도, 중인도, 남인도, 동인도 등 인도 전역의 중요한 건축들을 거의 다 소개하였으며, 건물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위치와 건축이 지닌 특징을 가장 잘 포착하여 힌두교 사원(사카라, 만디르, 만다파)·자이나교 사원(사면당)·이슬람교 사원(돔, 첨탑, 사분정원)·불교 사원(토라나, 스투파)의 특징과 감상법 그리고 내부공간 및 외부공간의 변화가 얼마나 다양한지와 아울러 건물에 얹힌 이야기, 건물의 장단점 등 건물을 감상하는 데 있어 중요한 대목이 매우 흥미롭게 펼쳐져 있다.

또한 건축공간을 깊이 연구해 온 필자의 사진이 천연색으로 펼쳐져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공들여 짜여진 일정표는 인도건축을 보기 위해 인도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나, 인도건축을 주 테마로 여행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안영배 지음/356쪽/18,000원/다른세상 발행 02-2198-5910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강조기간: 2004년 5월 1일~5월 31일
-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5월 한 달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 ◇ 근로복지공단은 국제청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계속하고 있으나 2005년 2월말 현재 가입대상사업장은 고용·산재 각각 1,314천 개소, 가입사업장은 고용보험 999천개소, 산재보험 1,036천개소로 가입률은 고용 76.0%, 산재 78.8% 수준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 ◇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 ◇ 특히 2005년부터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고용·산재보험이 일괄적용 확대되고,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을 행하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 반면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실제 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 보험료는 창구수납뿐만 아니라 신용카드(Welco-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을 통해서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 이번 자진신고 강조 기간에 고용·산재보험에 자진 가입하여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과 실직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이 현명하다.
- ◇ 특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 보험료신고 등 고용·산재보험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welco.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참조
- 문의: 고용·산재보험 문의 1588-0075

2005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해야

2005년도판 「세금절약가이드」 발간

국세청(청장 이주성)에서는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금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한편,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편으로 2004년에 개정된 세법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한 2005년도판 '세금절약가이드' 및 '부동산과 세금' 책자를 새로이 제작 발간했다.

발간된 책자는 일선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내방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정홍보용으로 활용하는 한편, 책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부담없이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정부간행물판매서점을 통해 실비(권당 3천원)로 판매하며, 책자의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여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조 :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국세청발간책자
- 문의 : 자료생산과, 납세홍보과 02-397-1552~3

「통신단말기 대금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KT · KTF · LGT · SKT 등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통신단말기(휴대전화 단말기, PDA 등)를 할부 구입하고, 그 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통신단말기를 할부구입 한 경우에 그 대금은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고, 소비자는 이 청구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 이 경우 대금 청구서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전화요금과 소득공제 대상인 통신단말기 구입대금이 통합되어 있어 단말기 대금만을 구분하는데 시스템 상 어려움이 있으며,
-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서비스센터 등에 방문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다.
- 이에 국세청은 통신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 소비자가 통신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단말기 대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 납부 내역은 납부일로부터 2~7일내에 금융기관에서 이동통신사로 통보된다.
- 소비자는 납부내역이 이동통신사로 통보된 다음날에 해당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현금영수증을 조회 · 출력할 수 있으며
- 그 내역은 다음날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자동 통보되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의 : 자료생산과, 부가가치세과 02-397-1712~4

2005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국세청에서는 전자신고 활성화, 맞춤형 신고안내 및 신고대리 지원을 통해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2만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회원 중 세무서로부터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내사항을 이번 신고에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02년 귀속분부터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고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종전보다 세금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2004년도에 지급받은 이자 ·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개인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서는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송한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하고, 세금은 5월 31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국고수납 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통합 신고한 주민세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 자영업자 과세표준 정상화의 일환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제도와 관련하여 가맹점 가입 및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한다.
- 문의 : 국세종합 상담센터 1588-0060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564) E-mail : ho25400@nts.go.kr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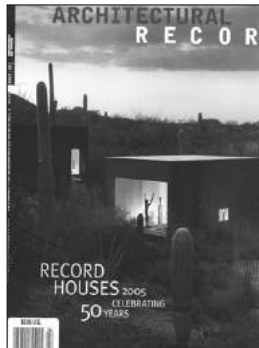
a+u

신건축

Architectural Record

2005년 4월호

1956년부터
시 작 된
Record
Houses의
50주년으로,
올해의 10선
과 더불어 그
동안 주택설
계에서 나타
난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2005년도 Record Houses

매년 당해의 우수한 주택설계를 선별하는 Record Houses의 50주년을 맞아 자연을 배경으로 지어진 저택 10선을 꼽았다.

Urban Fourth의 일본 후쿠오카 Second Plate

건축사진작가 Kouji Okamoto를 위한 주택과 스튜디오로 구성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면의 특



Urban Fourth의 일본 후쿠오카 Second Plate

성이 강조되어 사진과 같은 2차원적 공간감을 연출한다. Urban Fourth의 건축가인 Hiroyuki Arima는 콘크리트와 철판으로 만든 인공대지를 전체 대지 위에 조성함으로써 지하의 넓은 주차공간과 상부의 균일한 데크 영역을 확보했다. 두 건물이 사선 방향으로 놓여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한 데크 공간에는 깊이 5cm의 연못이 삼각형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다. 계단과 외부 구조물들은 2.5~7.5mm 두께의 철판을 접어 만들어졌는데, 이렇듯 희고 얇은 판재들의 복합적인 구성은 일본의 종이접기방식인 오리가미를 연상시킨다. 내부 역시 흰색 대리석을 사용하여 백색으로 처리된 외부의 느낌을 이어가고 있으며, 계단, 벽, 천장 역시 대단히 얇게 처리되어 전체적으로 추상성과 가벼움이 강조되고 있다. 천정고가 5m에 달하는 거실에는 자유로운 형태의 창문이 외부를 담는 프레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건축주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내부의 공간은 벽과 문을 통해 명확한 실로 구분되기보다는 유리 스크린이나 천정과 바닥의 높이 변화에 의해 각 기능군들의 경계가 암시되고 있다.

Fearon Hay의 뉴질랜드 Shark Alley House

뉴질랜드에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속하는 Great Barrier 섬에 위치한 Shark Alley House는 가파른 산세가 평지로 전환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위



Fearon Hay의 뉴질랜드 Shark Alley House

치한 주택들이 대부분 그렇듯 주위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내부적으로 풍경을 잘 담아내는 건축을 추구하였는데, Hay는 미스의 “Less is more” 철학을 극대화하여 단순한 공간 조식이 주위 자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통과시키도록 계획하였다. 자연 속에 바닥판, 지붕, 기둥 그리고 몇 개의 벽만이 드러나는 형태는 디테일이 거의 없어 일면 단순해 보이지만, 엽분, 실제로는 바람과 폭풍에 대한 까다로운 구조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주차장, 태양열 패널 등 기능적 요소들을 교묘히 감춘 결과다. 중정에는 옥외 벽난로가 설치된 것이 특이하며, 이 공간을 감싸는 유리문은 바람이 거세게 불 경우 중정 영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평소에는 개방되어 거실, 응접실, 부엌 영역과 융합되도록 의도하고 있다. 단순한 공간 구성과 가변적인 유리문을 통해 자연과 날씨에 따라 다양하고 풍부한 공간적 경험을 이끌어내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 외에 Rick Joy Architects의 미국 애리조나주 Desert Nomad House, Brian MacKay-Lyons Architect의 Nova Scotia Hill House, Marcio Kogan Architect의 브라질 BR House, Pugh+Scarpa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Solar Umbrella House, Steven Holl Architects의 미국 뉴멕시코주 Turbulence House, Fougerson Architecture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Big Sur House, Hiroaki Ohtani의 일본 Layer House, Aldo Celoria의 스위스 Casa Travella 등이 소개되어 있다.

■ Record Houses 50년

Architectural Record가 매년 우수한 주택설계를 선별하기 시작한지 50년이 흘렀다. 문화적, 정치적, 기술적, 사회적 토양이 바뀔 때마다 주택 설계와 AR지의 보도 경향 역시 변화하여 왔다.

1950년대

Record Houses를 다루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은 신콜러니얼 양식의 개인 주택이 일반화되어 있던 시기로, 모던한 건축의 거주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던 시기였다. AR지는 Ulrich Franzen의 Franzen House, Jose Luis Sert의 Sert House 등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주택을 소개하고 가족들의 생활과 손님접대가 이루어지는 사진을 중점적으로 게재하여 이들 주택이 미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양식을 잘 담아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각적 형태를 가진 독립된 벽난로, 일본식 정원, 유리벽, 모던한 가구는 당시 소개된 주택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지역적 맥락과 상관없이 미국 전지역에서 일반화되어 있었다.

1960년대

여권신장운동과 반전 시위 등 사회적 가치가 빠르게 변하던 시기로, 건축 이론계에서는 로버트 벤추리의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이 개념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실제적인 건축은 설계에서 실현까지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즉시 반영되지는 못했다. AR지는 모던한 주택 사례를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공동주택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기도 했으며, 건축사진은 역동적인 앵글과 함께 주변 사이트를 함께 보여주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Richard Meier와 Charles Gwathmey의 초기 주택 작품들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몇 년 사이에 박스 형태의 건물로부터 형태적, 문화적, 건축적으로 탈피한 과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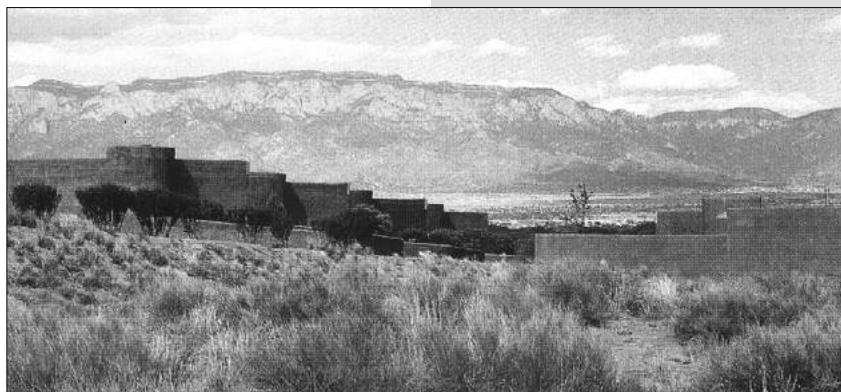
미국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정치적 격동기였던 이 시기에, 모더니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AR지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는 못했다. I.M. Pei, Philip Johnson 등 그로피우스가 교편을 잡았던 하버드 GSD 출신의 건축가들은 주택밖에 설계할 수 없었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전적을 바탕으로 여기에 도입되었던 개념들을 주택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AR지는 지역성에 바탕을 둔 시공기술, 자연재료, 에너지 절약 등 당시의 새로운 건축적 관심사를 반영한 주택을 다루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Anton Predock의 La Luz Town Houses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Venturi, Rauch and Scott Brown의 Izenour 주택 등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역사적 실험들이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던 시기였다. 또한 Frank Gehry, Arquitectonica의 주택 작품 등 다양한 양식의 주택을 다룸으로써 당시 건축설계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가치에 대한 포용력이 확대되던 시기로, 건축에서 역시 매우 다양한



Anton Predock의 La Luz Town Houses

개념과 양식의 건물들이 나타났다. 스테인드 글래스와 유기적 형태가 돋보이는 Bart Prince의 Prince House, 19세기 농장 양식을 빌어온 Tanner Leddy Maytum Stacy의 Martin Residence, 명확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모던한 양식의 Tod Williams Billie Tsien의 뉴욕 타운 하우스, 에너지 보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Georg Driendl의 Solar Tube House 등 서로 다른 개념적, 실제적 토양에서 나온 건축이 Record Houses를 통해 소개되었다. 이는 삶의 양식과 이상이 그만큼 다양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AR지는 앞으로도 당대의 건축과 주거 양식을 대변하고,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 단순히 “디자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새로운 삶을 담을 수 있는 사례들을 다루어나갈 것이다.

■ 기타

올해의 Pritzker 상 수상자로 Thom Mayne 선정 소식, 주거의 의미와 우수 저택 사례들을 다룬 저서로 Raul Barreneche의 Modern House Three, James Gauer의 The New American Dream: Living Well in Small Homes, Will Jones의 The New Modern House가 소개되어 있다.(번역 / 최원준)

au

2005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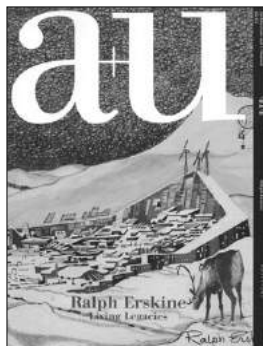
이번 호의 특집은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 출신 건축사 랄프 어스킨(Ralph Erskine,

1914~)의 작품세계를 다루고 있다. 어스킨은 1960년대부터 활발한 활동을 보이면서 다원주의적이면서 개인적인 건축세계를 펼쳐왔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그의 건축은 자연과 호흡하고 인간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담아내는 건축의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친환경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의 건축계에 살아있는 유산으로 전해진다.

랄프 어스킨의 건축

어스킨 건축의 진면모는 현재에도 1963년에 완성된 당시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스웨덴, 도르트닝홀름의 자택과 스튜디오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현재 90대 전반이라는 나이를 넘은 어스킨은 지금도 가족과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며, 이지적이면서 인간미 넘치는 디자인에 대한 변하지 않는 확신을 지니고 있다. 사무소는 현재 사회적이며 명쾌한 비전을 가진 건축에 영감을 받은 젊은 건축가들의 에너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스킨은 인접한 이 사무소와 자택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

어스킨의 60년에 걸친 활동의 궤적을 쫓아 가보면 1939년 한 사람의 영국인 건축사가 스웨덴을 목적으로 하여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어스킨은 그 곳에서 머무를 것을 결정하고 그 땅에서 주택, 집합주택, 커뮤니티를 디자인 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하우스’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사람들



이 창조적인 프로세스에 참가하여 생활 속에서 디자인을 살아 숨쉬는 것으로 유지시키는 ‘홈’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어스킨의 건축사로서의 활동이 지나는 폭 넓은 단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은 단순히 역사화된 유산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는 역동적인 창조적 과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어스킨이라는 존재의 중요성 - 데니스 샤프 (Dennis Sharp)

랄프 어스킨은 근대건축의 형성과 그 것의 발전단계였던 제2기 근대건축에서 독특한 역할을 해 내었다. 1960년대에는 팀 텐(Team X)의 회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기적이고 민주적인 서민을 위한 건축에 있어서 몇몇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그 아이디어들이 활짝 꽃피운 것을 목격하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오픈되어 있고 다원주의적이면서도 개인주의적인 건축의 기초가 되었다. 그 중 많은 수는 그의 건축에 녹아들어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인 교육, 치료, 레크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디자인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였다. 그는 도르트닝홀름에 친 환경적으로 세워진 자택(1963년)에서 시작하여 스칸디나비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 세워진 대형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택의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해 왔다. 그는 커뮤니티의 문제, 도시생활, 참가형 프로세스와 더불어 독특한 장소의 명료화, 스케일의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소재의 사용 등에 관심을 가져 왔다.

어스킨은 단독주택을 디자인할 때도, 복합적인 커뮤니티의 계획을 세울 때도 지역의 가치관이나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시하였다. 도르트닝홀름에 있어서 그는 주택 디자인 전반에 걸쳐 자신의 가족의 주거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세워나갔다. 그 안에는 개개의 기능적인 유니트(주거, 스튜디오, 차고)는 서로 분리되어 중정의 주변에 배치되었다. 그것은 이중의 지붕과 방호적인 벽에 의해 정말로 매서운 스칸디



어스킨의 자택(1963)

나비아의 기후에 견뎌낼 수 있도록 변화된 대저택과 같은 것이다.

수 년 전, 『World Architecture』에서 특집호(1990년 제6호)를 꾸미기 위해 나는 어스킨과 그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를 가졌다. 우리들은 추운 2월 저녁에 잘 정돈되고 편안한 그의 저택 라운지에서 그의 커리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들었다. 그것은 트러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스웨덴에서 1년간의 실무를 경험하기 위해 런던 리젠트 스트리트 폴리테크닉(현재의 웨스턴민스터 대학)을 떠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맞이하였다.

모국에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는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에 머물렀다. 그 후의 세월속에서 그는 「교육, 주거 그리고 도시생활에 명확한 목적을 가진 전통적이면서 지역에 뿌리내린 장소」로부터 「국경을 넘어서 소비사회」로의 커다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스킨은 특히 도시에 있어서의 전통과 문화적 연속성의 힘을 인식하였다.

피렌체에서의 도시프로젝트를 회고하면서 그

는 이렇게 말했다. “도시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창조물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목적을 지니고 걸으며, 생각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도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특히 일본이나 네덜란드에서 볼 수 있는 근대 도시의 혼란스런 상황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높은 건물은 청사나 교회 등 몇몇 고유한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업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아이크 라슨을 위한 기업프로젝트였던 해머스미스(Hammersmith)의 아크(Ark)의 프로젝트를 내게 보여주었을 때에도 그의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거대한 성공을 거둔 이 프로젝트의 어떤 디자인을 통하여 그는 ‘고층 건축’에 대한 대체물로 제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그는 교통량이 많은 다층의 도로로 둘러싸인 부지를 위해 오피스의 아트리움속에 구멍이 있는 이탈리아풍의 촌락과 경사진 곡면을 가진 외관을 디자인하였다. 그것은 강력하고 대범한 어떤 디자인이었으며, 그의 주택작품들에서 나타났던 어프로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예를 들어 뉴케슬 바이카의 집합주택에서는 일련의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건물의 새로운 구조에 적용한 건물을 디자인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여 주택지를 부활시켰다. 비록 그 새로운 구조체는 스케일에 있어서 다소 큰 것이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스케일로 나타나는 임팩트는 감소하였다. 그것은 어스킨이 지금도 환경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타협적이고도 감각적인 접근법의

훌륭한 예인 것이다.

작품 : 소개된 작품들은 어스킨의 자택(1963)을 비롯하여 가딜리우스 하우스(Gadelius House, 1961), 노드마크 하우스(Nordmark House, 1962) 등 주택작품들과 스톡홀름대학 캠퍼스(1974~1996) 건물들 등 공공건물에 이르기까지 그의 대표작들이 소개되었다. 그의 주택 작품들은 자연과 교감하고 있으며, 그의 철학대로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주택에서 묻어나오는 듯 하다. 또한 스톡홀름 대학의 여러 건물들은 20여 년간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면서 그의 건축이 현대적 재료와 젊은 파트너들의 에너지로 변모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노드마크 하우스(Nordmark House, 1962)



스톡홀름대학 캠퍼스(1974~1996)



가딜리우스 하우스(Gadelius House, 1961)

신건축

2005년 2월호

이번 호에
서는 집합주
택을 주제로
한 특집과 더
불어 2개의
개별 프로젝
트를 소개하
였다. 소개된
개별 프로젝



트는 일본다실의 현대적 재해석을 볼 수 있는
「헤이세이(平成)의 二畳台目」프로젝트와 근미
래주택의 모델을 제시한 실험주택인 「도요타 꿈
의 주택 PAPI」이다. 특히 도요타의 실험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집합주
택특집에서는 '다양화'를 주제로 최근 개발단지
의 소형화, 유니트의 다양화, 개성화가 진행되
고 있는 일본 집합주택의 경향을 소개하였다.

헤이세이(平成)의 二畳台目(茶室)

2000년 초여름 일본 川越에 있는 한 사원의
경내에는 「헤이세이(平成)의 二畳台目」라 명명
된 설계경기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불과
1평이 조금 넘는 규모의 다실 설계였음에도 불
구하고 당시 700명이 넘는 응모자가 모인 것은
절 안에 실제로 건설되는 다실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큰 이유는 일본의 다실
공간을 새로이 현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로서 일본의 건축사들에게는 모두 욕심이 나는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 설계경기의 당선자는 요
코가와 켄(横河 健)이었으며, 그의 작품은 요구
된 면적의 다실 건물과 더불어 이에 연결된 작
은 연못을 만들고, 이를 다시 기존의 세 그루의
나무와 함께 구성하여 실내화된 정원공간을 꾸
민 것이었다. 그의 작품에서는 일본의 전통 다
실건축의 미학과 현대건축의 기교가 함께 어우
러져 있으며, 전통적 소재와 현대의 소재를 함
께 써가며 새로운 현대 일본 다실건축을 재해
석 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도요타 꿈의 주택 PAPI

자동차 메이커로 유명한 도요타가 후원하여
만든 꿈의 주택 「도요타 꿈의 주택 PAPI」가 완
성되었다. 이 주택은 IT나 환경, 방법, 방화, 건
강 등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근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도요타 꿈의 주택 PAPI

주택으로서 토요타 흠이 실현한 실험주택이다.
이 꿈의 주택의 설계는 '풍요로운 2배, 환경부
담 반감(半減)'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선구자이기도한 건축사
사카무라 켄(坂村 健)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동
차제조에 관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소재개
발에서 주거환경의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응용된 것이 특징이
다. 또한 많은 관련 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신기
술의 도입과 응용은 주택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택의
실내에는 각종 센서가 부착되어 생활하는 사람
의 행동에 반응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충족시
키고 있으며, 주차장에는 도요타가 개발중인 전
기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
을 끄는 것은 이러한 첨단 기술의 이용만이 아
니다. 거주자의 만족을 위해 세심한 곳까지 신
경을 쓴 디테일의 해결, 서구식 주거와 일본의
전통식 주거가 혼합된 현대 일본 주택의 모델,
그 외에 주택에 결부된 오늘날의 여러 화두들
에 대한 해법을 실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
목할 만한 것이다. 이 꿈의 실험주택은 「愛・地
球박람회」의 개최에 맞추어 2005년 3월 25일
부터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특집 : 집합주택

이번 호의 특집은 집합주택이다. 집합주택에
대한 특집은 신건축지에 여러 차례 꾸며진 바
있었으나 이번처럼 명확한 주제 의식을 드러낸
경우도 드물다. 이번 집합주택의 화두는 '다양
화'이다. 얼마전 집합주택의 소형화 경향을 다
룬 집합주택 특집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대규모 공급위주의 집합주택에서 소규모의 다
종다양한 집합주택의 공급으로 그 경향이 전환
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규모의 공급
이 이루어지더라도 최근 완공된 「東雲캐널코
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택 유니트별
개성의 표출이나 다양화에 힘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특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좌담회의 주제 또한 '다양화하는 집합주택을
향하여'였으며, 'Renovation Style'이란 제목



헤이세이(平成)의 二畳台目(茶室)

으로 게재된 논문의 부제도 '집합주택의 유니트를 부지로 삼는다'이다. 이는 기존에 동일하게 공급되었던 집합주택의 획일적인 유니트들을 리노베이션을 통해 다양화시킨다는 요지이다. 이와 같은 주제 의식에 맞추어 소개된 작품들도 중소규모의 집합주택에서 다양한 규모와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유니트를 갖춘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3개의 개성있는 유니트타입을 갖춘 'LiF' (설계 : 스즈키 마코토 외), 도시의 작은 공지를 공유하는 배치를 보여준 '집합주택 20K' (설계 : 카타야마 코+아키텍처 워크샵), '초후의 아파트먼트' (설계 : 이시구로 유키), 직주일체(職住一體)의 도시형 집합주거를 제안한 '르 베인' (설계 : 우치다 시게루+studio 80) 등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FiZ', 'Liquid Court

House', '1227호실', '404호실' 등 집합주택 유니트의 리노베이션 사례들도 다루고 있다.

또한 이번 특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안도 타다오가 설계를 맡은 토준카이 아파트의 재건축 프로젝트 계획이다. 토준카이 아오아마 아파트는 1920년대 말에 완성된 일본의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그 건축사적 가치 또한 높은 건물로, 이 건물들을 보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일어났으나, 결국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재건축 프로젝트의 설계를 맡은 안도 타다오가 기존 건물을 뛰어넘는 역작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번역 / 강상훈)



유니트타입을 갖춘 'LiF'



'Liquid Court House'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당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9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9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시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시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합/(042)841-5725 · 청양지역회합/(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시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3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 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건축마당
현상설계
competition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청사

Korea Railroad &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new building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김두연)

대지위치 대전시 동구 소재동 대전역 구내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변경예정, 현 일반공업지역),
특별지구단위계획구역(수립예정)
용도 업무시설(공공의청사), 문화집회시설, 근린
생활시설
대지면적 약 22,407㎡
건축면적 10,237.76㎡
연면적 96,345.59㎡
건폐율 45.69%
용적률 284.41%
구조 지상 : 철골조, 지하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4층, 지상 28층
외부마감 LOW-E패턴컬러 복층유리, 패턴컬러 강화
유리, 알루미늄패널, 티타늄패널
설계팀 김상조, 일양웅, 최은석, 류무열, 구자혜,
이인수, 김정희, 류제희, 장우준, 문자윤

이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두 청사를 동일한 대지 위에 아우르는 일종의 콤플렉스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2005년에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이름이 변경되고 현재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두 청사의 원할 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대지의 선정에서 이 현상설계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선 개별 청사의 자생력과 이 두 기관의 공동사용시설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질서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조합하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했다. 새로운 청사로서의 효율적 업무공간 건립과 향후 대전역세권 개발이라는 2단계 사업의 요구가 맞물려있는 만큼, 공사와 공단 직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함께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공용시설을 포함하여, 주변 도시환경 및 질서를 유지하도록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건축물의 제시가 완성될 2년 후 랜드마크적인 사옥의 힘있는 창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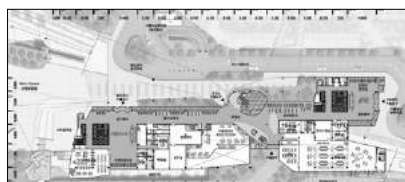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청사	094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102
이천 시립 월전미술관	104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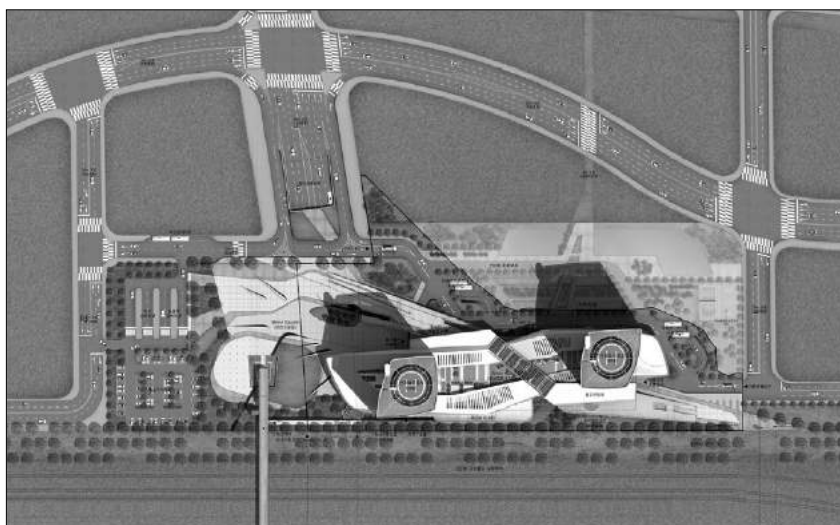
인 미래상을 그리는 우리의 목표였다.

새로운 동기로 인해 새로운 길로 들어선 한국철도 신청사는 많은 이들에게 그 균형과 조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1세기의 신청사가 들어설 대지의 의미는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현재한 문제들을 타개하고 한국철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한국 운송수단 자체의 미래상을 그려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는 한국철도 신청사는 한계를 지닌 철로에 국한된 유희성을 담보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신청사가 표방하는 시각적인 메시지는, 우주로 나아가는, 떠있는 철로(Floating Railway)를 통해 땅에 종속된 철로의 궤적이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를 상징한다. 떠있는 고리 즉, 모비우스의 띠(Mobius Strip)는 연속적 레일의 흐름으로 영원히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의 운송수단을 표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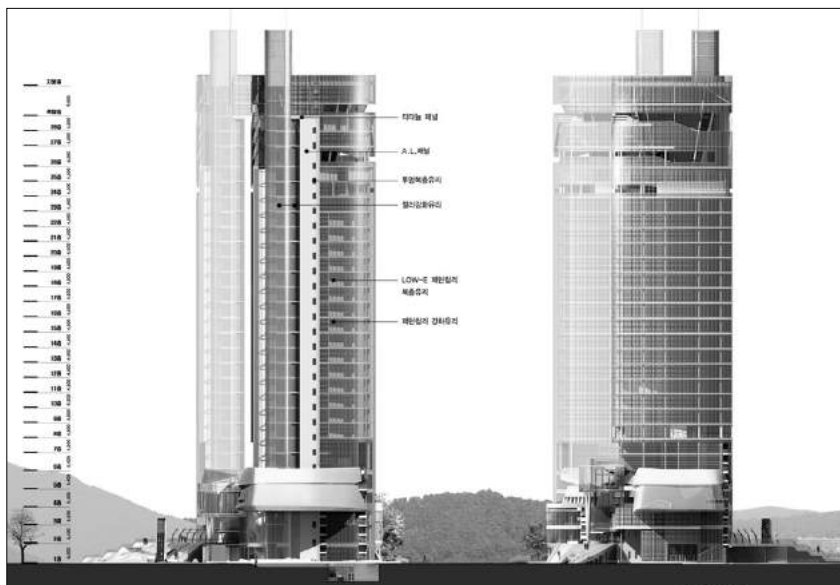
한국철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공사와 공간, 이들은 상호 보완적 공존을 제시해야 한다. 남북을 잇는 철로와 대지로부터 유기된 떠오르는 철로는 두 개의 규범적 타워를 통해 통제된다. 무한한 미래의 운송수단을 통제하는 두 개의 타워는 과거(대지)-현재(철로)-미래(떠있는 철로)를 엮어준과 동시에 대지 전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변화의 흐름의 선두에 서 온 한국철도 신청사는 단순한 속도와 정확성을 넘어서 확장해가는 철로를 매개로 한 한국수송수단의 미래상이 된다. 합리적 가능성이 유지된 가운데 표현되는 움직임과 연속성 같은 미래의 행방을 쥐고 있는 결정 요인들에 의해 신청사는 사람들에게 최초로 받는 인상 즉, 새로운 길(New Railway)로 각인될 것이다.



1층 평면도



배치도



남동측입면도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청사

Korea Railroad &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new building

우수작 / (주)원양건축사사무소(이종찬, 성진웅, 박기성) + 제이.유 건축사사무소(박제유)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 대전역 구내
대지면적 22,407m²
건축면적 5,960.39m²
연면적 92,179.75m²
건폐율 26.60%
용적률 411.39%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3층, 지상23층
외부 마감 고밀도 목재패널, 노출콘크리트, THK6 세라믹 FRT 코팅유리, THK24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원양건축-김태명, 심재한, 이정우, 최준섭, 강미주, 김봉진, 김중수

파노라마적 인식 (SEQUENCE)

열차속에서 풍경이 끊임없이 사라지고 다가오듯 대전역 철로변에 면한 대지의 해석과 볼륨의 설정에 있어서 여러 방향에서 변화있게 보여지는 청사의 인지성을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접근하였다.

시점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이 느껴질 수 있는 파노라마적인 형태를 연출함으로써 스쳐 지나가는 빠른 스피드의 기차속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입면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본다.

구부러지고, 교차하고, 여러갈래로 나뉘어지는 변화있는 철로 궤도의 선들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시도를 통하여 파노라마적 인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 볼륨을 구성해본다.

평행한 선로의 진화를 통한 선형의 조합을 바탕으로 재조립된 선형의 Code로 구성되어진 하늘을 향한 수직적인 타워 볼륨의 운동감있는 선형은 보는 시점에 따라 때론 평행하게, 때론 교

차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인지되며, 이러한 입체화된 역동적이고 연속적인 선들에 의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미래지향적 청사의 비전을 유연한 움직임의 랜드마크 이미지로 제안해본다.

기억의 테, 모임의 장, 흐름의 길(CULTURE CONCOURSE)

기존 대지내에 존치되어 있던 철로의 흔적을 재현하는 건축적 장치로써 장소성을 해석하고, 기억의 흐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을 가로지르는 투명한 Tube의 '콘코스'로 재현해본다.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사람들의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문화교류의 장으로써, 사람을 이어주는 기억의 테(Community), 공용 지원시설의 거점으로써의 모임의 장(Hub), 외부 공간으로 확장되는 투명한 판(Void), 프로그램을 엮어주는 흐름의 길(Street)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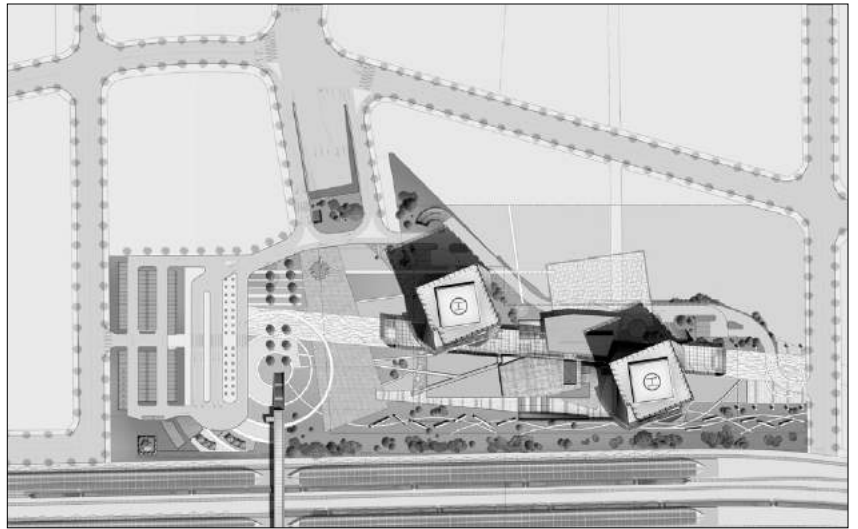


환경 조절장치 (GREEN FILTER)

철로변과 서측에 면하여 있는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적 장치로써 이중 외피를 구성한다.

타워동 볼륨과 이격하여 설치된 이중 외피를 통하여 철로변 기차소음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효과와 더불어, 서향 일사에 대한 자연광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Green Filtering 개념의 수목 식재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도시내 푸른경관을 제공 한다.

또한, 광장과 철로변 사이 들꽃마당의 Media Wall과 Green Wall에 의한 소음여과 효과와 열차속 풍경에서의 경관조명과 그래픽 홍보 효과를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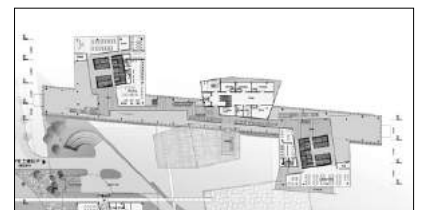
배치도



정,좌측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청사

Korea Railroad &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new building

가작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윤세한)+
장윤규(국민대 건축대학 교수)+운생동
건축사사무소(신창훈)

대지위치 대전시 동구 소제동 대전역 구내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22,407㎡
건축면적 11,040.33㎡
연 면 적 94,058.75㎡
건 폐 율 49.27%
용 적 률 273.14%
규 모 28층
주차대수 793대(지상40대, 지하 753대)
외부마감 이중외벽시스템(강화,복층유리), SST패널,
적삼목
설 계 팀 남기홍, 김태만, 박병배

LANDSCAPE PODIUM

녹지와 공원 등 주변 환경의 자연요소를 건축 내부로 침투시키는 매체로서 저층부에 Landscape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전면광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대지의 흐름을 수용하고 유지함으로써 문화네트워크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동서를 연결하는 녹도와 고속철도 역사로부터의 보행자데크를 수용함으로써 철로로 단절되었던 대전의 구도심과 신도심이 만나는 입체적 흐름을 제공한다.

INTERACTIVE VOID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평, 수직 교차공간으로 내부 공간의 상호소통을 위한 새로운 공간연출을 기대한다.FLOW

홍보관은 단독 또는 합동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공사와 공단이 공유하는 상호교류와 화합의 장을 제공한다.

URBAN VOID

다양하고 창의적인 오피스 랜스케이프가 반영된 Urban Icon은 수직적인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두개의 오피스동은 거점도시 대전의 경관축에 위치하여 게이트웨이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Green Matrix

오피스의 친환경적 공간을 위한 Eco Zone이 Vertical Spectrum을 구성하는 하나의 건축적 공간요소로서 삽입되고, 저층부의 띠채 Deck System을 통해 건물전체로 확산되고, 이러한 수직수평적 네트워크는 건축의 내부공간을 자연속의 일부로 만드는 Green matrix를 완성시킨다.

SPECTRUM TOWER

자연과 함께하는 업무공간. 상상력과 창의력을 불어넣는 자유로운 사색공간.



LIGHT SCULP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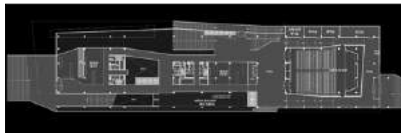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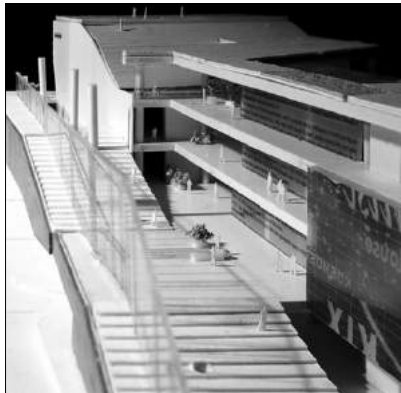
내부기능과 공간을 표현하는 다양한 코드와 색채는 빛조각의 변화하는 이미지를 표출한다.

빛의 연출을 통한 야경은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스펙트럼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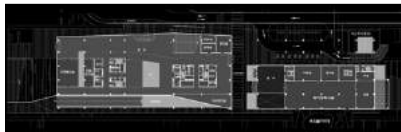
MEDIA STREAM

빛, 정보, 이벤트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는 철도공사·공단인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전달한다.

고층부로부터 저층부까지 연속된 Media Wall은 대전역 이용객 및 지역 커뮤니티에 입체적인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고, Gallery 내부의 사용자들은 역동적 미디어 이미지 구축의 일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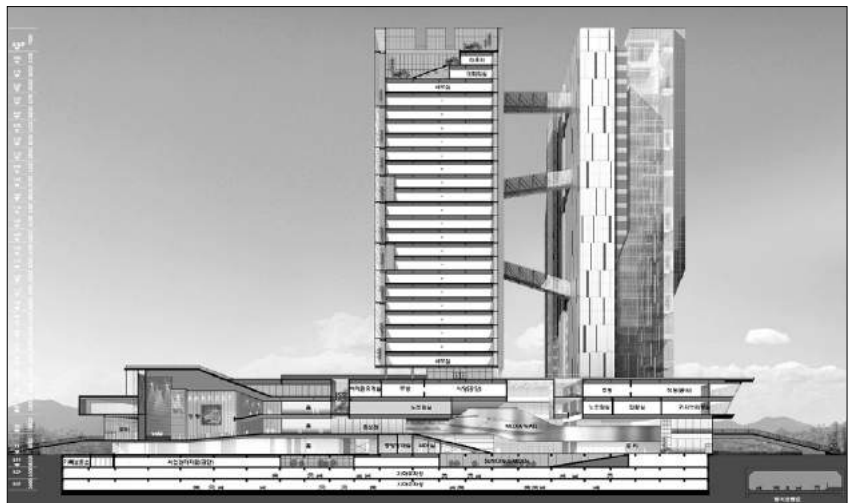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청사 Korea Railroad &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new building

가작 / (주)해원까지종합건축사사무소(서진철)
+ (주)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김종국) +
신화엔지니어링(김인수)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 대전역 구내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22,407㎡
건축면적 7,609.41㎡
연면적 65,994.89㎡
건폐율 33.96%
용적률 294.53%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26층
외부 마감 THK30 화강석 버너구이, THK24 로이복층
유리, THK12 강화유리
설계팀 해원까지 : 장영생, 박정근, 박무룡, 김동원,
김기성, 방승룡, 민지연
건원 : 함인선, 최봉열, 이창훈, 양민규, 김용하,
신중호, 심기홍

Urbanism

대전의 원도심은 부지와 철도에 의해 단절되어 있다. 원도심에서 보았을 때 L(니은) 자가 잊혀지게 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목표이었다. 이는 대전역 서광장이라는 좁은 시각통로 사이로만 이 부지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석재마감으로 된 L자형 볼륨은 유리 타워들이 하늘에 묻히는 사이에 번쩍 눈에 띄일 것이다.

이 볼륨이 대전 서측 원도심에서의 인지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대전역 동서를 잇는 장치가 있어야 할 터인즉 역사의 지붕 역할도 하면서 철도에 의해 단절된 동서 광장을 이어주는 판을 도입하게 되었다. 아울러 부지 주변의 주요한 결절점들과 건물을 연결시키는 판들도 고안되어 결국 건물은 도시판들(urban plates)의 조직위에 자리 잡게 된다.

Du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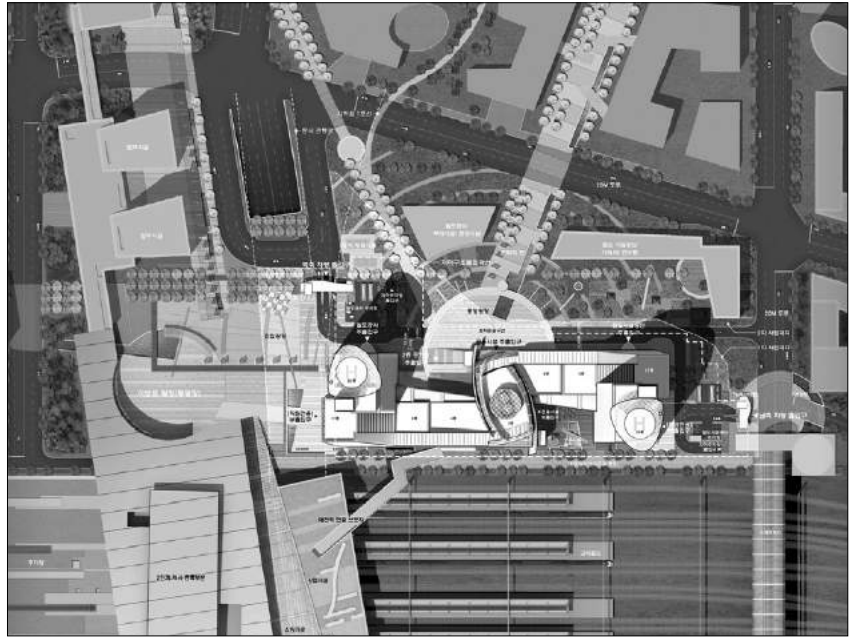
공사와 공단 두 건물이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일 수 있는 방법, 남북으로 병치되어 있으면서도 동서 방향에 대해서도 균등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어느 방향에서도 배면이 생기는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양의 축 개념이 가지는 선 대칭성 대신 동양의 괘 개념이 가지는 점 대칭성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점대칭적 구성을 가짐으로 하여 공사는 서측에 대하여 공단은 동측에 대하여 독자적 정면성을 가지는 동시에 중앙부를 overlapping하며 공유함으로써 전체 길이를 반분한 것보다 훨씬 긴 포디움을 지나는 효과도 얻게 된다. 아울러 각 동은 지반층에서 독자적인 영역(dual courts)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두 회사의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보장해줄 과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엮여져 있음을 표현한다.



Symbolism

철도공사의 소프트웨어적 성격과 시설공단의 하드웨어적 성격은 각각 유리의 비물질성과 석재의 물질성으로 상징된다. 서로 다른 두 재료의 pillar는 juxtaposing - bending - slicing - swapping - tilting의 형태 조작을 통해 변증법적인 형태 발전을 이루게 되며 중앙부에 공용시설인 대극장과 보육시설이 삽입됨으로써 통합을 완성한다. 이 같은 은유적 상징성과 더불어 이 계획은 여러 직유적 상징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바 기차의 바퀴 및 속도감, 화차의 불, 수증기를 암시하는 요소들이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리로 된 나비 모양의 헬리포트는 동북아 물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대극장을 휘감는 유리벽의 스파이럴 형태는 두 회사의 synergic energy를 표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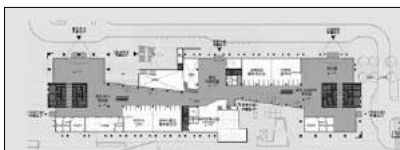
배치도

Function

L자형의 매스는 형태적으로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업무 기능과 기타 기능을 통합시킨다. 이 볼륨의 수직 부분에는 협력적 업무 공간이, 수평 부분에는 회의 및 전시, 공용 기능이 담긴다. 또한 cascade형으로 전개되는 면을 따라 각층에서 독립적인 옥상 정원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생태적인 연속성을 아울러 제공하게 된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Yoksam 1-dong Culture Centre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턴키)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9-20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 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3,382.40㎡

건축면적 1,449.88㎡

연 면 적 10,454.25㎡

건 폐 율 42.9%

용 적 륜 137.82%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3층, 지상 5층

외부마감 컬러복층유리, 투명복층유리, 패턴컬러복층 유리, AL패널

설 계 팀 박희준, 백승욱, 김형배, 이정원

설계배경

강남구청에서 발주, 이전의 몇차례 같은 용역방식 (1차 P.Q심사, 2차 T.P심사)의 현상설계에서 당선 하지 못한 건원 CM측에서 자사 설계부의 디자인 미흡에 대한 대책으로 희림에게 디자인을 의뢰하였다.

밀집된 도심의 대지는 정복일조건에 의해 건물이 설 수 있는 부분과 건물 높이까지 제약받게 되어 매스(Mass)를 프로그램에 의해 이분화 한 디자인 상 계속 고민해야 하는 문제였다. 기존의 동사무소의 민원기능과 이와 독립적으로 시간대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 이용되어질 수 있는 문화시설, 복지시설의 기능을 고려, 가로변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1층에 민원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층부 매스를 이원화하여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나누어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두 매스 사이에 아트리움을 계획, 중심 코어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하 전층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삼각형의 대지형태와 두 개로 벌어진 매스의 주열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대지 정면 20m 도로가 주변 고층 건물로 인해 협곡화되어 공공기관으로서 Open 공간을 제공해주되 무의미한 광장보단 이벤트 성격이 분명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테헤란 밸리라는 첨단 업무지역 특성에 맞게 미래지향적, 친취적 이미지 구현과 동시에 지역 주민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활기차고 개방된 공간을 위해 하이테크 경량재를 사용하였다. 다소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커튼 월에는 다양한 컬러패턴 유리를 구성함으로써 도시 가로에 생동감을 주고자 하였다.

설계소요

대한민국 도시 인프라의 핵심이며, 첨단 IT 벤처 도시인 테헤란밸리의 큰 물결속에 대지가 연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계획의 발상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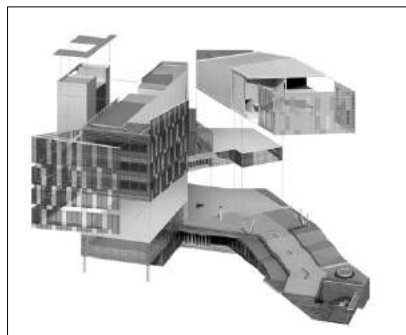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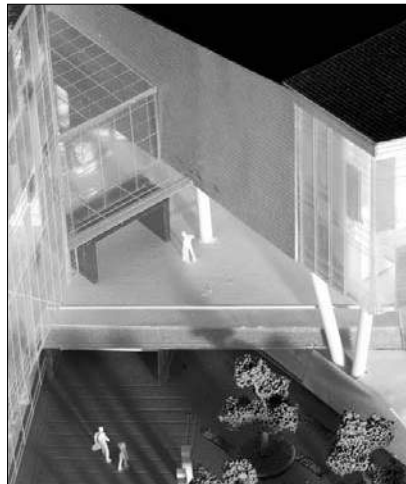
도시·문화·인간을 수용하는 축 선상에 보행자 환경을 우선시하며, 강한 흡입력이 있는 자연공간인 열린마당을 중심으로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상징하는 두 매스로 분할하였다.

전체 평면개념으로는 행정·문화·복지시설의 연계성을 높인 입체적 공간개념을 도입하였다.

전체 외벽은 커튼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북서측 파사드는 부분 더블스킨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향에 다른 일사량 조절과 동시에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배치도



입면도

이천 시립 월전미술관

Icheon municipal Woljeon Museum

당선작 / (주) 삼우동인 건축사사무소(한상목) +
Parker Durrant
International(Stephan Huh)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378번지의 6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건축면적 1,160.67㎡
연 면 적 1,981.40㎡
건 폐 율 12.21%
용 적 륜 20.0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일부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내부마감 Wood flooring, 카펫타일, P.E타일, 대리석
패턴갈기, 환경친화성 수성페인트, 비닐페인
트, 흡음천정재, 석고보드외 VP
외부마감 라임스톤, THK24 투명복층유리, THK12투
명강화유리
설 계 팀 이석렬, 강종현, Sae M.Oh(P.D.I.), 권현준,
강창수, 임건영, 정재수

계획개념

- 음과 양의공간 : 설봉공원이라는 자연적 입지를 고려하여 양의 건물(미술관 전시실부분)과 음의 외부 자연공간(원형의 월전광장)이 서로 관입하여 조화를 이룰수 있게 계획
- 달의 공간 : 원형의 광장을 통해 광장내 수변공간을 조성, 수면에 비친 달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공간
- 학이 비상하는 공간 : 작가가 즐겨 그리던 학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학이 비상하는 날개짓을 모티브로 삼아서 미술관으로 진입을 위한 원형의 광장 및 계단을 계획

배치계획

- 축(Axis) : 설봉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하고 대지의 선적흐름에 대응하는 역동적 이미지를 추구한다.
- 연계(CONNECTION) : 미술관을 중심으로 진입

부의 월전루와, 원형의 월전광장 그리고 작가작업실을 대지의 경사에 순응하며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배치한다.

- 진입(ENTRY) : 관람 및 보행자 동선과 차량, 서비스 동선의 이원화를 통한 공원내 시설들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는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상징(IDENTITY) : 월전을 형상화할수 있는 모티브를 부여하고 설봉공원내 Land mark로서의 이미지를 가질수있게 계획한다.

동선계획

- 차량동선 : 기존의 8m도로를 주진입도로로 이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의 공용주차장에 소요주차를 별도로 두 곳(미술관, 별관동)에 분산 배치한다.
- 진입동선 : 진입동선을 여러 곳(월전루, 공용주차장, 미술관 후면, 작가 작업실)으로 분리함으로써 다양한 접근동선을 통한 관람객의 분산



과를 유도한다.

- 보행자 동선 : 주변의 자연요소들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풍경을 연결하는 산책로가 될 수 있는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 수직동선 : 관람자가 자연스러운 흐름속에서 전체 전시매체를 관람하도록 유도하고 관람객과 관리자 및 수화물의 수직 서비스동선을 분리한다. 또한 필요시 옥외계단을 이용하여 외부공간의 연속성을 유도한다.
- 휴관후 동선계획 : 전시실 휴관 후에도 카페테리아 등의 수익시설은 상시 이용할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 동선계획 : 월전광장의 진입계단을 따라 램프설치 및 내부 승강기와 후면 주차장을 통한 출입구 등에 램프설치

평면계획

- 전시실은 2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 대여전시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람중에 휴식을 위하여 Skip level에 휴식과 조망을 위한 외부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작가 작업실로 연결되는 경사 브릿지를 계획하여 이동의 원활함을 도모한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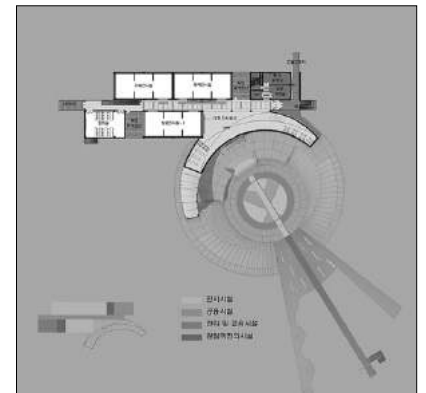
- 진입부의 투명한 커튼월의 오브제를 구성하고 이것은 다양한 이미지의 조형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외부공간의 상상에 따른 위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매스 상호간에 중첩을 통해 공간의 변화를 구성한다.

단면계획

- 경사지라는 지형에 순응한 적절한 Level상정과 설봉공원의 Sky line에 부합되는 높이를 계획하고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전시공간을 연결하는 복도를 자연채광의 도입으로 복도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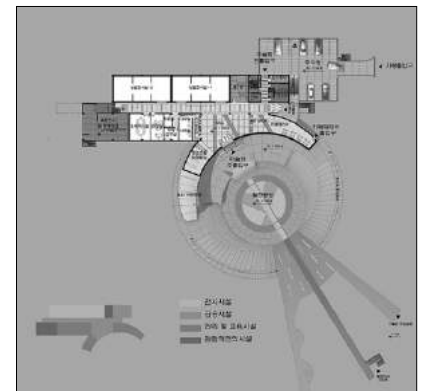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입면도



1층 평면도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Wa-hyeon Village Moving 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

당선작 / (주)도울건축 건축사무소(채일석)

대지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367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15,767㎡
건축면적 마을회관 : 112.07㎡
 화장실+샤워장 : 84.07㎡
 화장실+관리실 : 112.28㎡
연면적 마을회관 : 213.82㎡
 화장실+샤워장 : 126.85㎡
 화장실+관리실 : 114.74㎡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상 2층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외단열시스템, 점토벽돌, 적삼목
행렬과배치 윤영오 교수(서울시립대)
주거평면지문 여영호 교수(고려대학교)
설계팀 강상룡, 이승수, 김명오, 강산혜, 김조영, 김광수, 김성규, 조주희, 황세희

계획의 목적

2003년 여름 태풍 제14호 '매미'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우선 상습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주변여건과 어우러진 맞춤형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천혜의 여름휴양지인 와현해수욕장 주변을 시범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내 제일의 해수욕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거제 관광의 인프라가 구축돼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 계획은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강압적이 아닌 방법으로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은 이를 토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민·관이 협동하는 방식의 미래형 전원주택단지 개발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의 대상지

경상남도 거제도 일운면에 위치하며 계획부지 인근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이 지역의 최초 원주민들로서 조금은 낙후된 지역이다. 남쪽, 남동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북서쪽에는 조금은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계획지 도로는 태풍이후 도시계획에 의해 정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의 방향

질적 program

— 공간적으로는 지역 특성상의 이점과 개인주택의 장점을 가진 전원형 주택이라 해석할 수 있다. 관광지 주변에 위치하므로 주거공간은 지역적 특성속의 번잡함과 독립되는 대지 내 위치와 형태적 이미지를 가지며, 해안은 노출된 위험 속에서 새로이 받아들임으로서 지역주민과 공유되게 한다.



양적 program / space program.

- 주거평면 type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인
시하여 환경 공생적 차원에서 자연을 주호 내부로
인입시켜 일조와 통풍의 조절이 용이한 garden
house 형태의 주거로 계획

거주자의 life style이 반영된 주택으로 농촌해안지역
(관광지)에 위치하는 주택으로서의 기능 속에서 인
간과 인간, 사물과 인간, 그리고 정보 통신의 합류점
을 찾으려는 본질적인 개념의 도입으로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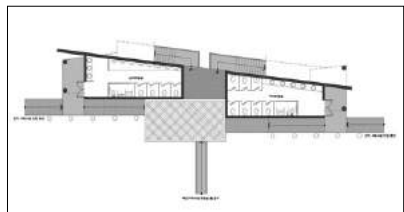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4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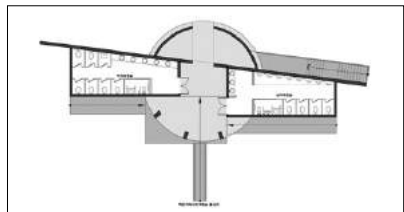
입단면도(40A)



1층 평면도(화장실+사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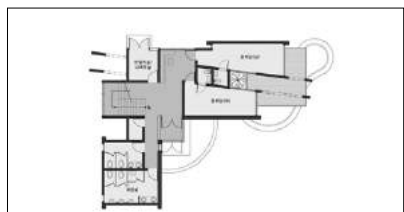
입단면도(화장실+사위실)



1층 평면도(화장실+관리실)



입단면도(화장실+관리실)



1층 평면도(마을회관)



입단면도(마을회관)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Wa-hyeon Village Moving 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

우수작 / (주)예성토탈 건축사사무소(설종국)

대지위치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367번지 일원

용 도 주택

건축면적 마을회관 : 127.33㎡

화장실 A형 : 72.83㎡

화장실 B형 : 72.8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상 2층

주요마감 주택 : 외부 - 합성수지계 뿔칠, 목재사이딩

내부 - 벽지

마을회관 : 외부 - 합성수지계 뿔칠

내부 - 수성페인트, 벽지

화장실 : 외부 - 목재사이딩, 노출콘크리트,

타일

내부 - 합성수지계 뿔칠, 세라믹타일

설 계 팀 서성득, 정현수

단지배치개념

- 단지형상을 고려한 배치 및 mass를 구성하고, 단지 축에 순응하는 건물을 배치.
- 대지에 순응하는 수평적 mass의 통일성과 변화에 의한 단지 내 각 시설물별 인지성 확보.
- 단지 축에 순응하고 개방감, 조망권, 정면성, 상징성 확보

외부공간 계획

- 생태적 경관, 조경적 경관 창출을 위한 외부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고 바다경관의 연속적 전개가 이루어지는 공간전개로 주위의 환경과 어울리는 외부공간 계획

주거동 계획

- 주민공간, 민박이용자 공간, 상가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유연한 평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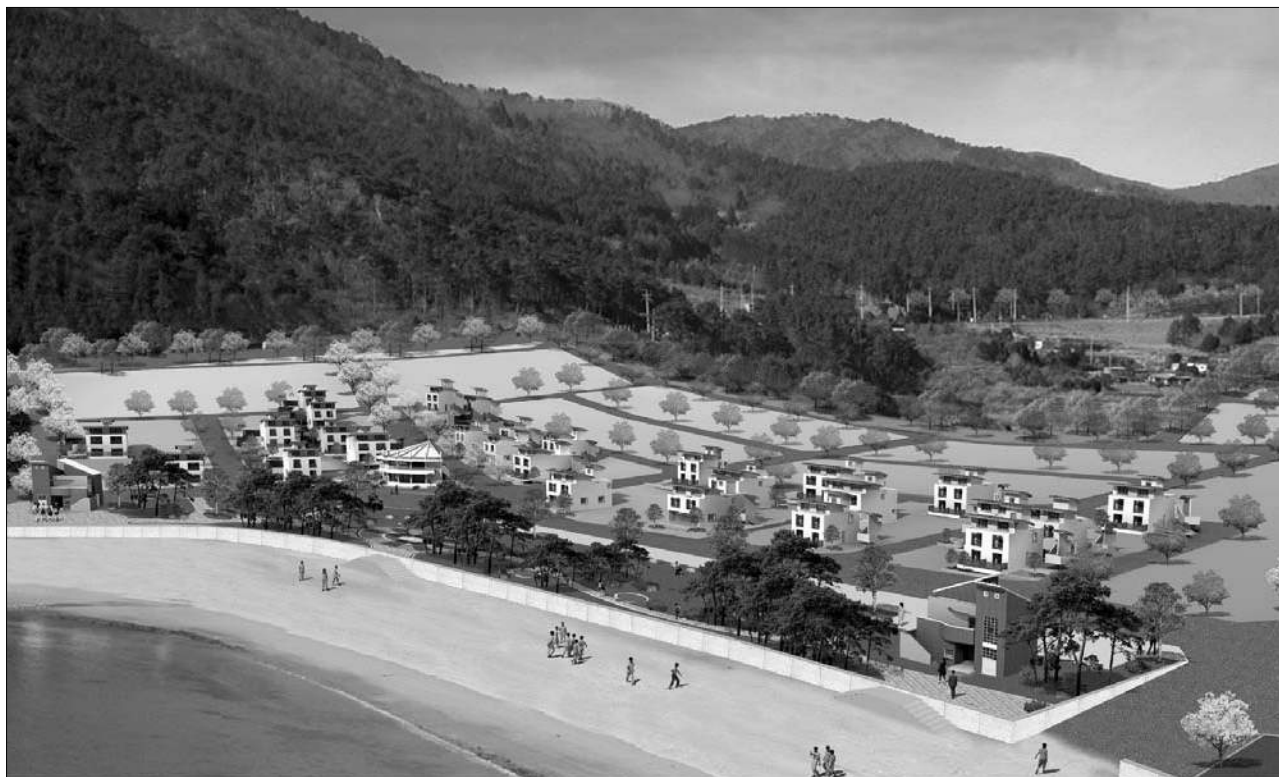
- 각 시설간의 이용 동선의 원활한 진입고려
- 주변환경질서를 채운한 조형적 개념으로 형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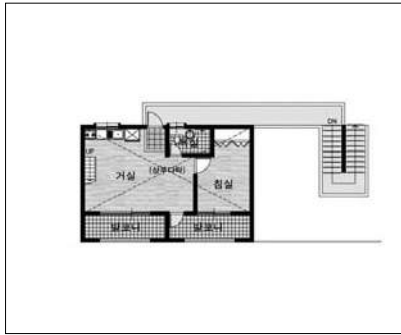
마을회관 · 노인정동 계획

-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조경과 보행로를 확보하여 보행자의 접근을 쉽게 함
- 쾌적한 실내환경과 자연채광 및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평면 구성
- 정면성,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형태를 계획하여 인지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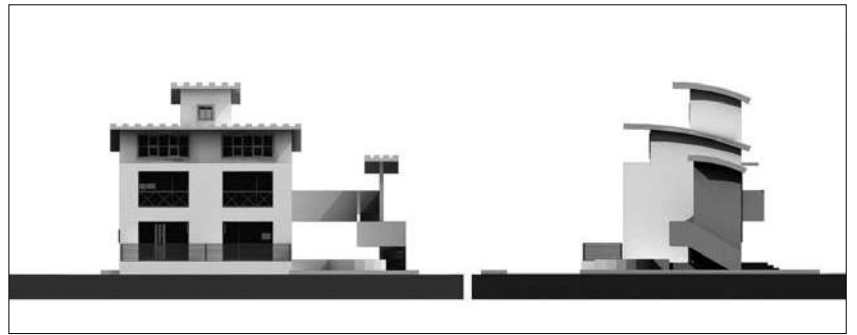
화장실 · 관리동 계획

- 공간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조망 및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식별성을 높이고 단순한 동선체계로 안정성 확보
- 효율적 공간구성과 구조 · 설비의 합리성, 적절한 층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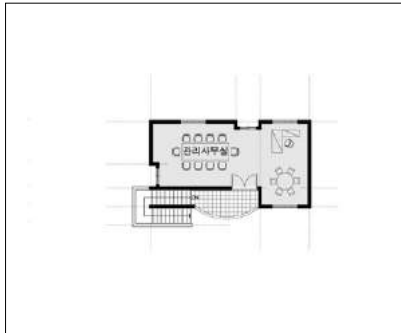




25평 A형 일반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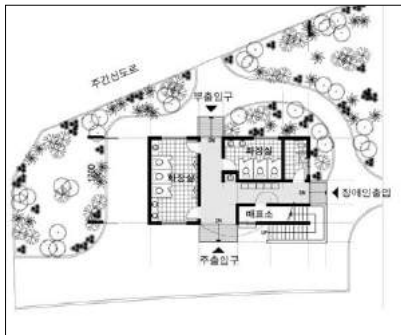
25평 A형 일반주거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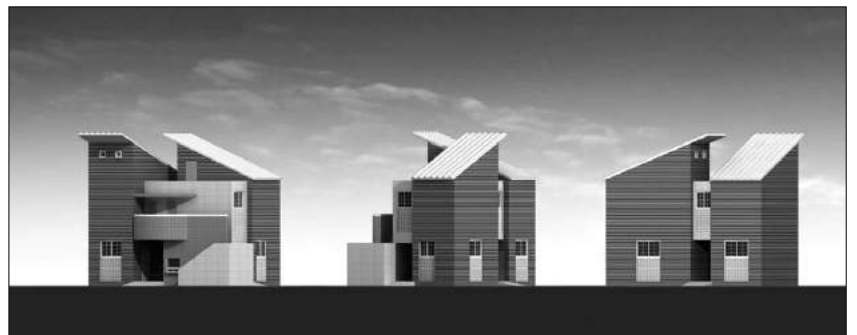
2층평면도(화장실+관리사무실)



입면도(화장실+관리사무실)



1층평면도(화장실+사위실)



입면도(화장실+사위실)



1층평면도(마을회관)



정면도(마을회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33호, 2005. 4. 6.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력부분(耐力部分)”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自重)·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그 밖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응력(應力)”이라 함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 말한다.
3. “허용응력도”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각 재료의 하중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재단면의 각 부위에 생기는 응력도가 최대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한계응력도를 말한다.
4. “구조내력”이라 함은 내력부분인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7. “허용응력도설계법”이라 함은 탄성(彈性)이론에 의한 구조해석(構造解析)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도가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8.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이하 “강도설계법”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거동(非彈性舉動)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단면의 공칭강도(公稱強度)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 강도의 값이 계수하중에 의한 부재의 응력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9. “고정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이에 부착·고정되어 있는 비내력부분 및 각종 시설·설비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10. “적재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 실별·바닥별 용도에 따라 그 속에 수용되는 사람과 적재되는 물품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11. “등가정적해석법(等靜的解析法)”이라 함은 지진력을 정적인 횡력으로 계산하여 건축물의 지진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동적해석법(動的解析法)”이라 함은 지진력을 구조동력학이론으로 평가하여 건축물의 지진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조설계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건축법」 제59조의3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축구조설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21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2

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 ③ 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2장 구조계산 및 하중

제1절 통칙

제4조(구조설계의 원칙) ①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그 밖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내력부분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顛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5조(구조부재의 강성 및 내구성) ① 건축물의 내력부분에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韌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내력부분으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

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구조계산 등

제6조(구조계산) ① 「건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도설계법에의하거나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구조계산법에 의한다.

- ② 허용응력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구조해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을 사용하여 산정할 것
 2. 구조부재의 설계응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산정된 응력의 조합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으로 할 것
 3. 설계응력을 산정할 때에는 적재하중의 부분적인 불균등하중의 분포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것
 4. 지진하중은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응력으로 인한 구조부재단면의 장기 및 단기의 응력도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정하는 허용응력도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③ 강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

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설계하중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에 하중계수를 곱한 계수하중을 사용하여 산정한 응력의 조합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으로 할 것
2. 내력부분의 계수하중에 의한 설계응력은 그 부재단면의 공칭강도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 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강도설계법에서 사용되는 하중계수·강도저감계수 그 밖에 구조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4. 지진하중은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제7조(구조안전의 확인) 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 1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절 하중 및 외력

제8조(적용범위) ①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② 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 및 외력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하중 및 외력) ① 건축물의 구조계

산에 적용되는 설계하중 및 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토압 및 수압
7. 온도하중
8. 유체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에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토압 · 수압 · 진동 ·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고정하중) 건축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실제의 상태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적재하중) 적재하중은 등분포적재하중과 집중적재하중으로 구분하며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등분포적재하중은 별표 3에 의한다.

제12조(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은 별표 4에 의한다.

제13조(풍하중) 풍하중은 구조골조용 풍하중, 지붕골조용 풍하중 및 외장재용 풍하중으로 구분하며 지역별 기본풍속은 별표 5에 의한다.

제14조(지진하중) ① 내진설계를 하는 건축물은 지진하중에 의한 밀면전단력, 층지진하중(層地震荷重), 층전단력, 수평비틀림모멘트, 전도모멘트 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그 밖에 층간변위와 건물 분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밀면전단력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값은 별표 6에 의하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른 중요도계수

의 값은 별표 7에 의한다.

③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가 특 또는 1에 해당하는 구조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적해석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높이 70미터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2. 높이 20미터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비정형 건축물

제15조(토압 및 수압) ①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하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하외벽의 설계시 토압하중, 수압하중, 지표면에 재하(載荷)되는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의 영향을 고려할 것

2. 지하수위 이하의 토압계산시 부력에 의한 흙중량의 저하와 수압을 동시에 고려할 것

② 흙에 접하는 바닥구조체는 최하부 바닥의 전 면적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제16조(온도하중) 건축물의 설계시 온도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유체압) 지상에 있는 용기로서 수조, 기름탱크 등은 유체압이 작용하는 구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반의 허용지내력도) 지반의 허용지내력도(許容地耐力度)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기초) ① 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 직접 전달시키는 확대기초로 하되,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의 압력이 허용지내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말뚝의 내력이 말뚝의 허용내력과 허용지내력중 작은 값이어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제1절 통칙

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 · 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 · 보강블록구조 · 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2절 목구조

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 · 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 목재로 된 내력부분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가새) ① 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끝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내력부분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새에는 파내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방부조치) ①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가새 및 토대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부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적식구조

제28조(적용범위) ① 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내력부분이 아닌 조적식구조의 칸막이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

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① 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30조(기초) ①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① 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11미터 이상	
	벽의 길이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이상
총별	1층	15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230밀리미터
두께	2층	-	-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③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32조(내력벽의 두께) ①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 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

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총별	1층	190밀리미터	230밀리미터
두께	2층	-	190밀리미터

⑤ 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제33조(칸막이벽 등의 두께) ①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

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층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 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개구부) ① 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 ② 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조적식구조인 내어민창 또는 내어쌓기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36조(벽의 흠)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 이상인 연속한 세로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흠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하고, 가로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흠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객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내력부분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내력부분은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제4절 보강블록구조

제41조(적용범위) ① 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 ②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

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3조(내력벽) ① 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②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층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제46조(준용규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 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절 콘크리트구조

제47조(적용범위) ① 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 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 ①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週) 압축강도는 15메가파스칼(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1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설계기중강도에 맞도록 골재 및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 및 시멘트의 배합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 및 시공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까지(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압축강도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 5일간)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① 내력부분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푸집 및 받침기둥을 존치시켜야 할 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양생의 방법 및 환경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흠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가. 직경 2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 60밀리미터 이상

나. 직경 16밀리미터 초과 29밀리미터 미만의 철근 : 50밀리미터 이상

다.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철근 : 40밀리미터 이상

2. 옥외의 공기나 흠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경우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제52조(보의 구조) 내력부분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능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 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내력부분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4조(내력벽의 구조) 내력부분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제3절(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구조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진구역(제7조제1항관련)

지진구역	해 당 행 정 구 역
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상남도
Ⅱ	강원도 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전라남도 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제주도

[별표 2]

중요도(제7조제1항관련)

중요도	특	1	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병원·방송국·전신전화국·소방서·발전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아동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5층 이상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 및 아파트 - 3층 이상의 학교	중요도 특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별표 3]

등분포적재하중(제11조관련)

(단위 : kN/m²)

종 류			건 축 물 의 부 분	적재하중
1	주택		가.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공용실, 복도	2
			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3
2	병원		가. 병실과 해당 복도	2
			나. 수술실, 공용실과 해당 복도	3
3	숙박시설		가. 객실과 해당 복도	2
			나. 공용실과 해당 복도	5
4	사무실		가. 일반 사무실과 해당 복도	2.5
			나. 로비	4
			다. 특수용도 사무실과 해당 복도	5
			라. 문서보관실	5
5	학교		가. 교실과 해당 복도	3
			나. 로비	4
			다. 일반 실험실	3
			라. 중량물 실험실	5
6	판매장		가. 상점 및 백화점(1층 부분)	5
			나. 상점 및 백화점(2층 이상 부분)	4
			다. 창고형 매장	6
			가. 로비, 복도	5
7	집회 및 유흥장		나. 무대	7
			다. 식당	5
			라. 주방(영업용)	7
			마. 극장 및 집회장(고정식)	4
			바. 집회장(이동식)	5
			사. 연회장, 무도장	5
			가.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5
8	체육시설		나. 스탠드(고정식)	4
			다. 스탠드(이동식)	5
			가. 열람실과 해당 복도	3
9	도서관		나. 서고	7.5
			가. 승용차 전용	4
10	주차장	옥내 주차구역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8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2
			가. 승용차 전용	6
		옥내 차로와 경사로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0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6
		옥외	가. 승용차,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2
			나. 총중량 18톤 이하의 트럭 용도	16
11	창고		가. 경량물 저장창고	6
			나. 중량물 저장창고	12
12	공장		가. 경공업 공장	6
			나. 중공업 공장	12
13	지붕 및 옥상		가. 접근이 곤란한 지붕	1
			나. 적재물이 거의 없는 지붕	2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5
			라. 헬리콥터 정착장(대형인 경우 제외)	5
14	기계실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5
15	광장		옥외광장	12

[별표 4]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제12조관련)

(단위 : kN/m²)

지 역	지상적설하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춘천시, 서산시, 청주시, 포항시, 군산시, 전주시, 충무시, 목포시, 여수시, 제주시, 서귀포시, 진주시, 울진군, 이천시	0.5
인천광역시	0.8
속초시	2.0
강릉시	3.0
울릉군, 대관령(강릉시 성산면, 평창군 도암면)	7.0

※ 위 지역외의 지역은 지상적설하중 값을 0.5kN/m²로 하되, 실제의 조사·연구에 의한 수직최심적설 깊이 및 눈의 평균 중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별표 5]

지역별 기본풍속(제13조관련)

(단위 : m/sec)

지 역		기본풍속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구리시, 오산시, 평택시, 시흥시,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안성시	30
	양평군,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군, 파주시, 광주시, 여주군, 이천시	25
강원도	속초시, 강릉시, 양양군	40
	고성군(거진읍, 간성읍), 동해시, 삼척시	35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인제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원주시, 평창군, 홍천군	25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천군(장항읍)	40
	태안군, 서산시, 청주시, 보령시(대천읍), 서천군, 태안군 (안면읍), 연기군(조치원읍), 천안시, 홍성군, 아산시	35
	대전광역시, 당진군, 천안시(성환읍), 진천군, 증평군	30
	음성군, 청양군, 금산군, 영동군, 공주시, 논산시, 제천시, 충주시, 부여군, 보은군, 단양군, 괴산군, 옥천군	25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포항시, 울릉군, 경주시(감포읍)	45
	부산광역시, 김해시(외동)	40
	울산광역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해시, 김해시, 마산시, 창원시, 양산시, 울산군, 경주시, 남해군, 사천시	35
	경주시(건천읍), 함안군(가야읍), 밀양시(삼랑진읍), 영덕군	30
	대구광역시, 영주시, 구미시, 김천시, 영천시, 안동시, 봉화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경산시, 청도군, 의령군, 영동군(추풍령면),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문경시, 진주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고령군, 창녕군, 함천군, 밀양시	25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군산시	40
	목포시, 여수시, 완도군, 진도군, 옥구군, 익산시, 해남군, 장흥군(관산읍, 대덕읍), 고흥군	35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30
	전주시, 진안군, 무주군, 담양군, 부안군, 남원시, 순창군, 구례군, 고창군, 정읍시, 장수군, 순천시(송주읍), 임실군	25
제주도	전지역	40

※ 위 지역외의 지역은 건설지점 부근의 유효한 관측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별표 6]

지역계수(제14조제2항관련)

지진구역	해 당 행 정 구 역		지 역 계 수
Ⅰ	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0.11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영월군, 정선군,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태백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보성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Ⅱ	도	강원도 북부(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횡성군,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춘천시, 속초시), 전라남도 남서부(무안군, 신안군, 완도군, 영광군, 진도군, 해남군, 영암군, 강진군, 고흥군, 함평군, 목포시), 제주도	0.07

[별표 7]

중요도계수(제14조제2항관련)

중요도 구 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중 요 도 계 수	
		도시지역	그 외의 지역
특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병원 · 방송국 · 통신전화국 · 소방서 · 발전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외국공관 ·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5층 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	1.5	1.2
1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운동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5층 이상인 숙박시설 · 오피스텔 · 기숙사 및 아파트 · 3층 이상의 학교	1.2	1.0
2	· 중요도 구분 특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1.0	0.8

[별표 8]

지반의 허용지내력도(제18조관련)

(단위 : kN/m²)

지 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도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도
경암반	화강암 · 석록암 · 편마암 · 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4000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도 각각의 값의 1.5배로 한다.
연암반	판암 · 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0	
	혈암 · 토단반 등의 암반	1000	
자갈		300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0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150	
모래 또는 점토		100	

[별표 9]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제53조제1호관련)

(단위 : mm)

지 지 조 건	주변이 고정된 경우의 두께	캔틸레버의 두께
$\lambda \leq 2$ 의 경우 1층 두 방향으로 배근한 콘크리트슬래브	$\lambda \cdot \ell / (16 + 24\lambda)$	-
$\lambda > 2$ 의 경우 한 방향으로 배근한 콘크리트슬래브	$\ell \times / 32$	$\ell \times / 10$

비고 λ : 콘크리트슬래브의 장변 및 단변의 각 순경간(純徑間)의 비 ℓ x : 콘크리트슬래브의 단변의 순경간(밀리미터)

‘정한 수’ 신개념을 정립하며

On Establishing Jeonghansoo

서인수 / 명진 건축사사무소
by Seo In-su, KIRA

‘정한 수’ 신 개념의 필요성은 굳이 장의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감성, 이성, 심성, 근성 등을 계발시켜 주어 많은 양의 정보를 발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대를 형성해주기 때문에 지식 기반사회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행복한 공간과 건강한 삶을 설계, 창조해 가도록 용기를 심어주게 된다.

그리고 이 신 개념은 다양한 지식정보를 광범위하게 섭렵하고 통달하게 하는 하나의 철학이라서 심연의 내·외면에 있는 속성을 읽어보는 심미안, 천리안이 형성되면 유형별로 분류, 분석하면서 잘되는 방향과 결과를 가능해 보는 잣대가 되어주니 호기심에 발동이 걸리면 잘할 수 있는 해결책, 대응책, 대비책 등을 전문적으로 강구하고 설계, 창조해 가는 비결이 되어준다.

또한 이 신 개념으로 정론, 정견, 정도, 정의, 정착, 정리, 정돈, 정안, 정질, 정예, 정통, 정상, 정양, 정관, 정화, 정진, 정아, 정한, 정형 등을 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열심히 수련, 수양, 수행, 연구, 연찬, 실천, 실행, 개척, 개선, 조화, 조정 등을 하게 되어 슬기롭게 설계, 창조해가게 되니 신 개념을 척도로 지혜를 다방면, 다각도로 응용해 가면 나날이 늘어나는 새로운 지식정보도 발 빠르게 대응, 대비, 대처해 갈 수 있어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해 주게 된다.

‘정한 수’ 신 개념은 방안, 방도, 방침 등을 점진적으로 가다듬어 깨우쳐가는 획기적인 이론이라서 정관하고 정화(精華)해보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건축사만이 가지고 있는 공학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행위를 규명, 구별하다보면 체

계적으로 기술, 공예, 기예, 기도, 기공, 기어 등을 할 수 있어 아름다운 풍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니 참다운 정기, 정신, 의지, 사랑 등으로 의식수준을 고양시켜 가면 발전을 촉진하는 기틀이 되니 재미가 있어진다.

이렇게 ‘정한 수’ 신 개념을 정립하고 단계별, 수준별로 시스템을 구축해 가게 되면 진리를 정의하고 선정하는데도 중요한 자료로 귀중한 지침이 되어주니 쓸데없는 과대포장은 없어지게 되고, 중요하고 알뜰한 내용만 과학적, 체계적, 논리적으로 분석, 분류하고 명작·명품·명가를 판명하게 되어 합리적, 구체적으로 회자, 실용, 응용, 활용, 적용, 애용 등을 하도록 표명해 주게 되니 제반 경기를 활성화하게 된다. 경기가 활성화되어 차차로 좋아지면 모두가 재미있게 설계, 창조하게 되어 슬기롭게 행사하게 되니 번영을 촉진하게 된다.

‘정한 수’ 신 개념을 정립하고 창안, 창출, 창시, 창조하게 되면 인식전환을 가져와 불현듯 점오하고 돈오하게 되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되고 아름다운 작품을 설계, 창조한다는 사명감에서 예술성과 기술성이 돋보이는 모범적인 실적을 남기게 되어 품격, 품위, 품질 등을 한층 더 높여주게 된다. 또한 다방면, 다각도로 활용, 선용, 적용, 애용, 응용, 수용 등을 하게 되어 획기적인 대응책, 대비책 등을 강구해 가게 되니 실용적, 합리적,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 창조해 가도록 정서와 정감 개발에 주력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성, 감성 지수를 체계적, 과학적, 논리적으로 고양시켜 가면 품위와 품성을 근본적으로 높여주게 된다.

이로써 ‘정한 수’ 신 개념이 Harmony가 이루어져 수준별로 적정한 방안, 방도, 방책 등을 강구하는 토대가 이루어지면 모든 분야에 적용, 활용, 응용 등을 할 수 있어 면밀하게 설계, 창조하게 되고 실천, 실행,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게 된다.

또한 ‘정한 수’ 신 개념을 정립해 두뇌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효율을 최대한 높여간다면 현황을 감지하는 유형과 수준에 따라 마인드와 센스가 천차만별로 나타나지만 최신지식정보를 읽어보

고 내용을 정확히 판명, 판별해가는 정서와 정감 개발에 주력하게 되면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어 근본적으로 섬세하게, 치밀하게, 아름답게 설계, 창조해 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니 기술력, 창의력, 상상력, 창조력, 경쟁력, 통찰력, 직관력, 구상력, 구성력 등 잠재역량을 배가하게 되어 활기찬 분위기가 이뤄진다.

그리고 유형별, 주제별로 마인드와 센스를 갖추고 디자인하고 행사하게 되면 미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신 개념을 정립하고 착실하게 운용하다보면 경제도 부흥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분야별 흐름을 세분화, 체계화, 논리화하고 심층적으로 다스려 집약된 자료를 검증하고, 논증하면서 중요한 지식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조화롭게 과학화, 정보화, 논리화해 가면 핵심요소가 기술적, 역학적(力學的), 구조적으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된다.

또 '정한 수' 신 개념에 대한 마인드와 센스로 진화를 촉진시켜 가는 분위기가 이루어져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질을 한 단계씩 올려가자는 'Well-Being' 열풍이 일어나게 되면 열기가 고조되어 Ubiquitous시대를 앞당겨 가는 촉매제로 생명수, 활력수가 되어주니 건축사도 디지털 시대에 IT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질서를 확실히 잡아가는 좌우명으로 수훈이 되어주고, 열정과 열기가 가득해지게 되면 마인드와 센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게 되어 슬기, 총기, 용기 등이 다양하게 배양되어 장인정신, 일류정신, 작가정신 등을 발휘하게 되니 명작, 명가, 명품, 명화, 명시, 명문 등을 설계, 창조해 가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최신정보를 습득해 건축문화와 건축사 권위를 수준 높게 향상시켜 가면 진선미와 지덕

체를 겸비한 지성인, 지도층으로 존경과 찬사를 받아갈 수 있는 촉매가 되어준다.

'정한 수' 란?

필자가 발견해 창안, 창조, 창시한 신 개념의 용어(用語)로, 주어진 환경에 조화롭게 적응시켜 성과를 이뤄내게 한다는 하나의 도리(道理)로 타력적인 행위를 말한다. '정한 수'는 정기·정신과 정심·정도를 추구하는 행위로 누구나 활용, 애용, 응용해 가면 자기 관심분야에 마음껏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는 획기적인 수(手)의 개념이라 애정과 관심을 갖고 단계별 과정으로 정화(精華)해 가면 성과를 다방면, 다각도로 올려주는 잣대가 되어준다.

그러므로 '정한 수'는 진지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맥의 방향을 짚어내고, 주된 방도를 찾아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끌어 가는 행위로서 의미가 넓고 깊음 지혜이다. 현황에 따른 주축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통찰하면서 요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나의 의지로 올바르게 읽고 진지하게 행사하면 성과를 이뤄낸다는 행위개념으로서 합리성, 탄력성, 타당성이 있고 친화력, 직관력, 통찰력이 있다.

'정한 수' 마인드와 센스로 영감을 읽고 실체를 판별하고 분석하게 되면 뇌리가 맑아져 구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스케치하게 되고 아름답게 설계, 창조하는 동기가 되어 자신감을 심어주니 현황을 분석, 분류, 구분, 구별하는 안목을 다방면, 다각도로 함양시켜 가면 세련된 감각으로 구상을 착상하도록 정화시켜주니 슬기롭게 행사하면 감수성을 단계별, 수준별로 높여주게 된다.

또한 '정한 수'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있어 마인드와 센스를 행위 유형별로(이성적, 감성적,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구조적, 논리적) 흐르고 있는 공통된 성질과 성향을 뽑아내 분명하게 구분, 구별하고 숙달해 원숙해지는 과정의 핵심요소를 압축해 세분화, 체계화, 정보화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통을 이해하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읽어보고 설계, 창조하게 된다.(그림1 참조)

'정한 수' 신 개념은 개념별 정서와 정감에 대한 감각과 지각이 단계별, 수준별로 숙달해 원숙해지는 과정을 피라미드구조로 시스템을 나타내 보면 질적인 수준으로 진흥, 발전해 가는데 따라 성과가 높아지고, 마인드와 센스가 최정상에 도달한 절정고수는 소수 정예로 빛이 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정한 수' 신 개념에 의한 마인드와 센스가 다방면, 다각도로 다양하게 발전해 밀도와 질량이 심층적으로 형성되어 가면 영역마다 무게와 중심이 잡혀지고 안정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이뤄가는 데는 시스템별로 기초토대를 확실히 구축해 가면 정상적으로 빛이 난다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정한 수' 이론은 아름답게 설계, 창조하고 안전하게 시공해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촉매가 되어주고 효율성, 합리성, 타당성 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手)의 신 개념이라 신성(神性)의 힘이 작용하고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시스템을 6단계로 압축시켜 구분, 구별하고 운용하는 행위의 특성, 특징, 특색 등을 수준별로 기술/기안/기도해 보게 되면 성향, 성능, 성질, 성품, 성격 등을 면밀히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건축사라는 시각과 관점에서 '정한 수' 이론을 살펴보면, 상 단계는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 수준이고, 중 단계는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실력이 축적된 수준을 말한다. 하 단계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설계업무를 수련중인 수준이라 보면 개념을 쉽게 파악하게 된다. 상 단계 전문가 수준이라도 초일류로 최정상을 달리는 최고의 절정고수는 소수정예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 이 이론이 명쾌하게 입증되고 있고, 의미가 제한적이지 않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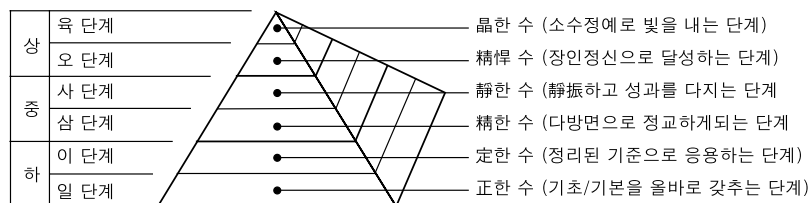


그림 1. '정한 수' 개념별 시스템도

2005년 건축허가 현황(3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3월)			누계 (1~3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3,776	11,382	-17.4%	32,305	26,503	-18.0%
	연면적	9,145,121	9,652,724	5.6%	23,621,425	23,676,419	0.2%
주거용	동 수	4,933	3,414	-30.8%	10,545	7,055	-33.1%
	연면적	2,935,350	3,928,785	33.8%	7,765,828	9,906,641	27.6%
상업용	동 수	4,409	3,366	-23.7%	10,483	7,977	-23.9%
	연면적	3,445,685	2,305,542	-33.1%	7,707,340	5,330,559	-30.8%
공업용	동 수	1,658	1,750	5.5%	4,810	4,441	-7.7%
	연면적	1,253,718	1,136,204	-9.4%	3,635,006	2,975,353	-18.1%
문교및 사회용	동 수	730	806	10.4%	1,869	2,084	11.5%
	연면적	614,737	952,888	55.0%	1,786,264	2,275,058	27.4%
기 타	동 수	2,046	2,046	0.0%	4,598	4,946	7.6%
	연면적	895,631	1,329,305	48.4%	2,726,987	3,188,808	16.9%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3월)			누계 (1~3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3,776	11,382	-17.4%	32,305	26,503	-18.0%
	연면적	9,145,121	9,652,724	5.6%	23,621,425	23,676,419	0.2%
철 근 철골조	동 수	11,411	9,955	-12.8%	27,712	23,388	-15.6%
	연면적	8,812,044	9,523,738	8.1%	22,992,756	23,403,630	1.8%
조적조	동 수	2,154	1,236	-42.6%	4,104	2,640	-35.7%
	연면적	195,497	106,095	-45.7%	457,067	214,339	-53.1%
목 조	동 수	211	188	-10.9%	489	472	-3.5%
	연면적	137,580	22,684	-83.5%	171,602	58,243	-66.1%
기 타	동 수	0	3		-	3	
	연면적	0	207		-	207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3월)			누계 (1~3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3,776	11,382	-17.4%	32,305	26,503	-18.0%
	연면적	9,145,121	9,652,724	5.6%	23,621,425	23,676,419	0.2%
수도권	동 수	4,108	3,175	-22.7%	10,740	8,375	-22.0%
	연면적	4,399,523	4,993,755	13.5%	11,546,885	11,839,260	2.5%
서 울	동 수	987	641	-35.1%	2,281	1,436	-37.0%
	연면적	1,742,361	1,487,970	-14.6%	3,878,457	2,986,606	-23.0%
인 천	동 수	351	335	-4.6%	1,033	821	-20.5%
	연면적	403,708	1,082,301	168.1%	1,175,819	1,855,875	57.8%
경기도	동 수	2,770	2,199	-20.6%	7,426	6,118	-17.6%
	연면적	2,253,454	2,423,484	7.5%	6,492,609	6,996,779	7.8%
지 방	동 수	9,668	8,207	-15.1%	21,565	18,128	-15.9%
	연면적	4,745,598	4,658,969	-1.8%	12,074,540	11,837,159	-2.0%
부 산	동 수	452	423	-6.4%	1,394	1,009	-27.6%
	연면적	216,150	410,450	89.9%	1,279,164	1,134,393	-11.3%
대 구	동 수	593	425	-28.3%	1,332	925	-30.6%
	연면적	419,153	247,227	-41.0%	840,010	900,979	7.3%
광 주	동 수	297	301	1.3%	705	738	4.7%
	연면적	222,916	277,983	24.7%	490,270	768,153	56.7%
대 전	동 수	336	326	-3.0%	811	596	-26.5%
	연면적	283,460	296,155	4.5%	954,791	475,654	-50.2%
울 산	동 수	410	154	-62.4%	985	587	-40.4%
	연면적	145,534	34,102	-76.6%	326,005	227,460	-30.2%
강 원	동 수	801	633	-21.0%	1,700	1,321	-22.3%
	연면적	233,727	352,017	50.6%	650,647	850,479	30.7%
충 북	동 수	861	852	-1.0%	1,760	1,554	-11.7%
	연면적	512,066	554,255	8.2%	1,350,809	1,153,557	-14.6%
충 남	동 수	1,085	916	-15.6%	2,276	1,875	-17.6%
	연면적	1,117,659	876,741	-21.6%	2,184,361	1,500,084	-31.3%
전 북	동 수	771	616	-20.1%	1,550	1,411	-9.0%
	연면적	272,299	291,526	7.1%	562,311	861,965	53.3%
전 남	동 수	755	689	-8.7%	1,714	1,631	-4.8%
	연면적	175,341	164,926	-5.9%	503,230	585,594	16.4%
경 북	동 수	1,516	1,248	-17.7%	3,202	2,769	-13.5%
	연면적	537,731	427,736	-20.5%	1,257,267	1,390,869	10.6%
경 남	동 수	1,416	1,374	-3.0%	3,184	3,070	-3.6%
	연면적	519,276	681,075	31.2%	1,418,632	1,824,777	28.6%
제 주	동 수	375	250	-33.3%	952	642	-32.6%
	연면적	90,286	44,776	-50.4%	257,043	63,195	-36.5%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5년 3월말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소 계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건축 사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사 회	회
합계	5,116	5,116	221	440	26	80	2	8	0	0	5,365	5,644	1,480	1,480	268	529	80	241	28	112	17	85	6	36	5	35	6	56	1,890	2,574	10	10	7,265	8,228	100.0%	100.0%
서울	1,253	1,253	62	124	15	47					1,330	1,424	873	873	168	336	48	144	18	72	9	45	3	18	4	28	4	35	1,127	1,551	9	9	2,466	2,984	33.9%	36.3%
부산	526	526	27	54	3	9					556	589	70	70	11	22	7	21	3	12	4	20	2	12					97	157			653	746	9.0%	9.1%
대구	427	427	30	60	4	12	2	8			463	507	41	41	18	36	5	15	1	4	2	10							67	106			530	613	7.3%	7.5%
인천	222	222	3	6							225	228	52	52	5	10													57	62			282	290	3.9%	3.5%
광주	193	193	2	4							195	197	32	32	11	22	3	9	2	8			1	6	1	7			50	84			245	281	3.4%	3.4%
대전	200	200	20	40	2	6					222	246	25	25	9	18	1	3	1	4							1	12	37	62			259	308	3.6%	3.7%
울산	159	159	5	10	1	3					165	172	14	14	2	4	2	6											18	24			183	196	2.5%	2.4%
경기	646	646	27	52							673	698	220	220	27	47	8	25			1	5							256	297			929	995	12.8%	12.1%
강원	158	158	5	10							163	168	20	20	4	8					1	5							25	33			188	201	2.6%	2.4%
충북	167	167	9	18							176	185	19	19	4	8			2	8							1	9	26	44			202	229	2.8%	2.8%
충남	154	154	4	8							158	162	31	31			2	6	1	4									34	41			192	203	2.6%	2.5%
전북	181	181	3	6							184	187	21	21	2	4	1	3											24	28			208	215	2.9%	2.6%
전남	128	128									128	128	9	9			1	3											10	12			138	140	1.9%	1.7%
경북	275	275	9	18	1	3					285	296	28	28	1	2	1	3											30	33	1	1	316	330	4.3%	4.0%
경남	324	324	15	30							339	354	19	19	6	12	1	3											26	34			365	388	5.0%	4.7%
제주	103	103									103	103	6	6															6	6			109	109	1.5%	1.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218	10	8,228	100.0%	24
서울	2,981	3	2,984	36.3%	12
부산	745	1	746	9.1%	9
대구	613	0	613	7.5%	0
인천	290	0	290	3.5%	0
광주	281	0	281	3.4%	0
대전	307	1	308	3.7%	0
울산	196	0	196	2.4%	0
경기	993	2	995	12.1%	2
강원	201	0	201	2.4%	0
충북	229	0	229	2.8%	0
충남	200	3	203	2.5%	0
전북	215	0	215	2.6%	0
전남	140	0	140	1.7%	0
경북	330	0	330	4.0%	1
경남	388	0	388	4.7%	0
제주	109	0	109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644	2,574	10	8,228	
비 율	68.6%	31.3%	0.1%	100.0%	
사무소수	5,365	1,890	10	7,265	
비 율	73.8%	26.0%	0.1%	100.0%	